

2022

2020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효과성 진단

W O R K I N G P A P E 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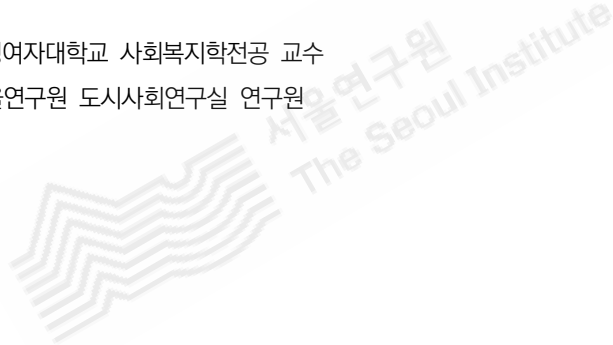
김승연 홍두나 은 석 이해림

연구책임

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위원
홍두나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연구진

은 석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교수
이혜림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코로나19시대 청년 활동지원·결핍완화에 긍정적인 영향

청년수당, 2020년 요건형으로 변경 ... 서울청년의 사회안전망으로 재탄생

2020년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시행 5년차로, 청년수당이 비로소 서울 청년의 보편적 사회안전망으로 거듭난 첫 해라는 의미가 있다. 기존에는 사업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가구소득·미취업 기준 등 별도의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매년 5천~7천여 명가량의 인원을 선발하여 지원하였지만, 2020년부터는 사업의 규모와 예산을 5배가량 대폭 확대하여 서울의 모든 미취업 청년이 생애 한번은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이 보편화되었고, 청년수당 신청 이후 기본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20년 1차 청년수당 대상자 21,917명을 대상으로 청년수당과 수당 외 프로그램 지원에 따른 정책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0년 1차 청년수당 대상자와 더불어 청년수당 참여자와 유사한 조건을 가졌지만 청년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대조군을 선정하여 사전-사후 통제집단 설계(pretest-protest control group design)에 따라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참여군 11,831명, 대조군 955명을 대상으로 활동실태, 건강, 인식의 6개월간의 변화를 살펴보고,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사전·사후 기술통계 분석결과 참여군, 대조군보다 활동실태서 더 큰 진전

참여군과 대조군의 사전·사후 조사 기술통계 분석 결과, 참여군이 대조군보다 지난 6개월간 구직준비, 소득활동 등 활동실태에 더 큰 진전을 보였다. 특히, 참여군의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비율', '근로소득', '근로시간' 상승폭이 대조군보다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참여군은 사전조사보다 사후조사에서 가족에게 경

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줄어들었고, 시간사용 문항에서 근로시간이 증가하였다. 2020년은 코로나 19사태로 사회초년생 청년의 취업지연, 아르바이트 중단 등 소득감소가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했음을 고려할 때, 현금성 청년수당이 청년들의 근로 동기를 저해하지 않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건강과 기본생활은 주관적 건강 수준, 우울, 결핍의 모든 항목에서 6개월간 참여군과 대조군의 상태가 악화되었으며, 악화 수준이 심각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여군 사후조사 기준으로 28%가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했고, 44%가 '우울' 상태였으며,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기본생활 결핍 경험도 모든 문항에서 25%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결핍 경험은 대조군에서 6개월간 결핍상태가 늘어난 반면, 참여군은 모든 항목에서 결핍 경험이 줄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련의 결과는 서울 청년의 건강과 기본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더 강화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사회신뢰, 복지인식 등 인식 관련 항목은 선행연구에서 청년수당의 주요 성과로 일관되게 보고되었지만, 이 연구에서는 뚜렷한 차이나 긍정적 변화가 밝혀지지 않았다. 응답자의 건강과 기본생활, 그리고 인식 지표의 악화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이에 따른 불안정성의 확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청년수당 참여자 31%, '진로탐색·역량강화 지원사업' 등의 프로그램 참여

현재 중앙정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수당과 유사한 현금성 수당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수당과 다양한 비금전적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는 패키지 사업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청년수당 참여자는 자율적 선택에 따라 '진로탐색·역량강화 지원사업', '마음건강 지원사업', '사회참여 지원사업' 등 관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의 약 31%가 1개 이상의 프로그램 참여경험이 있었으며, 수당 외 프로그램 참여자는 전체 응답자에 비해 여성, 30대,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의 비율이 높았다. 프로그램 미참여 집단의 미참여 사유는 90% 이상이 '시간이 적절하지 않아서'로 응답하여 앞으로 활동 중인 청년, 일과가 유동적인 청년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운영시간을 유연화하거나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비대면 프로그램을 늘릴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 참여자와 미참여자를 구분하여 기술통계 수준에서 활동실태, 우울, 인식의

주요 성과지표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진로탐색·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참여자의 진로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마음건강 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우울의 차이, ‘사회참여 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크게 확인되지 않았다.

이중차분분석 결과 청년수당, 참여군의 노동시장 참여에 긍정적 정책효과

이 연구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인과적 정책효과를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의미 있는 변화가 포착되었던 결과변수를 중심으로 이중차분모형을 활용하여 청년수당과 수당 외 프로그램의 정책효과를 살펴보았다. 정책변화의 효과가 각 집단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속성에서 비롯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 분석모형에는 성별, 연령, 학력, 우울 수준 등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청년수당의 정책효과성 분석 결과, 청년수당은 수급자의 근로소득과 노동시간에 정적인 정책효과를 미치며, 청년수당을 받은 집단이 받지 않은 집단보다 노동시장에 참여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청년수당은 참여군의 노동시장 성과에 긍정적인 정책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청년수당은 참여군의 결핍 응답가능성을 줄이는 긍정적인 정책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한편, 청년수당이 정부신뢰와 사회신뢰 같은 ‘인식’에 미친 정책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청년수당 외 프로그램의 정책효과성 분석 결과, 일대일 마음건강사업은 고위험 우울군의 우울감소에 효과가 있었고, 취업프로그램 참여는 구직준비도 수준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인과적 정책성가를 검증할 목적으로 이중차분모형을 활용한 준자연실험설계하에 정책효과를 추정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특히, 기존 선행연구에서 드러나지 않던 청년수당 참여자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노동시장 성과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목차

01 연구개요	2
1_연구목적과 수행체계	2
2_연구내용과 방법	5
02 청년활동지원사업 내용과 정책효과 논의	10
1_청년활동지원사업 내용과 현황	10
2_청년활동지원사업과 유사사업의 정책효과 연구	16
03 청년활동지원사업 정책효과 분석 I : 사전-사후조사 비교	24
1_조사개요	24
2_응답자 현황	28
3_참여자와 대조군의 사전-사후비교 분석 결과	52
4_수당 외 프로그램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특성 비교	71
04 청년활동지원사업 정책효과 분석 II : 이중차분분석	88
1_분석방법	88
2_청년수당의 정책효과성 평가	91
3_수당 외 프로그램의 정책효과성 평가	107
05 결론	124
1_연구결과 요약	124
2_연구의 한계와 시사점	128
참고문헌	133
Abstract	135

표 목차

[표 1-1] 조사시기 및 응답자 현황	6
[표 2-1] 연차별 청년수당 추진 현황	11
[표 2-2] 연차별 청년수당 대상자 조건·선정기준	12
[표 2-3] 청년활동지원사업 운영 주체	13
[표 2-4]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대상	14
[표 2-5] 2020년 수당 외 프로그램의 내용	15
[표 2-6] 2017년 성과측정 및 효과연구에서 도출된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성과지표	17
[표 2-7]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 연구의 효과성 측정 문항의 구성	19
[표 2-8]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성과지표 최종(안)	21
[표 3-1] 대조군 선정기준	25
[표 3-2] 사전·사후 조사시기 및 표본	26
[표 3-3] 설문문항의 구성	27
[표 3-4] 모집단·참여군·대조군의 분포	29
[표 3-5] 모집단의 특성	30
[표 3-6]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 개요	33
[표 3-7] 참여군과 대조군의 특성(사전조사 기준)	35
[표 3-8] 부모 동거 여부	36
[표 3-9]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 여부	37
[표 3-10]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독립 여부	37
[표 3-11] 최종학력 졸업 후 경과 기간	38
[표 3-12] 현재 소득활동 여부	38
[표 3-13]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과거 일 경험	39

[표 3-14] 개인 월평균 소득액	41
[표 3-15] 가구 월평균 소득 구간	42
[표 3-16] 부모의 주관적 계층 수준	42
[표 3-17] 재산 현황	43
[표 3-18] 대출과 저축 현황	44
[표 3-19] 지출과 지출항목	45
[표 3-20] 참여자의 2020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정보습득 경로	46
[표 3-21] 참여자의 청년수당 참여경험	46
[표 3-22] 6개월 미만 참가자의 사업 중단 이유	47
[표 3-23] 대조군의 청년수당에 신청하지 않은 이유	48
[표 3-24] 청년수당 이전의 공적 지원 경험 1	49
[표 3-25] 청년수당 이전의 공적 지원 경험 2	50
[표 3-26] 참여자와 대조군의 사전-사후비교 분석 개요	52
[표 3-27] 구직준비도	53
[표 3-28] 사전·사후 구직준비도의 교차분석(참여자)	54
[표 3-29] 구직준비도(점수)	54
[표 3-30] 구직활동 경험 여부	55
[표 3-31] 4주 이내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집단의 특성	55
[표 3-32] 4주 이내 주된 활동 1순위	56
[표 3-33] 현재 소득활동 여부	57
[표 3-34]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집단의 특성	58
[표 3-35] 근로소득과 근로시간	59
[표 3-36]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 여부	59
[표 3-37] 하루 평균 시간 사용	60
[표 3-38] 주관적 건강상태	62
[표 3-39]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청년의 건강상태(사후조사 기준)	62
[표 3-40] 우울	64
[표 3-4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청년의 건강상태(사후조사 기준)	64
[표 3-42]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결핍	66
[표 3-43] 신뢰수준	67

[표 3-44] 지지체계, 재기 믿음, 정치적 효능감	68
[표 3-45] 1년 내 목표달성에 대한 믿음	69
[표 3-46] 공정성에 대한 인식	69
[표 3-47] 수당 외 프로그램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특성 비교 분석 개요	71
[표 3-48] 수당 외 프로그램 참여경험	72
[표 3-49] 프로그램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72
[표 3-50] 수당 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73
[표 3-51] 참여 프로그램(복수응답)과 만족도	74
[표 3-52] 참여 프로그램 범주화	76
[표 3-53] 프로그램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범주별)	76
[표 3-54] 지원금 외 프로그램 만족 사유	77
[표 3-55] 지원금 외 프로그램에 대해 아쉬운 점	78
[표 3-56] 청년활동지원금 외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	78
[표 3-57] 참여 프로그램 범주에 따른 응답자의 차이 분석	79
[표 3-58] 프로그램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구직준비도 차이	81
[표 3-59] 프로그램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구직준비도 차이(점수)	81
[표 3-60] 프로그램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구직·소득활동 차이	82
[표 3-61] 프로그램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근로소득과 근로시간	83
[표 3-62] 마음건강 지원사업참여자와 미참여자의 우울	84
[표 3-63] 마음건강 지원사업참여자와 미참여자의 우울 수준 차이	85
[표 3-64] 사회참여 지원사업참여자와 미참여자의 지지체계와 자아신뢰의 차이	85
[표 4-1] 이중차분 분석의 개요	90
[표 4-2] 참여군과 대조군의 근로소득의 변화	92
[표 4-3] 이중차분분석결과: 청년수당이 수급자의 근로소득에 미친 영향	93
[표 4-4] 참여군과 대조군의 소득과 관계된 일하는 시간의 변화	94
[표 4-5] 이중차분분석결과: 청년수당이 주당 노동시간에 미친 영향	95
[표 4-6] 참여군과 대조군의 '현재 일을 하고 있음' 비율의 변화	96
[표 4-7] 이중차분분석결과: 청년수당이 노동시장 참여 여부에 미친 정책효과	97
[표 4-8] FGI 그룹 구성	98
[표 4-9] 참여군과 대조군의 신뢰수준의 변화	102

[표 4-10] 이중차분분석결과: 청년수당이 '사회신뢰'에 미친 미친 정책효과	103
[표 4-11] 참여군과 대조군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결핍경험의 변화	105
[표 4-12] 이중차분분석결과: 청년수당이 수급자의 결핍에 미친 정책효과	106
[표 4-13] 우울의 하위 문	109
[표 4-14] 일대일 심층상담참여자자과 미참여자의 우울 수준	110
[표 4-15] 일대일 심층상담의 효과성: 청년수당 수급자 중 상담자와 미상담자 비교	112
[표 4-16] 청년수당 수급자 중 상담참여자자와 대조군의 우울 수준	113
[표 4-17] 일대일 마음건강사업의 효과성: 청년수당 수급자 중 상담자와 대조군의 비교	115
[표 4-18] 취준프로그램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구직준비도	117
[표 4-19] 취업준비프로그램이 구직준비도에 미친 영향: 청년수당 수급자 중 취준프로그램 참여자와 미참여자 비교	118
[표 4-20] 청년수당 수급자 중 취준프로그램 참여자와 대조군의 구직준비도	119
[표 4-21] 취업준비프로그램참여가 구직준비도에 미친 영향: 청년수당 수급자 중 취준프로그램 참여자와 대조군 비교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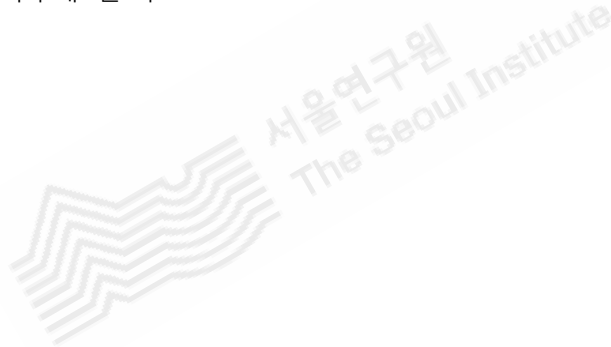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4
[그림 1-2] 연구 분석 방법	7
[그림 2-1] 2019년 연구의 조사 설계	18
[그림 3-1] 모집단·참여군·대조군의 분포	30
[그림 3-2] 최종학교 졸업 후 경과 기간	38
[그림 3-3] 최종학교 졸업 후 일자리를 가지지 않은 이유	40
[그림 3-4] 개인 월평균 소득 구성(%)	40
[그림 3-5] 가구 월평균 소득 구간(%)	41
[그림 3-6] 부모의 주관적 계층 수준	42
[그림 3-7] 가구 재산 구간(%)	43
[그림 3-8] 대출 항목별 비율(%)	44
[그림 3-9] 지출 항목(%)	45
[그림 3-10]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정보습득 경로	46
[그림 3-11] 청년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48
[그림 3-12] 진로와 관련하여 귀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53
[그림 3-13] 최근 4주 이내 구직활동 경험 여부	55
[그림 3-14] 4주 이내 주된 활동 1순위(참여군)	56
[그림 3-15] 4주 이내 주된 활동 1순위(대조군)	56
[그림 3-16] 현재 소득활동 여부의 변화	57
[그림 3-17] 근로소득과 근로시간의 변화	58
[그림 3-18]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 여부 변화	59
[그림 3-19] 참여군과 대조군의 시간사용(사후조사 기준)	60

[그림 3-20] 주관적 건강상태	61
[그림 3-21] 우울과 고위험 우울 경험 비율	63
[그림 3-22]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결핍	65
[그림 3-23] 신뢰수준	66
[그림 3-24] 지지체계	67
[그림 3-25] 재기 믿음, 정치적 효능감	68
[그림 3-26] 공정성에 대한 인식	69
[그림 3-27] 수당 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	73
[그림 3-28] 수당 외 프로그램 참여경험	74
[그림 3-29]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른 구직준비도	80
[그림 3-30]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른 구직활동·소득활동 참여 여부	82
[그림 3-31]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른 근로소득과 근로시간	83
[그림 3-32] 마음건강 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우울 수준의 차이	84
[그림 4-1] 참여군과 대조군의 근로소득 변화	92
[그림 4-2] 참여군과 대조군의 근로시간 변화	94
[그림 4-3] 참여군과 대조군의 노동시장 참여비율 변화	96
[그림 4-4] 참여군과 대조군의 신뢰수준의 변화	102
[그림 4-5] 참여군과 대조군의 결핍경험의 변화	105
[그림 4-6] 일대일 심층상담참여자 및 미참여자의 우울 점수	110
[그림 4-7] 청년수당 수급자 중 상담참여자 및 대조군의 우울점수	113
[그림 4-8] 취준프로그램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구직준비도	117
[그림 4-9] 청년수당 수급자 중 취준프로그램 참여자와 대조군의 구직준비도	119

01

연구개요



1_연구목적과 수행체계

2_연구내용과 방법

01. 연구개요

1_연구목적과 수행체계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16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최초 시행된 이후 사업 5년 차를 맞이하며 그동안 청년정책을 바라보는 관점과 정책 내용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2016년 사업 시행 초기에는 사회진입 초기 단계의 미취업 청년이 미래를 설계하고 진로탐색과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가 낮았으며, 기존 중앙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현금수당과 중복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청년기의 사회적 위험의 심화에 따라 단순 노동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는 교육훈련·취업알선 정책에서, 나아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서울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지원사업의 모델이 되었고, 2019년 정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도입되면서 전국적 모델로 확장되었다.

청년활동지원사업의 도입 당시 청년에게 조건 없이 현금성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가 낮았던 만큼, 정책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에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정책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 수행되었다. 2016년 청년활동지원사업참여자 대상 사후조사 최초 실시 이후 매년 청년수당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업참여자의 변화와 사업 만족도를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온전한 의미의 첫 청년수당이 지급된 2017년에는 당해 청년수당 참여자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수당 지급 직후, 중간, 종료 3차에 걸친 설문조사와 2차에 걸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참여자들의 정책 수요와 정책참여 현황, 향후 개선점을 수렴하였다.

이전 조사가 참여자의 정책 수요와 만족도를 파악하고 앞으로 정책운영 방안에 대한

개선점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201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청년수당의 정책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2018년 연구는 청년수당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업개시시점과 종료시점에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수당 지급 전·후의 변화와 양상을 분석하였고, 이전 연도 참여자의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장기적·지속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2019년 청년수당 효과성 평가연구는 최초로 참여자군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대조군 집단을 표집하여 참여자-대조군을 대상으로 한 사전-사후조사·분석 모형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수당’이라는 정책적 개입 외에 참여자와 대조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간·환경에 따른 변화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는 양적 연구를 비롯한 풍부한 해석적 연구로 지난 5년간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의미와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매년 ‘사업참여 만족도’, ‘청년수당의 도움 정도’에 대한 참여자 집단의 긍정적인 평가가 보고되었으며, 2019년 조사에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참여자가 대조군보다 사회신뢰, 사회적 지지, 삶의 안정, 삶의 만족도 등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기존연구는 참여자의 특성과 정책 수요·정책운영에 대해 상세하고, 풍부한 평가를 하고 있으나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정책효과 분석에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일부 한계를 보인다. 선행연구의 분석방법은 참여군과 대조군의 응답값의 차이를 보고하거나 참여자군과 대조군의 사전-사후 변화량의 단순비교에 그쳐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변화인지, 실질적 정책개입의 효과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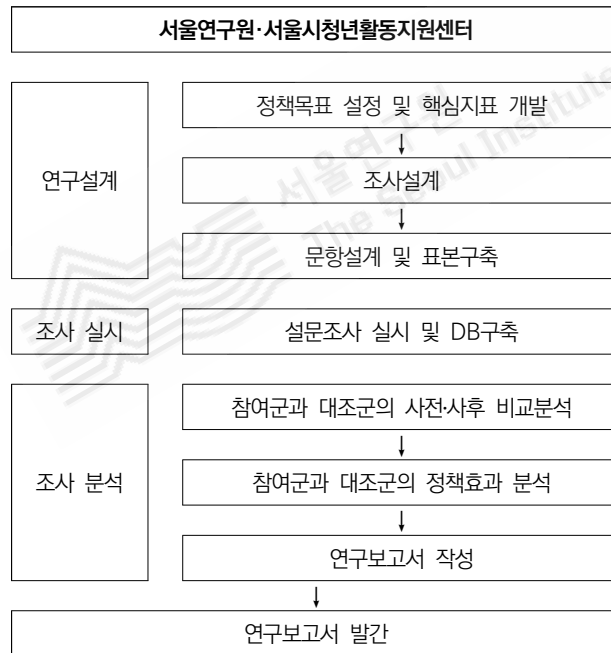
2020년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청년수당이 서울 청년의 보편적 사회안전망으로 거듭난 첫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사업기준을 충족한 청년 중 별도의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매년 5천 명에서 7천 명을 선발하여 지원하였는데, 2020년부터는 3년간 서울의 모든 미취업 청년이 생애 한번은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편화하였다. 2020년 청년활동지원사업 효과성 평가연구는 그동안의 청년활동지원사업 효과성 평가 연구의 연장선에서, 과학적 정책효과 측정방법을 보완하여 정책효과성을 더 엄밀하게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20년 1차 청년수당 대상자 21,917명을 대상으로 청년수당과 수당 외 프로그램 지원에 따른 정책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0년 1차 청년수당 대상자와 더불어 청년수당 참여자와 유사한 조건을 가졌지만 청년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대조군을 선정하여 사전-사후 통제집단 설계(pretest-protest control

group design)에 따라 활동실태, 건강, 인식 등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정책효과를 검증하였다.

2) 연구의 수행체계

2020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효과성 연구는 서울연구원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의 협력연구로 진행되었다. 2020년 4월 서울연구원·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효과성 평가연구를 위한 학술·연구 교류 업무협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서울연구원은 정책효과성 평가연구를 위한 연구설계, 설문구성, 조사자로 분석을 전담하였고,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주관하는 청년활동지원센터는 1차 청년수당 참여자와 대조군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전·사후조사의 수행·관리를 전담하였다.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2_연구내용과 방법

1) 연구내용의 구성

이 연구는 2020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의 효과성을 파악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내용을 구성되었다. 2장에서는 2020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도입 이후 제도의 변화 내용을 살펴보고, 2020년 사업 대상자 및 선정기준, 수당 외 지원프로그램의 내용을 파악하였다. 또한, 이 연구의 목적이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정책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기존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부의 구직활동지원금사업의 정책효과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청년활동지원사업 정책효과 분석으로 참여군과 대조군의 사전·사후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2020년 청년활동지원사업참여자와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여 정책효과 분석에 앞서 참여자와 대조군의 동질성을 점검하였고 ② 참여자와 대조군의 청년수당 지원 전·후의 활동실태, 건강, 인식 등에서 변화의 차이 비교하여 정책효과성을 일차적으로 검증하였으며 ③ 마지막으로 청년활동지원사업참여자 중 청년수당만 수급한 집단과 청년수당과 활동지원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한 집단을 구분하여 특성을 비교하였다.

4장에서는 청년활동지원사업 정책효과 분석으로 참여군과 대조군의 사전·사후 분석을 통해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 이후 유의미한 변화가 포착된 항목을 중심으로 이중차분 분석을 통해 정책효과를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군과 대조군의 노동시장 참여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근로 및 사업소득, 근로시간, 노동시장 참여 여부에 미친 정책효과를 분석하였고 ② 앞서 분석한 동일한 대상으로 인식변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신뢰(정부신뢰, 서울신뢰, 이웃신뢰, 사회신뢰), 결핍경험인식에 미친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③ 청년활동지원사업 중 수당 외 프로그램의 정책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일대일 마음건강사업이 청년우울 수준에 미치는 효과와 취업준비 프로그램이 구직준비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5장에서는 3장과 4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고, 이 연구의 조사와 분석의 한계점을 제시하면서, 향후 개선과제를 제안하였다.

2) 연구 방법

(1) 선행연구 검토

2016년 이후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수행된 청년활동지원사업 효과성 평가 연구의 검토를 통해 이 연구의 성과지표를 구성하였다. 나아가 청년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현금수당의 효과성 평가연구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분석 연구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효과성 평가연구에서 활용한 분석방법을 검토하고, 성과지표 및 정책효과 분석결과를 참고하였다.

(2)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설계와 조사문항에 관한 사항은 논의하여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정책효과로 검증해야 할 설문문항을 개발하였다. 나아가 서울연구원, 청년활동지원센터, 조사전문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참여군과 대조군의 표집설계 및 조사의 보완사항을 점검하고, 1차와 2차 조사결과를 점검하였다.

(3)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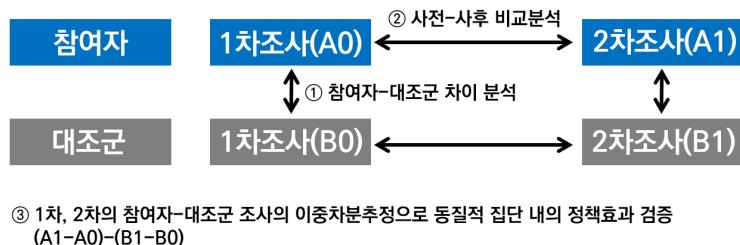
청년활동지원사업참여자와 대조군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참여자는 2020년 1차 청년활동지원사업 선정자 21,917명을 대상으로 하고, 대조군은 참여자 선정기준에 해당되지만 청년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청년활동지원사업참여자 선정 후 청년수당이 지급되기 직전에 사전조사를 실시하였고, 6개월간 청년수당이 모두 지급된 이후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2020년 1차 청년활동지원사업참여자 21,917명 중 사전조사 응답자는 15,584명(70.7%), 사후조사 응답자는 11,853명(53.7%)이고, 대조군 응답자는 사전조사 1,416명, 사후조사 1,084명이다. 이 중 최종 분석에 활용된 유효표본은 참여자 11,831명, 대조군 955명이다.

[표 1-1] 조사시기 및 응답자 현황

구분		참여자	대조군
조사시기	사전	2020년 5월 21일 ~ 6월 8일	2020년 5월 25일 ~ 6월 15일
	사후	2020년 11월 11일 ~ 11월 27일	2020년 11월 12일 ~ 12월 4일
응답자	사전	15,584명	1,416명
	사후	11,853명	1,084명
최종 분석 유효표본		11,831명	955명

(4) 데이터 분석

이 연구는 참여자의 정책개입효과 검증을 위해 가장 적합한 비교집단을 인위적으로 구성하여, 통제집단 사전사후검사설계 pretest-protest control group 디자인에 따라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정책효과를 검증하였다.



[그림 1-2] 연구 분석 방법

분석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와 대조군의 1차 조사결과 비교를 통해 두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 집단의 동질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참여자와 대조군의 사전-사후 조사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한 집단과 미참여한 대조군 간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정책효과 추정 비교분석을 위해 이중차분분석(Difference in Difference, DID)을 실시하였다.

(5) FGI 실시

마지막으로 양적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을 보완하고, 참여자 본인이 해석하는 삶의 변화를 기록하기 위해 2차 조사 실시 이후 조사응답자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FGI는 설문조사의 내용 중 특히 청년수당 참여 이후 노동시장 참여경험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에 집중하여 진행되었다. 이에 FGI 대상자의 표집과 그룹의 구분은 연령, 학력과 2차 조사 당시 '주당 1시간 이상 근로 여부'를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02

청년활동지원사업 내용과 정책효과 논의



1_청년활동지원사업 내용과 현황

2_청년활동지원사업과 유사사업의 정책효과 연구

02. 청년활동지원사업 내용과 정책효과 논의

1_청년활동지원사업 내용과 현황

1) 청년활동지원사업 도입배경과 목적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2015년 서울시가 발표한 청년정책 종합계획인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의 ‘설자리’ 분야의 대표 사업이다. 청년수당은 기존의 취·창업과 일자리 정책 일변도였던 청년 복지사업의 틀을 벗어나 구직준비, 사회참여활동, 자기탐색 등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폭넓게 지원하며 청년의 사회참여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금전적 지원(매월 50만 원, 최대 6개월)과 더불어 다양한 비금전적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패키지 사업으로 구성되어있다.

2016년 8월 시행 초기에는 서울 청년 3,000명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을 최초 지급 하였으나 사업 시행과정에서 사회보장위원회의 불수용 조치로 인해 사업 내용을 변경하였고, 본격적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되었다. 2017년 사업은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 6개월의 수당이 지급되었으며, 2018년부터는 연중 2회(전반기, 후반기) 사업참여자를 모집하여 지원기회를 확대하였다. 해를 거듭함에 따라 수당참여 대상을 확대하였고 더불어 마음건강 지원사업, 관계망 지원사업, 자기탐색 지원사업 등 맞춤형 청년활력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도모하였다.

2019년 고용노동부의 구직활동지원금 실시에 따라 서울의 청년수당 모델은 ‘정책의 대상으로서의 청년’을 지원하는 전국적 모델로 확장되면서 대상 기준을 일부 변경하면서 청년수당의 보편화를 도모하였다. 기존에는 청년수당 지급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중에서 일부만 선별하여 지원해왔는데, 청년수당이 필요한 서울의 모든 미취업 청년이 생애 한번은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를 위해 2019년 10월, 3년간 총 3,300억 원을 투자하여 2022년까지 청년수당 대상자 10만 명을

목표로 하는 ‘청년출발지원’을 발표했다.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규모는 예산 900억 원 약 3만 명 규모로 이전 연도에 비해 예산과 모집 규모가 약 5배가량 확대되었다. 2020년 청년수당 신청자는 총 35,289명, 선정자는 32,484명(선정률 92%)으로, 기존의 선발형 수당 지급에서 자격요건 충족 청년 모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신청형 수당 지급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신청 인원의 대부분을 정책대상으로 포괄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2020년은 청년수당이 비로소 서울 청년의 보편적 사회안전망으로 거듭난 첫해라고 할 수 있다.

[표 2-1] 연차별 청년수당 추진 현황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1차)	2020(2차)
예산액	90억 원	150억 원	210억 원	180억 원	900억 원	
모집 규모	3,000	5,000	7,000	6,500	30,000	
선정자	2,831	4,909	7,315	6,528	21,917	10,567
신청 인원	6,309	8,329	15,685	19,465	26,780	12,451

2)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주요 내용

(1) 청년활동지원사업 제도 변화

청년활동지원사업은 도입 이후 여러 차례 제도적 변화를 거쳐왔다. 청년수당 도입 당시, 정책대상은 서울 거주 만 19세~29세의 저소득 미취업·단기근로 청년으로, 2016년 시범사업 이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소득 제한이 신설되었다.

2019년 고용노동부가 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을 전면 시행하면서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대상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2019년 고용노동부는 ‘만 18~34세’, ‘중위소득 120% 미만’,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 8만 명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 최대 6개월간 구직활동포인트를 지급하는 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을 신설하여 고용보험 미가입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사업을 실시하였다. 다만, 졸업 후 2년 이내(구직의지 높은 미취업 청년)로 대상자 제한에 따라 사각지대가 발생하였고, ‘생활과 활동보장’에 초점을 둔 청년수당과는 달리 구직활동에 중심을 둔 고용복지서비스로서의 실업부조 성격을 지녀 사용처의 제약(월세지출, 생활비지출, 중고서적 구입 등 불가능) 등으로 기존의 청년수당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재성 외, 2019).

따라서 2019년부터는 고용노동부의 기준에 상응하여, 청년수당의 대상을 서울 거주 만 19세~34세 중 졸업 후 2년이 경과 한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업 청년 기준으로 변경하여, 사업대상의 중복을 피하되 기존의 청년수당의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는 30대가 최초로 청년수당의 정책대상으로 포괄되었으며, 수당참여자의 연령과 미취업기간이 늘어나는 등 참여자 특성에도 변화가 있었다.

[표 2-2] 연차별 청년수당 대상자 조건·선정기준

구분		2017	2018	2019	2020
정책대상		만 19세~29세 미취업 청년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	
학력 조건		재학·휴학생 제외, 졸업자		재학·휴학생 제외, 졸업·중퇴 후 2년 경과자	
거주조건		1년 이상 서울 거주	공고일 이전 서울 거주		
소득조건		중위소득 150% 미만			
근로조건		주 30시간 미만 취업자		주 30시간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단기 근로	주 26시간 미만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
선발 조건	정량	소득 60점, 미취업기간 40점, 부양가족 가점 최대 12점	소득 60%, 미취업기간 40%	미취업기간 100% *연령구간별 쿼터 부과 ¹⁾	-
	정성	활동계획서 심사: 1차 정량평가 후 공무원, 전문가, 청년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심사선정위원회를 거쳐 신청자의 지원동기, 월별 활동계획을 평가하여 사업 취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자를 제외			
수당 지급		월 50만 원 1개월 현금 지급	월 50만 원 6개월 체크카드로 지급		

2020년 이전에는 자격 결과 확인 후 적합 대상자 간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점수가 높은 사람을 우선 선발하였다. 연차별로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수 등의 정량평가 점수와 활동계획서를 심사한 정성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했고, 정책 수요가 높고 활동 의지가 높은 청년을 우선 지원하였다. 2020년부터는 사업 운영 기준이 기존의 '선발형'에서 '요건형'으로 변경되어, 신청 후 기본요건을

1) 2019년 청년수당의 경우 구직활동지원금 기준에 맞추어 대상 연령이 만 34세까지로 확대되면서 참여자의 미취업 기간이 크게 늘어나고 참여자의 연령이 높아짐. 이에 요건 충족 지원자 중 미취업 기간에 가산점을 주고 만19~24세, 만 25~29세, 만 30~34세의 3개 연령 구간별 동일비율 선발 원칙을 두고 특정 구간 미달 시 다른 구간에 동일 배분하여 선발함.

충족하면 모두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한편,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단순 현금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년수당을 매개로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종합지원정책이다. 2020년 현재 청년수당의 모집·선정·지급 주체는 서울특별시 청년청으로 청년수당 사업을 기획하고 청년활력프로그램을 운영·총괄한다. 수당 외 서비스인 청년활력프로그램의 운영 주체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이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는 청년의 역량강화와 진로모색, 관계형성, 일 경험 지원 등 다양한 청년활력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년수당 참여자를 지원(홍보, 오리엔테이션, 연계지원, 기본교육)하며 지역별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운영·지원하는 기관으로 서울시로부터 관련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다.

[표 2-3] 청년활동지원사업 운영 주체

서울특별시 청년청	청년활동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 청년수당 모집·선정·지급 청년 활력 프로그램 운영 총괄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활력 프로그램 참여자 지원 오리엔테이션 참여 관리 근로계약서(중간자격관리) 제출 확인

(2) 2020년 청년활동지원사업 내용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2020년 청년활동지원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0년 청년수당이 경우 별도의 심사평가 없이 서울 거주, 중위소득 150% 미만, 졸업 후 2년, 미취업 등의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오리엔테이션 참여 등 필수요건을 충족하면 선정 가능하다. 청년수당은 청년수당 전용계좌와 연계된 클린카드(체크카드)로 이체되며 매월 25일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된다. 청년수당은 청년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진로와 취업 목표를 설정하고 적합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사용 용처를 지정하지 않고, 본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지출할 수 있으나,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일부 업종에서는 클린카드 사용이 제한된다²⁾. 사회진입활동 지원을 위해 사업 대상자 선정 후 최초 3개월은 조건 없이 지급하고 4회차 지급부터는 활동기록서를 제출하도록 한다³⁾.

2)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있어,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판매, 귀금속, 안마시술소, 주점 등에 사용이 제한되며, 개인 자산형성 목적(상품권 구매, 주식, 예금, 적금, 민간보험 납입 등)으로 사용이 불가하며 해외결제 불가함. 카드사용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 정기적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시 현금 사용 총액 및 주요 사용처를 기입하여 제출해야 함.

3) 활동기록서는 6개월간 총 2회 작성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청년수당 지급이 중지됨. 이 밖에 자격정지 사유로

[표 2-4]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대상

구분	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만19세~34세 미취업 청년 3만 명 내외
학력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종학력 졸업(중퇴·자퇴·제적) 이후 2년 넘은 청년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최종학력 2년 경과자일 경우 신청 가능 야간대학 재학생·휴학생은 사업참여 제외
취업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보험 가입 3개월 이하 또는 주 26시간 이하 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생 등)는 신청 가능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의 경우 사업참여 제외
소득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150% 미만으로 지역 254,909원 미만, 직장 237,652원 미만('20년 4인 가구 기준)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년~2019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참여자(생애 1회 지원) 대학 재학생·휴학생(단 수료 후 2년 이상 지난 경우 신청 가능) 청년수당 사업 동일기간 내 정부사업참여자(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사업참여자)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자(의료·교육·주거급여자는 신청가능하나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산정됨)
필수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리엔테이션 참여,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 약정체결, 마음건강 자가체크

청년활동지원사업참여자는 본인의 수요와 정책 욕구에 따라 수당 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2020년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수당 외 지원사업은 크게 ① 자기이해 지원사업 ② 마음건강 지원사업 ③ 사회참여 지원사업 ④ 권역별 청년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구분되며 사업의 세부내용은 [표 2-5]와 같다.

2020년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대면 서비스 제공의 한계로 자기이해 지원사업, 그룹마음상담 등 일부 상담과 교육프로그램이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었으나, 권역별 청년센터(YC)의 확충으로 청년지원 전달체계 새롭게 구축하였고 생활권 단위에서 참여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였다.

① 서울지역 외 거주지 변경, 진학, 자진포기 등은 해당 월까지만 지급, ② 취·창업 등은 다음 회차까지만 지급됨.

[표 2-5] 2020년 수당 외 프로그램의 내용

사업명	내용
■ 자기이해 지원사업: 총 115회, 8,133명 참여 운영	
자기이해, '지금, 나, 방향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자기 이해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사회진입을 시작하고자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자기 이해에 대한 기초적이고 보편적 교육과정을 제공(온/오프라인) 성과: 오프라인(1회 4시간) 51회(1,144명), 온라인(1회 3시간) 32회(1,357명) 참여
자기이해, '지금, 나, 취업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구직청년을 위한 주제별(취업준비,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직무정보탐색법 등) 온라인 강의 제공 성과: 온라인(상시, 1시간 내외) 4회, 1,837명
취준설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다양한 진로·취업 고민을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해소하고 진로, 취업에 관한 필수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실시간 수업 성과: 온라인(실시간, 3시간) 28회(3,795명)
■ 마음건강 지원사업: 총 1,835건, 연인원 24,070명 실시	
일대일 심층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서울 청년의 심리·정서적 건강 증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전문심리상담사와 기본 1인당 7회기, 최대 15회기의 1:1 심리상담서비스를 실행(서울시 상담공간 및 온라인 진행) 성과: 서울시 거주 만 19세~34세 청년 총 3,086명 참여
그룹 마음상담 '소담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청년수당 참여자 중 프로그램 선정자를 대상으로 회기당 3시간씩 총 8회로 구성된 구조화된 그룹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완화 성과: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중 프로그램 선정자 총 79명 대상 그룹 마음상담 실행
온라인 고민상담소 '하이데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온라인 고민 상담사 마음친구가 온라인 게시판 상담을 통해 일상에서의 고민과 청년의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완화를 도움 성과: 2020년 온라인 게시판 상담실행 총 1,696건
■ 사회참여 지원사업	
어슬렁 반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2020년 청년수당 참여자를 대상으로 동네 소모임을 구성하여 규칙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일상적 관계형성의 기회 제공 성과: 14개 모임 연간 2회 개최(1회기는 오프라인 진행, 2회기 이후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온·오프라인 병행)
실수해도 괜찮은 사회생활 연습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사회활동 경험이 없는 20세~25세 청년을 대상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소통하고 체험하는 연습을 통해 자신감과 주도성을 형성 성과: 총 25명 12회차 프로그램 제공
서울잡스 내일취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직무와 기업담당자를 인터뷰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하여 구직자에게 직무·기업정보를 제공 대상: 총 30여 명 내외 참여
서울문화재단 예술로 힐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서울예술치유허브 예술로 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예술활동을 통한 개인의 심리적·정서적 치유 및 사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참여형 프로젝트 대상: 총 15개 단체를 선정하여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비 지원

기초 IT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IT 직무역량 제고 및 취업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crosoft MPP 과정: 기초개발자,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 프로그램 - Microsoft learn 과정: 난이도, 직무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추가 개설 대상: 청년수당 참여자 중 IT 교육 참여를 원하는 청년
복지재단 청년희망특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희망두배청년통장, 청년수당 참가자를 대상으로 청년에게 양질의 정보 제공 및 자립 의지 고취를 위한 '2020년 희망특강'을 진행(온라인 실시한 화상강의)

■ 권역별 청년센터 운영지원

서울청년센터 오랑 종합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문턱 낮은 상담체계를 구축하여 청년의 욕구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자원을 연계
-------------------	---

2_청년활동지원사업과 유사사업의 정책효과 연구

1)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효과성 평가연구

2016년 청년활동지원사업참여자 대상 사후조사를 최초 실시한 이후 매년 사업참여자
의 변화와 사업 만족도 등 청년활동지원사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었다. 온전한 의미의 첫 청년수당이 지급된 2017년에는 당해 청년수당 참여자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수당 지급 직후, 중간, 종료 3차에 걸친 설문조사와 2차에 걸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참여자들의 정책참여 현황, 정책 수요·평가, 향후 개선점을 수
렴하였다. 2017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참여자 분석연구의 목적은 2017년 사업
의 효과성과 다양성을 검토하고 2018년 사업 기획에 유익한 정책적 함의를 발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해에는 이와 더불어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성과 개념을 재정립하고 청년수당의 적정
성과 효과성 평가를 위해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성과측정 및 효과분석연구(김문
길 외, 2018)’가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이 기존의 취·창업 관련 성
취를 벗어나 일상생활 지원, 심리정서 지원, 사회참여 역량 강화, 직무역량 강화, 기본
스펙 지원 등 심리정서적·관계적 지원을 포함한 다차원적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
며 논리모델에 따른 효과성 평가지표를 설정하였다. 이 연구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의
핵심성과로 사회적 자본, 개인의 심리·정서적 안정, 진로역량, 경제적 부담 완화를 제

시하며, 청년활동지원금의 정량적·정성적 성과지표와 청년활력프로그램의 정량적·정성적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청년활동지원금의 성과로 대상자 설정의 포괄성, 표적화율, 소득격차해소율, 경제적 안정감의 차원에서 청년수당의 제도설계를 평가했고, 청년활력프로그램의 효과로는 심리정서적 변화를 주요 성과로 하여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자체개발한 심리검사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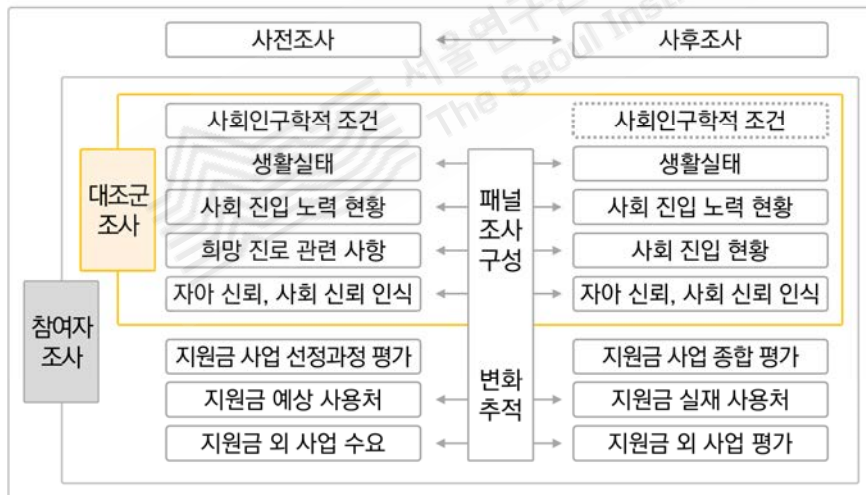
[표 2-6] 2017년 성과측정 및 효과연구에서 도출된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성과지표

구분	성과개념 및 측정	
핵심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자본: 사회적 관계 형성과 신뢰 • 개인의 심리·정서적 안정 • 진로역량: 구직의욕과 진로탐색 • 경제적 부담 완화 	
청년활동지원금 성과	정량	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성 • 표적화율 • 소득격차해소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안정감
청년활력 프로그램 성과	정량	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정서적 특성과 활동욕구 • 청년의 부양부담과 활동 욕구 • 활동지원금 사용의 유연화와 지출행위의 특성 • 부양부담과 심리정서 및 구직진로 건강성 • 심리유형별 신뢰감의 변화 • 활력프로그램의 참여와 신뢰도 • 활력프로그램의 참여와 인식의 변화 • 진로구직 의지의 변화 • 활력프로그램 참여별 구직가능성 인식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정서적 안정 • 사회적 자본형성 • 진로역량 향상

이전 조사가 참여자의 정책 수요와 만족도를 파악하고 앞으로 정책운영의 방향 설정을 위한 개선점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201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청년수당의 정책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2018년 연구는 청년수당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업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에 사전·사후조사를 실시하는 패널설문디자인을 채택하여 사업참여 전후의 아르바이트 경험, 자아인식, 사회인식의 변화를 살펴보고 포커스그룹 면접조사(FGI)를 통해 참여자의 정책수요·정책평가·사회인식에 대한 해석을 보완하였다. 또한, 2018년 연구에서는 2017년 청년활동지원사업참여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병행하여, 사업에 대한 추가적 평가와 전년도 응답자의 사회활동 상황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2017년 참여자의 40.8%가 취·창업을 했고, 사회신뢰와 정부정책에 대한 관심의 효과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밝혔다.

2019년 청년활동지원사업참여자 분석연구는 최초로 참여군과 대조군을 설정하여 ‘청년수당’이라는 정책적 개입 외에 참여자와 대조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에 따른 변화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참여자의 사업참여 전·후 변화 분석과 ② 사업참여자와 대조군을 비교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참여자의 변화로는 아르바이트 경험, 진로상태, 자아인식, 사회신뢰 등을 살펴보았고, 참여군과 대조군의 삶의 질, 자아인식·사회신뢰, 시간활용, 구직활동 상황을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참여자를 대상으로 선정과정 평가, 지원금 예상 사용처, 지원금 외 사업 수요 등을 조사하였다. 주요결과로 청년수당 참여자의 경우 청년수당을 받은 이후로 경제적 수입을 위한 아르바이트 시간이 감소했고, 특히 자아인식·사회신뢰와 같은 인식적 차원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참여자와 대조군의 비교분석 결과에서는 참여자가 대조군보다 사회신뢰, 삶의 질, 자아인식과 사회인식에 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고 구직활동에 더 적극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 2019년 연구의 조사 설계

2019년 연구 역시 2018년 조사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시행하여 전년도 참여자의 취·창업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평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18년 청년수당 사업 종료 이후 2019년 46.3%가 취·창업을 했고, 1년 전보다 진로를 구체화한 비율이 높아졌으며 서울시 정책에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및 정부 구직활동지원금의 정책효과 분석 연구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⁴⁾

경기도는 2019년 4월부터 만 24세 청년 개인에게 분기당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조례」 제10조의, “도지자는 매년 대상자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대한 평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2019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⁵⁾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한 4월 1일을 기점으로 사전과 사후 약 4~5개월의 변화를 분석하였다.⁶⁾ 효과성을 위해 사업참여자와 비교집단을 설정하여 사전·사후 결과를 비교하였다. 참여집단은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신청한 후 사전조사에 응답한 청년(만 24세) 63,300명과 사전조사 응답자 중 사후조사에 응답한 3,687명이다. 비교집단은 경기도 이외 지역의 만 24세 청년 중 사전조사에 응답한 1,300명과 이들 중 사후조사에 응답한 900명이다. 정책효과의 분석 범주는 ① 행복, ② 건강과 식생활, ③ 인식과 태도, ④ 경제활동, ⑤ 꿈 자본으로 구성하여 해당 범주에 포함된 개별 변수들의 참여군-대조군의 차이를 독립표본 t검정으로 분석하였고, 사전-사후의 차이를 대응표본 t검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2-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 연구의 효과성 측정 문항의 구성

구분	내용
행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가치있다고 느껴지는지 정도 • 행복감과 우울감, 근심 정도
건강과 식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적 건강상태(현재 본인의 건강상태와 또래와 비교한 건강상태) • 지난 한 달 동안 느꼈던 정신적 어려움 정도 • 지난 한 달 동안 할 일이 많아 중요한 일을 잊은 정도 • 30분 이상 운동한 빈도 • 평소 건강에 좋은 식생활 노력 정도 • 과일 섭취 빈도 • 최근 1년간 식생활 형편

4) 유영성 외(2019),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 사전 및 사후조사 비교』, 경기연구원

5)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3년 이상 거주 또는 전체 합산 10년 이상 거주 만 24세 청년 대상 분기당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음.

6) 사전조사 기간은 1분기 사업 신청 후 지역화폐 수급 전으로 2019년 4월 12일~5월 20일이고, 사후조사 기간은 1분기 신청자들에게 지역화폐 지급이 마감된 시점으로 2019년 9월 16일~10월 21일임.

인식과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 법제도, 정치인, 언론에 대한 신뢰 • 성평등한 사회에 대한 의견, 성차별 문제 관심 정도 • 자기 문제에 대한 결정권, 의사결정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영향력 정도 • 복지인식, 기본소득에 관련된 의견
경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여부 • 경제활동참여상태 •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한 생각
꿈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꿈자본 관련 별도 15개 문항

출처: 유명성 외(2019)

양적분석 결과 전반적 삶의 만족도,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 인식, 행복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건강 및 식생활 관련 모든 변화가 긍정적이었다. 개인의 인식과 태도 문항에서도 복지인식과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 문항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취업자의 경우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증가하고 미취업자의 경우는 주당 구직활동시간, 직업훈련시간이 증가하는 등 노동 동기와 관련된 긍정적 효과가 있었고, 꿈자본 수준 역시 2개 문항을 제외하고 긍정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평가 및 모니터링 연구⁷⁾

이 연구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⁸⁾의 단기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지표성과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는 크게 앞선 연구와 유사하게 사업참여자와 비참여자의 구직준비활동시간, 한 달 평균 구직준비 관련 지출, 구직 관련 활동수행 여부, 구직관련 활동 수행 횟수, 아르바이트 수행 여부, 하루 평균 아르바이트 시간, 취업 관련 구직자들의 생각이나 상황 등의 상태와 성과를 비교분석하는 ‘단기성과 분석’과, 전문가 델파이를 통해 구축한 ‘장기성과 지표개발’로 구분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단기성과 분석을 위해 구직활동 횟수, 구직활동 및 취업(창업) 준비시간, 한 달 평균 생활비, 구직활동 및 취업(창업)준비 비용, 구직목표 명확성, 구직활동 준비도, 사회적 지지 등을 사업참여 전·후로 비교하였다. 또한, 위와 동일한 항목으로 참여자와 비참여자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7) 고재성 외(2019),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연구』,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8)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진입해야 받을 수 있었던 청년구직촉진수당을 확대·개선한 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8세~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에게 월 50만 원 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며, 지원금 수급 도중 취업한 경우 3개월 근속하면 추가로 취업성공금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음(고재성 외, 2019).

특히 이 연구는 사전·사후 조사와 FGI 분석결과와 기존의 유사사업의 다양한 성과지표를 검토하여 1차 성과지표를 도출하고 지표의 타당성을 전문가 델파이를 통해 재검토·확정하여 총 21개로 구성된 측정 가능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성과지표(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장기성과 지표개발에서 제시된 지표 안은 제도 운영에 따라 단기간 내 발생 또는 측정 가능한 ‘사업운영 결과(Output)’ 영역과 장기적 성과인 ‘사업효과(Outcome)’의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영역별 세부지표는 [표 2-8]과 같다.

[표 2-8]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성과지표 최종(안)

구분	소영역	지표
I. 사업운영 결과 (Output)	1. 참여자 만족도	신청단계에서 제도 안내에 대한 만족도
		구직활동 관리에 대한 만족도
		고용서비스 내용(고용센터의 도움 정도)
		참여 전 기대 대비 제도의 도움 정도
		온라인 관리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2. 참여자 관리	고용서비스 참여율
		중도탈락률
	3. 구직활동 개선	구직활동비용 부담 완화
		구직준비도
		구직활동 횟수
	4. 단기 취창업 효과	단기 취창업률
		취업성공금 지급률
II. 사업효과 (Outcome)	1. 고용 효과	취창업률
		취창업 소요기간
		고용유지율
		상용직(정규직) 취업률
		임금수준
	2. 사회적 자본	삶의 질 인식
		청년정책 인지도
		청년 정책 신뢰도
		사회적지지 인식

출처: 고재성 외(2019)

03

청년활동지원사업 정책효과 분석 I : 사전-사후조사 비교

1_조사개요

2_응답자 현황

3_참여자와 대조군의 사전-사후비교 분석 결과

4_수당외 프로그램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특성 비교

03. 청년활동지원사업 정책효과 분석 | : 사전-사후조사 비교

1_조사개요

1) 조사설계

(1) 조사대상

2020년 1차 서울시 청년수당의 신청접수는 2020년 3월 30일~4월 6일 총 8일간 서울청년포털에서 진행되었고, 신청 완료자 총 26,780명을 대상으로 서울거주 여부, 건강보험료, 최종학력, 중복사업·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의 자격을 확인하여 총 22,057명을 예비선정 하였다. 이 중 청년수당 전용계좌 개설, 오리엔테이션 참여 등 필수 이행 사항을 완료한 21,917명에게 2020년 5월 25일 첫 번째 수당이 지급되었다.

조사는 기본적으로 수당 참여 이전의 사전조사와 수당 지급 이후의 사후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사전조사 응답자에 한해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21,917명의 1차 청년수당 참여자 중 사전조사에 응답한 사람은 15,584명(70.7%)이고, 이들 중 사후조사까지 응답을 완료한 사람은 11,853(53.7%)명이다.

이 연구는 청년수당 수급집단이 주된 분석의 대상이나 효과성 검증을 위해 대조군에 대한 표본조사가 필요하다. 대표성 있는 대조군 선정을 위해서는 청년수당 참여자의 모집단과 유사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청년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비수급 집단의 표집이 필요하다.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의 자격 조건은 서울시 거주 만 19세~34세 최종학력 졸업 2년 초과와 기준중위소득 150% 미만의 집단으로 실제 정책대상이 되는 전체 모집단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약 2만 2천여 명에 달하는 청년수당 예비선정자를 전체 모집단으로 간주하고 예비선정자의 성별, 연령, 학력 분포에 따라 청년수당 참여자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비수급집단 대조군을 선정하였다.

대조군은 조사 전문기관의 웹 서베이 표본에서 표집하였다. 대조군의 확보의 어려움은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대조군 선정기준인 ① 만 19~34세 서울 거주 ② 졸업 후 2년경과 미취업자·단기취업자 ③ 가구소득이 4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미만 ④ 현재 정부 사업 및 과거 청년수당 미참여자를 모두 만족하는 표본을 표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표 3-1] 대조군 선정기준

대조군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거주 만 19세~34세 • 최종학교 졸업 기준 2년 이상 초과자(대학 재학생·휴학생 제외) • 소득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 • 중위소득 150% 미만(건강보험료 월부과액 지역가입자 254,909원, 직장가입자 237,652원) • 조사시점 현재 타 정부관련사업 지원금 미참여자 및 과거 서울시 청년수당 미참여자

이 연구는 대조군 유효표본 1,000명을 목표로 대조군 확보를 위해 참여군에 비해 조사 시점을 연장하여 대조군 조사를 시행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대조군의 성별 대표성을 일부 상실하더라도 당초 목표인 유효표본 1천 명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 결과 사전조사 응답자 1,416명, 사전·사후 모두 응답자 1,084명의 응답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한편, 대조군의 2차 조사를 실시하는 도중 예상치 못한 이슈가 있었다. 2020년 5월 사전조사 시행 이후 대조군의 일부가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2차 청년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전체 1,084명의 약 8%에 해당하는 89명이 2차 청년수당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대조군의 최종 분석대상은 조사 기간 중 2차 청년수당 참여자 89명을 제외한 총 995명으로 한정되었다.

(2)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이 연구는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과 수당 외 프로그램)의 정책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참여자와 동일 조건의 비참여자를 대상으로 청년수당 지급 이전의 사전조사와 사전조사 경과 6개월 이후(청년수당 지급 완료 이후) 사후조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2020년 1차 청년수당은 첫 지급일은 2020년 5월 25일, 마지막 지급일은 10월 23일이다. 참여자의 사전조사는 첫 번째 수당지급 직전인 2020년 5월 21부터 6월 8일에

걸쳐 진행되었고, 사후조사는 사전조사 응답자를 대상으로 사업 종료 이후인 2020년 11월 11일에서 11월 27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정책개입(청년수당 지급) 이전과 이후의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전조사는 참여자에게 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지기 전인 2020년 5월 25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했으나, 충분한 표본확보를 위해 1차 지급 이후까지 설문을 연장하여 실시하였다. 이에 사전조사 시점에서 일부 집단에게 정책에 대한 기대효과와 더불어 실제 금전 지원에 대한 정책효과가 이미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일부 참여자의 경우 사전조사 시작시점에 청년수당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있거나 일부는 기수령함으로써 이미 정책개입의 영향을 받아 대조군과 체계적인 응답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에 연구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⁹⁾ 대조군 사전조사는 충분한 응답 확보를 위해 2020년 5월 25일 ~ 6월 15일까지 실시하였다. 청년수당 사업 종료 이후 정책효과 측정을 위해 사전조사와 동일한 설문 문항으로 사후조사가 실시되었다. 사후조사 시점은 2020년 1차 청년수당 최종 지급일인 10월 23일 이후로 2020년 11월 12일~12월 4일에 걸쳐 실시 되었다.

[표 3-2] 사전·사후 조사시기 및 표본

구분		조사시기	응답자/전체(명)	응답율
참여자 집단	사전조사	2020년 5월 21일 ~ 6월 8일	15,584/22,057	70.7%
	사후조사	2020년 11월 11일 ~ 11월 27일	11,853/22,057	53.6%
대조군 집단	사전조사	2020년 5월 25일 ~ 6월 15일	1,416	-
	사후조사	2020년 11월 12일 ~ 12월 4일	995/1,416	70.3%

(3) 문항 설계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웹·모바일 병행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문항은 기존 설문문항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사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이전 연도 조사와 비교가 가능하되, 2020년 참여자들의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청년활동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문항으로 재구조화하였다. 특히, 구조화된

9) 1차 조사 전체 응답자 15,584명의 조사 참여 일자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42.2%에 달하는 6,622명이 2월 25일 이전에 응답하였고, 18.3%(2,853명)가 5월 25일 당일, 39.2%(6,109명)가 5월 25일 이후에 응답하였음. 1차 청년수당은 5월 25일 늦은 오후부터 지급되기 시작하였으므로 전체 참여군 응답자의 약 절반가량이 수당 지급 이전에 조사 응답을 완료한 것으로 예상됨.

척도로 설문문항을 대체하고 척도의 구성을 통일하여 타 조사와 비교분석이 가능하고 응답자의 응답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

기존의 청년정책은 취업과 노동시장 진입 지원이나 취·창업 여부를 중요한 성과지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진로역량 강화, 구직 관련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미취업의 장기화로 인한 자존감 감소 등의 심리·정서적 지원,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을 주요한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정책 효과를 ① 활동실태, ② 건강과 기본생활, ③ 인식으로 구분하고, ‘활동실태’의 경우 구직준비도, 4주 이내 주된 활동, 소득활동, 시간사용을, ‘건강과 기본생활’은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감, 결핍을, ‘인식’은 사회실패, 사회적 지지와 자아실패, 공정성 인식을 분석하였다.

참여자 조사를 기본틀로 하여 정책효과 검증이 필요한 문항을 중심으로 대조군 조사 문항을 구성하였고 지원사업 선정과정 평가, 수당 및 수당 외 프로그램 참여경험 등 청년수당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문항을 제외하고는 참여자와 대조군의 사전 조사와 사후조사 문항을 동일하게 구성하여 두 집단 간 비교가 가능하게 설문을 구축하였다.

[표 3-3] 설문문항의 구성

구분	사전조사	사후조사
참여군 ·대조군 공동문항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학력, 연령, 장애, 과거 일 경험, 과거 유사 지원사업 참여 여부, 가구특성, 주거, 소득, 지출 등)	-
	활동실태 (구직준비도, 4주 이내 주된 활동, 소득활동 경험, 시간사용 등)	활동실태 (구직준비도, 4주 이내 주된 활동, 소득활동 경험, 시간사용 등)
	건강과 기본생활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결핍)	건강과 기본생활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결핍)
	인식 (사회실패, 사회적 지지와 자아실패, 공정성 인식)	인식 (사회실패, 사회적 지지와 자아실패, 공정성 인식)
	-	서울시 청년정책 수요
참여군	지원사업 선정과정 평가	수당 및 수당 외 프로그램 참여경험
대조군	-	2차 청년수당 신청 여부

2_응답자 현황

1) 모집단과 표본의 특성

(1) 모집단과 표본의 분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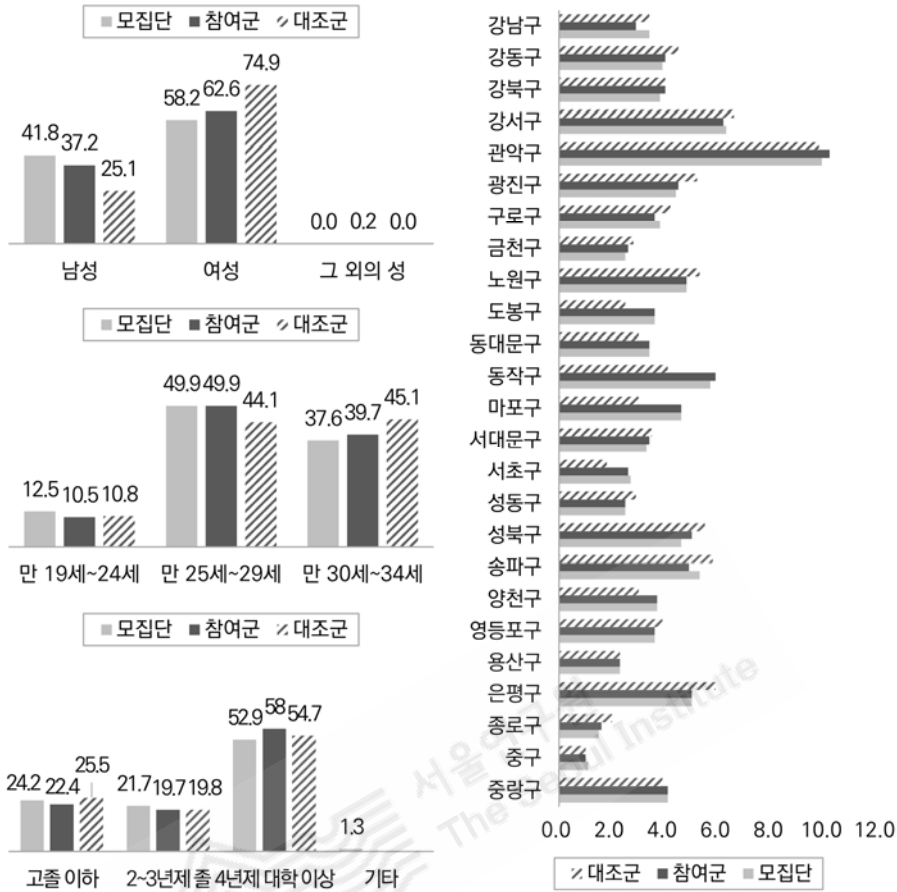
이 연구는 1차 청년수당의 예비선정자를 모집단으로 하여 대조군을 설정하였다. 분석에 앞서 모집단과 참여군, 대조군의 성별·학력·연령·지역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여자(n=11,853)의 경우 성별·연령·학력에서 모집단과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학력의 경우 여성, 4년제 대상 이상 비율이 모집단의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경향과 유사하다. 지역의 경우 동작구, 마포구에서 상대적으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 표본의 지역별 할당이 적절히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대조군(n=995)의 경우 1차 조사 당시 모집단의 성별, 연령, 학력 쿼터에 맞추어 표집하였으나 대조군 남성 표본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최종 분석에 포함된 집단에서는 여성의 응답 비율이 74.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대조군 여성의 과대표집을 보정하기 위해 추후 분석에서는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통계상 처리의 어려움으로 참여자 설문 당시 성별에서 ‘남·녀 이외의 성’이라고 답한 응답(참여자 조사 n=22)을 제외하였다. 따라서 이후 가중치가 적용된 결과분석에 활용된 사례 수는 참여자 11,831명, 대조군 955명이다.

[표 3-4] 모집단·참여군·대조군의 분포

(단위: 명, %)

구분		모집단	참여군	대조군
성별	남성	41.8	37.2	25.1
	여성	58.2	62.6	74.9
	그 외의 성	0.0	0.2	0.0
연령	만 19세~24세	12.5	10.5	10.8
	만 25세~29세	49.9	49.9	44.1
	만 30세~34세	37.6	39.7	45.1
학력	고졸 이하	24.2	22.4	25.5
	2~3년제 졸	21.7	19.7	19.8
	4년제 대학 이상	52.9	58.0	54.7
	기타	1.3	0.0	0.0
거주지역	중랑구	4.1	4.1	3.9
	중구	1.1	1.0	1.0
	종로구	1.5	1.6	2.0
	은평구	5.0	5.0	5.9
	용산구	2.3	2.3	2.3
	영등포구	3.6	3.6	3.9
	양천구	3.7	3.7	3.0
	송파구	5.3	4.9	5.8
	성북구	4.6	5.0	5.5
	성동구	2.5	2.5	2.9
	서초구	2.7	2.6	1.8
	서대문구	3.3	3.4	3.5
	마포구	4.6	4.6	3.0
	동작구	5.7	5.9	4.1
	동대문구	3.4	3.4	3.0
	도봉구	3.6	3.6	2.5
	노원구	4.8	4.8	5.3
	금천구	2.5	2.6	2.8
	구로구	3.8	3.6	4.2
	광진구	4.4	4.5	5.2
	관악구	9.9	10.2	9.8
	강서구	6.3	6.2	6.6
	강북구	3.8	4.0	4.0
	강동구	3.9	4.0	4.5
	강남구	3.4	2.9	3.4



[그림 3-1] 모집단·참여군·대조군의 분포

(2) 가중치 부여

조사의 모집단은 서울시 거주하고 있는 만 19~34세 청년 중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신청한 예비선정자 22,057명이다.

[표 3-5] 모집단의 특성

(단위: 명, %)

구분	남성				여성				총계
	19~24세	25~29세	30~34세	소계	19~24세	25~29세	30~34세	소계	
모집단	1,156	4,062	4,012	9,230	1,556	6,917	4,354	12,827	22,057
참여자	426	1,914	2,074	4,414	806	3,988	2,623	7,417	11,831
대조군	31	101	108	240	72	320	323	715	955

가중치는 기본 설계 변수(성별, 연령대별)에 대한 설계 가중치를 활용하여 산출하였고, 최종 응답 사례 수(참여자 집단 $n=11,831$, 대조군 집단 $n=955$)를 기반으로 최종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산출절차는 다음과 같다.

최종 가중치 = 설계 가중치 × 사후층화 가중치

이 조사에서 각종 모평균 추정을 위해서 사용된 가중치를 이용한 추정량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bar{y} = \frac{\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 \frac{\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w_{...}}$$

- L 는 층 수, n_h 는 층 h 의 표본 수
- m_{hi} 는 층 h 의 i 표본 내에서 조사된 응답자 수
- w_{hij} 는 각 조사 대상자에 부여된 가중치
- y_{hij} 는 각 조사 대상자의 변수값
- $w_{...} = \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은 조사 대상자에 대한 가중값의 합을 뜻함

여기서, w_{hij} 는 각 응답자에 부여된 가중치이고, y_{hij} 는 각 응답자로부터의 응답결과로 모비율 추정인 경우는 특정 속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다. L 은 층의 수, n_h 는 층 h 에서의 표본추출단위인 만 19세~34세 표본 수, m_{hi} 는 층 h 내 i 번째 표본 내에서 응답자 수를 의미한다.

$w_{...} = \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은 전체 응답자에 대한 가중값의 합계이다.

앞서 제시한 모평균 추정량에 대한 추정분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text{var}(\bar{y}) = \sum_{h=1}^L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 - \bar{e}_{h..})^2$$

여기서, L 은 층의 수, n_h 는 층 h 에서의 표본추출단위인 만19세~34세 표본 수, m_{hi} 는 층 h 내 i 번째 응답자 수이다.

$$f_h = n_h / N_h, \quad e_{hi} = \left(\sum_{j=1}^{m_{hi}} w_{hij} (y_{hij} - \hat{p}) \right) / w_{\dots}, \quad \bar{e}_{h..} = \left(\sum_{i=1}^{n_h} e_{hi} \right) / n_h$$

모비율 추정에 대한 표본오차와 95% 신뢰수준 오차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s.e(\bar{y}) = \sqrt{var(\bar{y})}, \quad \text{오차의 한계} = 1.96 \times \sqrt{var(\bar{y})}$$

이후 분석은 통계의 안정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사전-사후조사 모두 참여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모집단 분포(성별, 연령대별)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한 이후 분석하였다. 사례 수는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조사 완료된 표본 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응답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로 작성하였다.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사전조사 응답을 기준으로 분석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분석은 2020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의 인구학적 요인과 개인특성을 파악하고, 추후 참여군과 대조군의 정책효과 분석에 앞서 두 집단의 동질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이에 성별, 학력, 연령과 같은 기본적인 인구 사회학적 변수와 더불어 부모로부터 독립여부, 노동시장 참여경험, 개인의 가구경제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변수를 중심으로 참여군과 대조군의 사전조사 응답을 비교하였다. 더불어 청년수당 참여자와 대조군의 개별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참여자의 청년수당 참여경험과 대조군의 청년수당 미참여 사유, 그리고 청년수당 이외의 공적지원 수급 경험을 살펴보았다.

[표 3-6]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 개요

구분	분석 변수
인구사회학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연령, 최종학력, 거주지역 • 최종학력 졸업 후 경과 기간
가구특성과 부모로부터 지원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특성: 혼인상태, 가구원 수,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독립 시기, 부모로부터 독립사유 •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여부
노동시장 참여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소득활동 여부 •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과거 일 경험과 일자리를 가지지 않은 이유
경제적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소득 • 가구소득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 재산 • 대출과 저축 • 지출과 지출항목
참여군의 청년수당 참여경험과 대조군의 제도 미참여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의 청년수당 수급 경험 • 6개월 미만 참여자의 사업 중단 사유 • 대조군의 청년수당 미신청 사유 • 청년수당 외 공적 지원 수급 경험

주: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구특성과 부모로부터 지원 여부', '노동시장 참여 경험', '경제적 상황'은 사전조사 응답을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참여군의 청년수당 참여경험과 대조군의 미참여 사유'는 사후조사 응답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에 포함된 참여군 총 11,831명과 대조군 955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7]에서는 참여군과 대조군의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가중 전과 가중 후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가중 전 성별의 경우 참여군이 62.7%, 대조군이 74.9%로 두 집단 모두 여성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고, 대조군의 여성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분포의 경우, 만 19~24세의 응답 비율은 참여군과 대조군 모두 10% 수준으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참여군에서 만 25~29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대조군에서 만 30~34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즉 대조군의 경우 30대 여성의 비율이 참여군보다 높게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계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가용한 신청자 자료를 기준으로 참여군과 대조군의 성별, 연령 차이를 보정 하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가중 이후 참여군과 대조군의 성별과 연령 분포는 신청자와 동일한 비율로 조정되었으나, 최종학력, 거주지역, 혼인상태, 가구원 수 등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를 모두 동일하게 보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추후 4장의 정책효과성 분석에서 청년수당의 인과적 정책효과를 살펴보는 이중차이

추정(difference-in-difference estimation)을 위해서는 참여자 집단과 유사한 속성을 가진 대조군을 적절하게 구성하는 것이 핵심적이다. 하지만 실험집단과 동질적인 특성을 가진 대조군을 설정하는 것은 사회실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엄밀한 방법의 정책효과 추정을 위해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무작위로 할당하고 실험집단에만 정책을 시행한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전후 차이를 다시 비교하여 추정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이다(구인회 외, 2010). 이 연구에서 참여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확보를 위해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참여자의 '선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신청단계에서부터 실험군과 대조군이 표집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연구의 경우 2020년 1차 청년수당 참여자가 확정된 이후 참여자 정보를 받아 조사를 실시하였기에 조사설계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차선으로 앞서 조사설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년수당의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수당 비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조군을 표집하였지만, 충분한 사례 수를 확보하면서 참여자와 동질적인 속성을 지닌 대조군을 표집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4장에서는 청년수당 참여 여부와 성과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참여자 집단과 대조군의 초기 특성 차이로 인한 분석결과의 편의를 일부 보정하였다.

이후의 기술통계 결과는 모두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값으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하였다¹⁰⁾. 가중 후 값을 기준으로 성별·연령 이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0년 청년수당 참여자의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 이상'이 56%로 가장 높았으며, 대조군보다 '4년제 대학 이상'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거주권역은 참여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관악구(10.2%)'와 '강서구(6.2%)'가 포함된 서남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의 분포는 참여군과 대조군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혼인상태의 경우 참여자와 대조군 모두 미혼자의 비율이 높았다. 한편, 참여군의 기혼 비율은 6%인데 비해, 대조군의 기혼 비율은 16%로 대조군에서 기혼자의 비율이 더 높았고 이와 유사한 결과로, 참여군이 대조군에 비해 1인 가구의 비율이 높고(31%), 2인 이상 가구의 비율이 낮게(69%) 나타났다.

10) 사례 수(빈도)는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실제 조사된 표본 수를 작성하였으며, 응답비율은 모집단의 비율을 반영하여 가중치를 적용한 값으로 작성하였음.

[표 3-7] 참여군과 대조군의 특성(사전조사 기준)

(단위: %)

구분		가중 전			가중 후		
		참여군	대조군	차이 검정	참여군	대조군	차이 검정
성별	남성	37.3	25.1	56.61***	41.8	41.8	0.00
	여성	62.7	74.9		58.2	58.2	
연령	만 19~24세	10.4	10.8	12.63***	12.3	12.3	0.00
	만 25~29세	49.9	44.1		49.8	49.8	
	만 30~34세	39.7	45.1		37.9	37.9	
최종 학력	고졸 이하	22.3	25.6	5.72*	24.4	29.9	174.06***
	2~3년제 전문대	19.7	19.8		19.5	18.3	
	4년제 대학 이상	58.0	54.7		56.1	51.8	
거주 지역	도심권	4.8	5.3	1.91	4.8	5.6	19.95**
	동북권	31.9	32.5		32.0	31.7	
	서북권	13.0	12.4		13.1	12.8	
	서남권	35.8	34.5		35.7	34.9	
	동남권	14.4	15.4		14.4	15.1	
혼인 상태	미혼	93.6	77.9	332.22***	94.0	84.3	1107.45** *
	기혼이며 배우자가 있음	6.0	21.8		5.6	15.3	
	기혼이나 배우자가 없음 (이혼, 별거, 사별 등)	0.4	0.3		0.4	0.4	
가구원 수	1인	30.9	17.5	84.81***	30.9	18.4	979.27***
	2인	19.9	21.2		19.6	20.3	
	3인	20.5	27.6		20.6	25.8	
	4인	22.6	27.5		22.9	28.9	
	5인 이상	6.0	6.2		6.1	6.6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51.8	38.7	90.94***	51.8	40.7	752.52***
	200~300만 원 미만	19.6	18.5		19.6	19.2	
	300~400만 원 미만	13.7	19.0		13.7	17.3	
	400~500만 원 미만	7.5	11.9		7.5	10.7	
	500만 원 이상	7.5	11.8		7.4	12.0	

주 1) *p<0.1, ** p<0.05, ***p<0.01

2) 차이검정은 연속변수에 대해서는 t 검정을, 명목변수에 대해서는 χ^2 검정을 실시함

(2) 가구 특성과 부모로부터 지원 여부

① 가구 특성¹¹⁾

2020년 청년수당 참여자의 48%가량은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별도 가구로 생활’하고 있었으며,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분가 사유로는 ‘학업·취업·취업 및 시험준비’의 응답이 7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대조군 경우 부모로부터 분가 비율이 41% 수준이고, 분가 사유에서 ‘결혼 후 분가’의 응답 비율이 2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참여자에 비해 기혼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3-8] 부모 동거 여부

(단위: %)

구분		참여군(n=11,831)	대조군(n=955)
부모 동거여부	부모와 동거	52.2	58.9
	별도 가구	47.8	41.1
부모로부터 독립한 시기 (평균)		6.2년	5.7년
부모님 댁에서 처음 독립하게 된 이유	학업	36.4	28.2
	취업	25.3	16.2
	결혼 후 분가	6.8	26.2
	부모와의 불화	3.6	8.4
	그냥 독립하고 싶어서	8.0	11.0
	취업 및 시험준비	15.5	8.1
	안 계심(사망)	1.0	1.3
	기타	3.6	0.6

주: 부모로부터 독립시기와 처음 독립하게 된 이유는 부모와 별도로 살고있는 경우(참여자, 5,735명, 대조군, 443명)에 한함

11) 이후의 결과는 모두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되었음.

②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여부

부모로부터의 도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용돈, 주거비, 교육비,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을 받는지 살펴보았다. 참여자의 36%, 대조군의 40%가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가구특성의 차이에 비해 두 집단의 분포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3-9]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 여부

(단위: %)

구분	참여군(n=11,831)	대조군(n=955)
받고 있음	35.5	39.7
받지 않음	64.5	60.3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여부’를 앞서 [표 3-8]에서 살펴본 ‘부모와의 동거 여부’와 교차하여 살펴보면 [표 3-10]과 같다. 2020 청년수당 참여자 11,831명 중 3,765명에 해당하는 32%의 청년이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서는 대조군이 참여군에 비해 기혼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부모로부터 경제적·물리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는 청년의 비율은 두 집단이 유사했고, 참여군(32%)이 대조군(27%)보다 다소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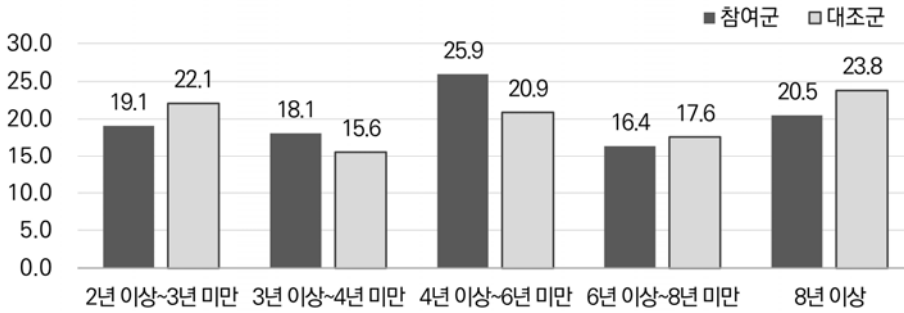
[표 3-10]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독립 여부

(단위: %, 명)

참여군		부모와 동거 여부			대조군		부모와 동거 여부		
		부모 동거	별도 가구	사례수			부모 동거	별도 가구	사례수
부모의 경제적 지원	받고 있음	19.6%	16.0%	4,194	부모의 경제적 지원	받고 있음	25.6%	14.1%	369
	받지 않음	32.6%	31.8%	7,637		받지 않음	33.3%	27.0%	586
	사례수	6,096	5,735	11,831 (100%)		사례수	512	443	955 (100%)

(3) 노동시장 참여경험

청년수당은 최종학력 졸업(중퇴·자퇴·제적) 이후 2년 넘은 청년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다. 참여자와 대조군의 최종학력 졸업 이후 경과 기간을 분석한 결과, 참여자의 경우 4년 이상~6년 미만의 응답이 26%로 가장 높았고, 대조군의 경우 8년 이상의 응답이 24%로 가장 높았다.



[그림 3-2] 최종학교 졸업 후 경과 기간

[표 3-11] 최종학력 졸업 후 경과 기간

(단위: %)

구분	참여군(n=11,831)	대조군(n=955)
2년 이상~3년 미만	19.1	22.1
3년 이상~4년 미만	18.1	15.6
4년 이상~6년 미만	25.9	20.9
6년 이상~8년 미만	16.4	17.6
8년 이상	20.5	23.8

청년수당의 주된 정책대상은 미취업 청년이나,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의 경우 근로활동을 하면서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주 1시간 이상 소득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참여군의 '일을 하고 있다' 응답은 21.7%, 대조군은 29.2%로 대조군의 소득활동 참여율이 더 높았다.

[표 3-12] 현재 소득활동 여부

(단위: %)

구분		참여군(n=11,831)	대조군(n=955)
하고 있다	빈도	2,569	266
	%	21.7	29.2
하고 있지 않다	빈도	9,262	689
	%	78.3	70.8

주: 설문지 조건 논리에 따라 이후 응답의 경로가 달라질 경우, 별도로 빈도를 표기하였음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과거 일자리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였다. 청년수당 참여자의 91%, 대조군의 86%가 과거 취업, 아르바이트, 창업·자영업, 직업으로서의 창작활동, 프리랜서 등의 근로 경험이 있었다. 최근 일자리에선 받은 월급은 140만 원대였으며 최근 일자리를 그만둔 이후 미취업기간은 참여군과 대조군 각각 2.5년, 2.7년으로 비슷했다.¹²⁾ 한편,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청년수당을 받기 이전에도 취업, 아르바이트, 창업·자영업, 직업으로서의 창작활동, 프리랜서 등의 근로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는 참여군 885명(전체 11,831명의 7.5%), 대조군 88명(전체 955명의 9.2%)이다. 즉, 참여군과 대조군의 약 8~9%가 최종학교 졸업 이후 한 번도 노동시장에 참여해 본 경험이 없었다. 근로경험이 없는 경우 일자리를 가지지 않은 이유는 참여군의 경우 ‘자격증·고시준비(36%)’, ‘무엇을 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아서(21%)’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대조군의 경우 대조군 ‘무엇을 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아서(37%)’, ‘자격증, 고시준비(17%)’ 순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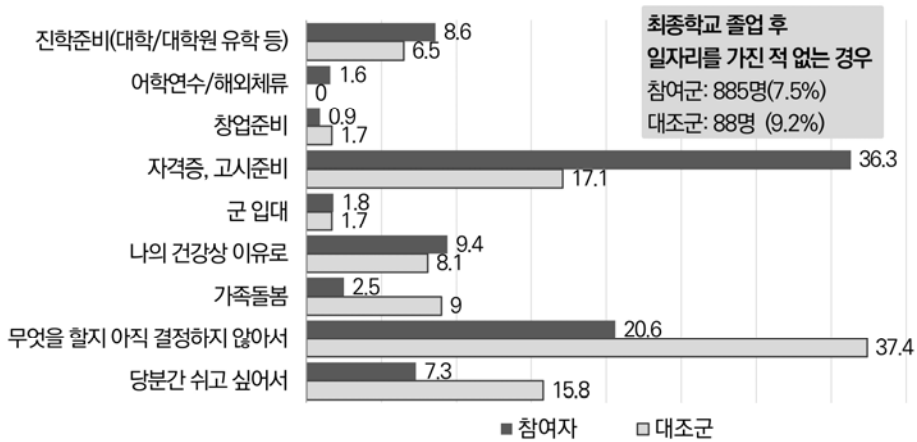
[표 3-13]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과거 일 경험

(단위: 명, %)

구분			참여군	대조군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과거 일 경험 여부	있다	빈도	8,407	601
		%	90.5	86.2
	없다	빈도	885	88
		%	9.5	13.8
과거 일 경험이 있는 경우 일자리 경험 (참여군 n=8,407, 대조군 n=601)	최근 일자리에선 받았던 월급		140.6만 원	140.8만 원
	최근 일자리를 그만둔 이후 미취업 기간		1.6년	1.9년
과거 일 경험이 없는 경우, 일자리를 가지지 않은 이유 (참여군 n=885, 대조군 n=88)	진학준비(대학/대학원 유학 등)		8.6	6.5
	어학연수/해외체류		1.6	-
	창업준비		0.9	1.7
	자격증, 고시준비		36.3	17.1
	군 입대		1.8	1.7
	나의 건강상 이유로		9.4	8.1
	가족돌봄		2.5	9.0
	무엇을 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아서		20.6	37.4
	당분간 쉬고 싶어서		7.3	15.8

주: ‘과거 일 경험 여부’는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참여군 9,262명, 대조군 689명을 대상으로 분석

12) 과거 일 경험이 있는 경우 대부분 아르바이트(참여군 39%, 대조군 48%)와 일반기업(참여군 33%, 대조군 32%) 경험이었으며 최근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는 폐업, 계약종료, 해고 등 본인의 의사가 아닌 ‘비자발적 중단(참여군 17%, 대조군 15%)’이 가장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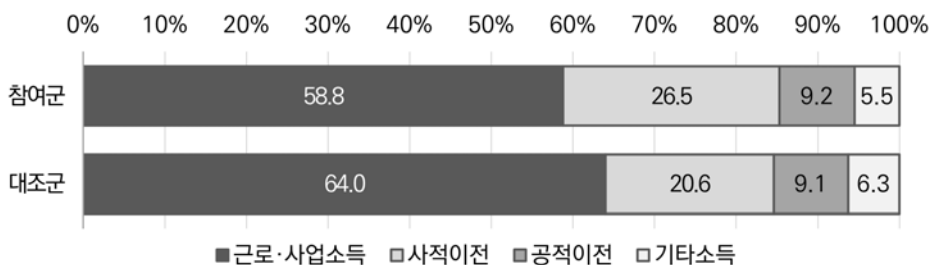


[그림 3-3] 최종학교 졸업 후 일자리를 가지지 않은 이유

(4) 경제적 상황

① 개인 소득

최근 6개월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항목별 소득액을 질문하였다. 참여자의 근로·사업 소득은 평균 42.2만 원, 사적 이전소득은 19만 원, 공적이전소득은 6.6만 원, 기타소득은 4만 원으로 전체 월평균 소득은 약 72만 원 수준이다. 대조군의 경우 전체 월평균 소득이 104만 원으로 참여군에 비해 약 30만 원가량 높았다. 전체 소득의 구성비는 참여군과 대조군이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참여군이 대조군보다 사적이전 소득의 비율이 높았고 대조군이 참여군에 비해 근로·사업소득 비율이 높았다. 앞선 [표 3-12]의 결과와 함께 살펴보면 대조군이 참여군에 비해 현재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고 근로·사업 소득수준도 20만 원 이상 높다. 근로·사업 소득의 비율은 참여군과 대조군 모두 만 19~24세에서 가장 높고, 고졸 이하에서 가장 높았다.



[그림 3-4] 개인 월평균 소득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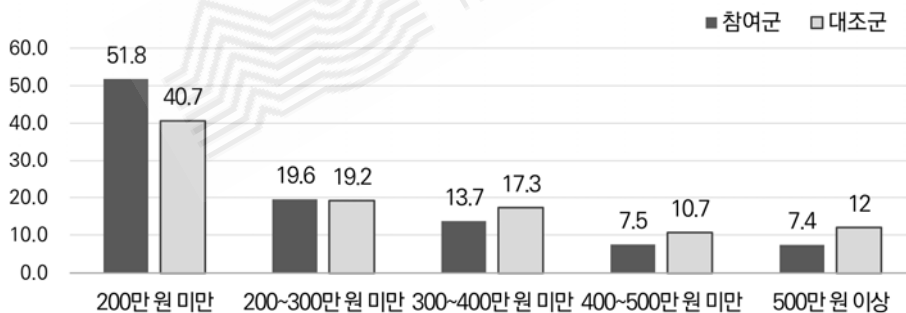
[표 3-14] 개인 월평균 소득액

(단위: 만 원, %)

구분	참여군(n=11,831)		대조군(n=955)	
	금액(평균)	비중(%)	금액(평균)	비중(%)
근로·사업소득	42.2	58.8	66.6	64.0
사적이전	19.0	26.5	21.4	20.6
공적이전	6.6	9.2	9.4	9.1
기타소득	4.0	5.5	6.6	6.3
소득 총계	71.7	100.0%	104.0	100.0%

② 가구 소득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생계를 함께 하는 가구’를 기준으로 응답자의 경제적 수준을 살펴보았다. 월평균 가구 소득은 응답자의 편의를 위해 급간을 나누어 질문하였다. 참여자의 경우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이 약 절반 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0~300만 원 미만 (19.6%)’, ‘300~400만 원 미만(13.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조군도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구간이 41%로 가장 높게 나타나 참여군과 대조군 모두 저소득 중·저소득 구간 응답자 비율이 높았다. 대조군의 경우 참여자군에 비해 200만 원 구간의 응답분포가 낮았고, 300만 원 이상 구간의 응답분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¹³⁾.



[그림 3-5] 가구 월평균 소득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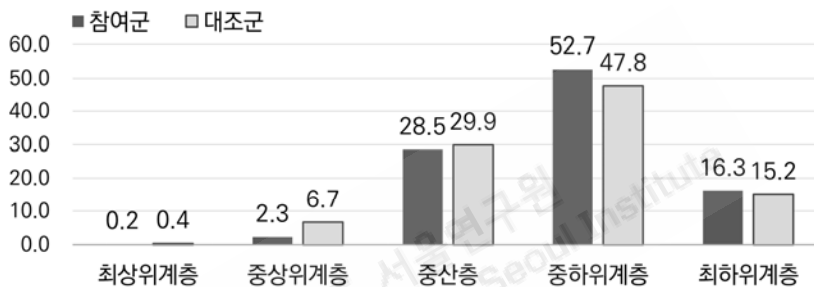
¹³⁾ 대조군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월평균 가구소득 7,125,000원 초과 집단의 경우 표집에서 제외되었으므로 7,125,000원 초과 구간의 응답은 존재하지 않음.

[표 3-15] 가구 월평균 소득 구간

(단위: %)

구분	참여군(n=11,831)	대조군(n=955)
200만 원 미만	51.8	40.7
200~300만 원 미만	19.6	19.2
300~400만 원 미만	13.7	17.3
400~500만 원 미만	7.5	10.7
500만 원 이상	7.4	12.0

부모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응답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참여군이 대조군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하위, 최하위계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림 3-6] 부모의 주관적 계층 수준

[표 3-16] 부모의 주관적 계층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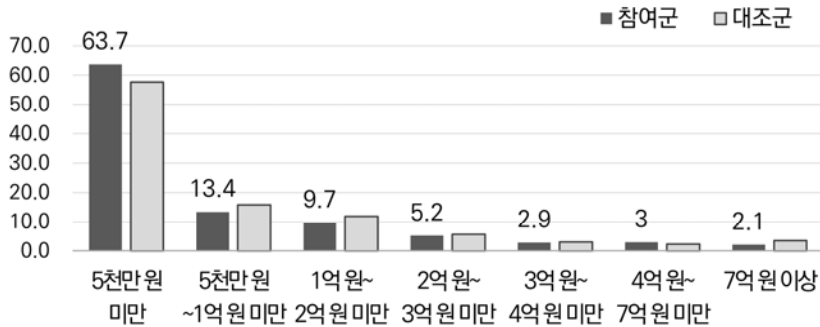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참여군(n=11,831)	대조군(n=955)
최상위계층	0.2	0.4
중상위계층	2.3	6.7
중산층	28.5	29.9
중하위계층	52.7	47.8
최하위계층	16.3	15.2

③ 재산

전체 응답자의 가구 재산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여군의 재산은 '5천만 원 미만'이 63.7%로 가장 높았고, '5천만 원~1억 원 미만(13.4%)', '1억 원~2억 원 미만(9.7%)'으로 2억 원 미만에 87%가 응답했다. 대조군의 경우 재산이 5천만 원 미

만인 집단이 58% 수준으로 나타났고, 재산 3억 원 미만에 85%가 응답하여 참여군과 대조군의 재산의 분포는 유사했다.



[그림 3-7] 가구 재산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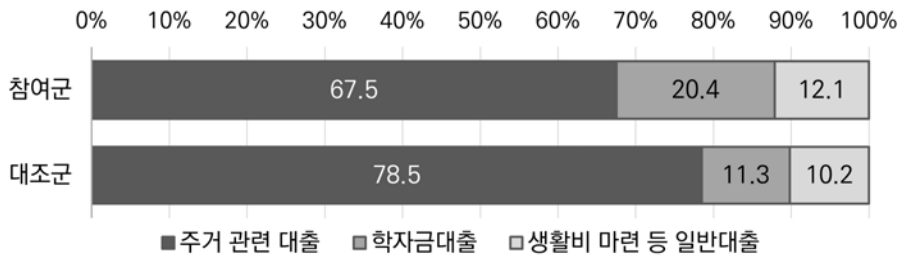
[표 3-17] 재산 현황

(단위: %)

구분	참여군(n=11,831)	대조군(n=955)
5천만 원 미만	63.7	57.7
5천만 원~1억 원 미만	13.4	15.8
1억 원~2억 원 미만	9.7	11.9
2억 원~3억 원 미만	5.2	5.7
3억 원~4억 원 미만	2.9	3.0
4억 원~7억 원 미만	3.0	2.3
7억 원 이상	2.1	3.5

④ 대출과 저축

응답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채와 저축의 총액을 설문하였다. 참여군의 '주거관련대출'은 평균 614.6만 원, '학자금대출' 185.9만 원, '생활비 마련 등 일반대출' 평균 110.2만 원이었으며 본인이 부담하는 총대출금액은 911만 원, '저축' 총액은 평균 181.9만 원으로 확인됐다. 참여군과 대조군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주거관련대출'은 참여군보다 대조군이 약간 높게 나타났고, '학자금대출'과 '생활비 마련 등 일반대출'은 참여군이 대조군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학자금 대출'에서 참여군과 대조군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참여군과 대조군 집단 모두 '주거관련대출'이 약 70%를 차지하고 금액의 크기 자체도 다른 항목보다 훨씬 크게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서울 청년의 주거비 부담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8] 대출 항목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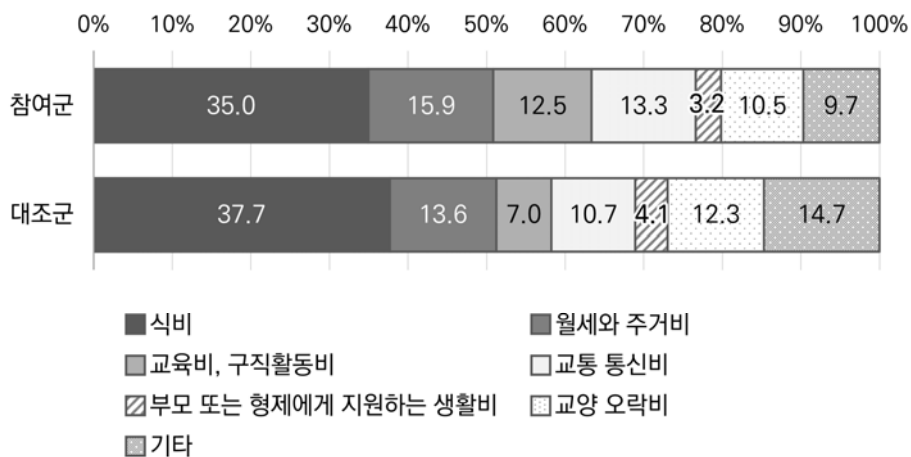
[표 3-18] 대출과 저축 현황

(단위: 만 원)

구분	참여군(n=11,831)		대조군(n=955)	
	금액(평균)	비중(%)	금액(평균)	비중(%)
주거 관련 대출	614.6	67.5	737.7	78.5
학자금대출	185.9	20.4	105.8	11.3
생활비 마련 등 일반대출	110.2	12.1	95.9	10.2
대출 총계	910.7	100.0	939.4	100.0
저축	182만 원		242만 원	

⑤ 지출과 지출항목

응답자를 대상으로 지난 6개월간 본인의 월평균 지출액을 설문하였다. 참여군의 '월평균 지출액'은 88.8만 원, 대조군의 '월평균 지출액'은 110.2만 원으로 참여군의 월평균 지출 금액이 더 적게 나타났다. 참여군의 항목별 지출액을 보면, '식비'가 31.1만 원(3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월세와 주거비' 14.1만 원(15.9%), '교통 통신비' 11.8만 원(13.3%), '교육비, 구직활동비' 11.1만 원(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조군의 항목별 지출액을 보면 '식비'가 41.6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기타' 16.2만 원, '월세와 주거비' 15만 원, '교양오락비' 13.5만 원, '교통 통신비' 11.8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군과 대조군 모두 '식비'의 지출이 가장 높았고 '식비'와 '기타'를 이외에는 월세와 주거비 지출이 높았다. 또한, 참여군은 대조군보다 '교육비, 구직활동비'의 지출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9] 지출 항목(%)

[표 3-19] 지출과 지출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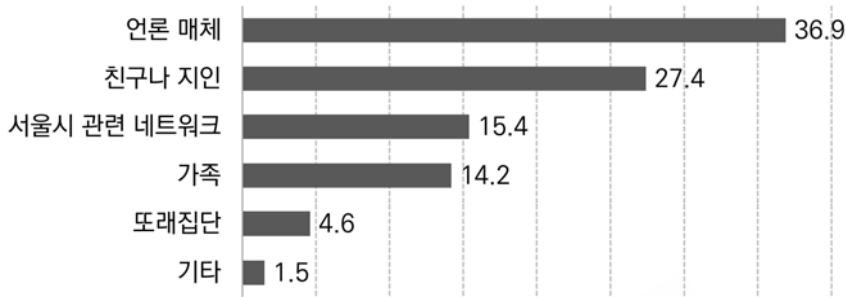
(단위: 만원)

구분	참여군(n=11,831)		대조군(n=955)	
	금액(평균)	비중(%)	금액(평균)	비중(%)
식비	31.1	35.0	41.6	37.7
월세와 주거비	14.1	15.9	15.0	13.6
교육비, 구직활동비	11.1	12.5	7.7	7.0
교통 통신비	11.8	13.3	11.8	10.7
부모 또는 형제에게 지원하는 생활비	2.8	3.2	4.5	4.1
교양 오락비	9.3	10.5	13.5	12.3
기타	8.6	9.7	16.2	14.7
지출 총계	88.8	100.0	110.2	100.0

(5) 참여자의 청년수당 참여경험과 대조군의 제도 미참여 사유

① 참여자의 청년수당 수급 경험

참여군을 대상으로 2020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습득한 경로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언론 매체(36.9%)’, ‘친구나 지인(27.4%)’, ‘서울시 관련 네트워크(15.4%)’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3-10]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정보습득 경로

[표 3-20] 참여자의 2020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정보습득 경로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언론 매체(인터넷, TV, 라디오, 종이신문 등)	4,389	36.9
가족(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친척 등)	1,630	14.2
서울시 관련 네트워크(서울시 홈페이지, 청정넷, 청년센터 등)	1,836	15.4
또래집단 네트워크(청년단체, 세미나 등 소모임)	558	4.6
친구나 지인(단체나 모임이 아닌 개인적 경로)	3,231	27.4
기타	187	1.5
합계	11,831	100.0

이어서 사후조사 문항인 참여자의 6개월간 청년수당 참여경험을 살펴보았다. 청년수당 참여자의 90%에 달하는 대부분이 6개월 동안 청년수당을 수령하였고 10.6%에 달하는 1,249명이 6개월 이전에 사업을 중단하였다.

[표 3-21] 참여자의 청년수당 참여경험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3개월 미만	577	4.88
4개월	318	2.69
5개월	354	2.99
6개월	10,582	89.44
합계	11,831	100.00

6개월 미만 사업참여자의 사업 중단 사유는 ‘취·창업’이 63.7%로 가장 높았고, ‘자기활동기록서 미제출(6.6%)’, ‘유사사업 중복참여(6%)’, ‘수당보다 더 많이 받는 아르바이트(5.7%)’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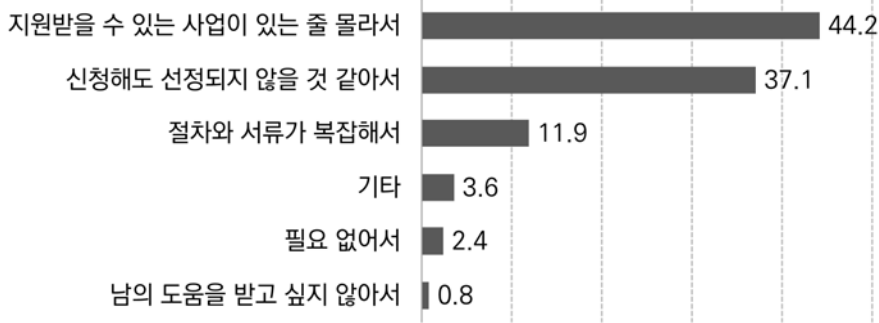
[표 3-22] 6개월 미만 참가자의 사업 중단 이유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취업	806	63.7
수당보다 더 많이 받는 아르바이트	70	5.7
창업	12	1.0
유사사업 중복참여	74	6.0
서울시 외 거주지 이전	68	5.5
자기활동기록서 미제출	79	6.6
진학	19	1.6
자진포기	44	3.6
기타	77	6.4
합계	1,249	100.0

② 대조군의 청년수당 미신청 사유

대조군을 대상으로 2020년 1차 청년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는 줄 몰라서’의 응답이 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보 부족의 사유 이외에 ‘신청해도 선정되지 않을 것 같아서(37.6%)’, ‘절차와 서류가 복잡해서(11%)’의 응답이 높게 나온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0 청년수당 사업의 경우 지원자의 사업참여를 위한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제출서류를 3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하고 신청자가 기본요건만 충족하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 원칙을 도입하여 제도를 개선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복잡한 기준과 개념으로 인한 선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절차·서류 등의 행정적 부담이 잠재적 대상자의 청년수당 신청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1] 청년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표 3-23] 대조군의 청년수당에 신청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필요 없어서	21	2.4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는 줄 몰라서	430	44.2
신청해도 선정되지 않을 것 같아서	359	37.1
남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서	6	0.8
절차와 서류가 복잡해서	106	11.9
기타	33	3.6
합계	955	100.00

③ 청년수당 이외 공적 지원 수급 경험

대조군은 청년수당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청년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점 자체에서 정책에 대한 관심도와 사회참여의 적극성, 정보 수집능력 등 개인의 관측되지 않는 정성적 측면에서 사업 참여군과 체계적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참여군과 대조군의 정책에 대한 관심도와 정책참여의 적극성을 파악하기 위해 청년수당 신청 이전의 공적 지원 경험에 대해 설문하였다.

서울시 청년수당 이전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의 공적 지원 수급 여부 문항에서 참여자의 53%, 대조군의 45%가 정책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프로그램(복수응답)에 대한 조사에서 참여자의 경우 ‘국가장학금 등의 학업 지원(2,826명)’을 받은 경험이 4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취업성공 패키지(1,861명, 29.1%)’, ‘고용보험 실업급여(1,840명, 28.8%)’ 순으로 참여경험이 높았다. 대조군의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218명, 49.3%)’ 수급 경험이 가장 높았고,

‘취업성공패키지(193명, 43.7%)’ 수급 경험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청년수당’과 유사하게 구직청년의 취업준비와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의 참여경험은 참여군 33%, 대조군 45%로 대조군에서 더 높았다.

[표 3-24] 청년수당 이전의 공적 지원 경험 1

(단위: %)

구분			참여군	대조군
이전 공적지원 경험	있다	빈도	6,394	442
		%	53.3	44.7
	없다	빈도	5,437	513
		%	46.7	55.3
이전 공적지원 경험이 있는 경우 지원 프로그램, 복수응답 (참여군 n=6,394, 대조군 n=44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9	7.7
	고용보험 실업급여		28.8	49.3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2.2	14.7
	취업성공패키지		29.1	43.7
	근로소득자 자산형성 프로그램		3.9	10.4
	국가장학금 등의 학업 지원		44.2	2.9
	기타		3.5	2.0

한편, 조사 종료 이후 기술통계 분석과정에서 ‘이전 공적지원 경험이 있는 경우 지원 프로그램’ 문항에서 ‘국가장학금 등의 학업지원’의 응답 비율이 참여군은 44.2%, 대조군은 2.9%로 크게 차이남을 발견하였다. 사후검토 결과, 조사업체의 대조군 조사 당시, 보기 ‘⑥ 국가장학금 등의 학업지원’이 누락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¹⁴⁾ 이에 대

14) 원 문항은 다음과 같음. 참여군의 경우 D2 문항이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으나, 대조군의 경우 해당 문항에서 ‘⑥ 국가장학금 등의 학업지원’이 누락 됨. [표 3-23]의 대조군 국가장학금 등의 학업지원 응답 2.9%는, ‘⑦ 기타’에서 ‘국가장학금’이라고 기입한 경우를 별도 집계한 것임.

D1. 귀하는 서울시 청년수당을 수령하기 이전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이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청년내일키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국가장학금 등)

① 있다 (D1-1로 이동) ② 없다(D2로 이동)

D2. (D1=1의 응답자만)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복수응답]

- | | |
|--------------|----------------------|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⑤ 근로소득자 자산형성 프로그램 |
| ② 고용보험 실업급여 |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채움공제 등) |
| ③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⑥ 국가장학금 등의 학업지원 |
| ④ 취업성공패키지 | ⑦ 기타 |

조군 조사에서 누락 된 ‘⑥ 국가장학금 등의 학업지원’을 제외하고,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⑤ 근로소득자 자산형성 프로그램’과 ‘⑦ 기타’ 문항에 참여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이전 공적지원경험’이 ‘있다’로 재코딩하여 분석한 결과, 참여군의 이전 공적지원 경험은 44.6%, 대조군 44.7%로 두 집단의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세부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청년구직지원금’과 ‘기타’ 사업은 참여군의 경험 비율이 더 높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서는 대조군의 참여경험 비율이 더 높았다.

[표 3-25] 청년수당 이전의 공적 지원 경험 2

(단위: %)

구분			참여군	대조군
이전 공적지원 경험	있다	빈도	4,534	442
		%	44.6	44.7
	없다	빈도	5,437	513
		%	55.4	55.3
이전 공적지원 경험이 있는 경우 지원 프로그램, 복수응답 (참여군 n=4,534, 대조군 n=44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4	7.7
	고용보험 실업급여		40.6	49.3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7.2	14.7
	취업성공패키지		41.0	43.7
	근로소득자 자산형성 프로그램		5.5	10.4
	기타		5.0	2.0

앞서 i) [표 3-20]의 참여군의 청년활동지원사업 정보 획득 경로에서, ‘언론매체’와 ‘서울시 관련 네트워크’와 같은 공적 네트워크에 의한 정보획득 비율이 52.3%로 절반 이상이었으나, ‘친구나 지인’, ‘가족’, ‘포래집단’과 같은 사적 네트워크에 의한 정보 획득 비율 역시 46.2% 수준으로 매우 높았다는 점, ii) [표 3-23]의 대조군이 청년수당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는 줄 몰라서’가 44%로 가장 높았다는 점, 마지막으로 iii) 2020년 1차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접수 기간이 2020년 3월 30일~4월 6일 총 8일로 상대적으로 짧았음을 모두 고려할 때, 참여군과 대조군 간 정책 관심도와 정책참여의 적극성은 큰 차이가 없으나 신청 기간 당시 대조군의 단순 정보 부족이 청년수당에 참여하지 않은 주요한 이유일 것으로 판단된다.

(6) 소결

청년수당의 정책효과 분석에 앞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참여군과 대조군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기준으로 두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경제적 요건을 비교하였다. 성별·연령 비율을 보정 한 가중치를 적용한 분석에서 대조군이 참여군에 비해 ‘고졸’, ‘기혼’, ‘2인 이상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본인과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양호했으며 이에 따라 가구의 대출·지출수준도 높았다. 노동시장 참여성과의 경우 대조군의 현재 노동시장 참여율이 더 높고 이로 인해 근로소득 수준도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부모로부터 경제적·물리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는 청년의 비율은 두 집단이 유사했고, 과거 노동시장 참여경험, 가구 재산, 청년수당 이외의 공적 지원 경험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추후 정책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청년수당의 참여자 집단과 비참여자 집단이 유사한 특성과 분포를 보여야 한다. 기술통계에서 드러나는 참여군과 대조군의 기초선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추후 정책효과 분석에서는 성별, 연령, 학력, 소득 등의 변수를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통제하여 분석하였다. 더불어 대조군의 경우 ‘청년수당의 요건을 충족하는 미신청자’라는 조건 자체에서 정책에 대한 관심도와 사회참여의 적극성, 정보 수집능력 등 양적 지표로 드러나지 않는 정성적 측면에서 사업 참여자와 체계적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 이러한 차이가 이후 사업참여 여부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결과를 해석하는 데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대조군이 청년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정보 부족’이 45%, ‘신청해도 선정되지 않아서’의 응답이 38%로 대부분이었다. 대조군의 미관측 된 특성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청년수당을 제외한 이전 정부지원 수급경험을 설문한 문항에서 참여군과 대조군의 청년수당 외 정부지원사업 참여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특히 청년수당과 유사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의 참여경험이 두 집단 간 비슷하게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소득·자산 기준이 엄격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참여경험도 대조군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대조군도 참여군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 욕구와 정책신청 의향을 가지고 있으나 청년수당 신청공고를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본인이 신청대상이 되는지 알지 못해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3_참여자와 대조군의 사전·사후비교 분석 결과

참여자의 청년수당 참여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청년수당 참여자와 대조군을 대상으로 제도 진입 시점에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수당 지급이 종료된 시점에서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절에서는 추후 참여자와 대조군의 활동실태, 건강 및 기본생활, 인식의 사전 사후 차이 비교를 통해 참여군과 대조군의 두 시점 간 변화를 살펴보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하위집단별로 변화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표 3-26] 참여자와 대조군의 사전·사후비교 분석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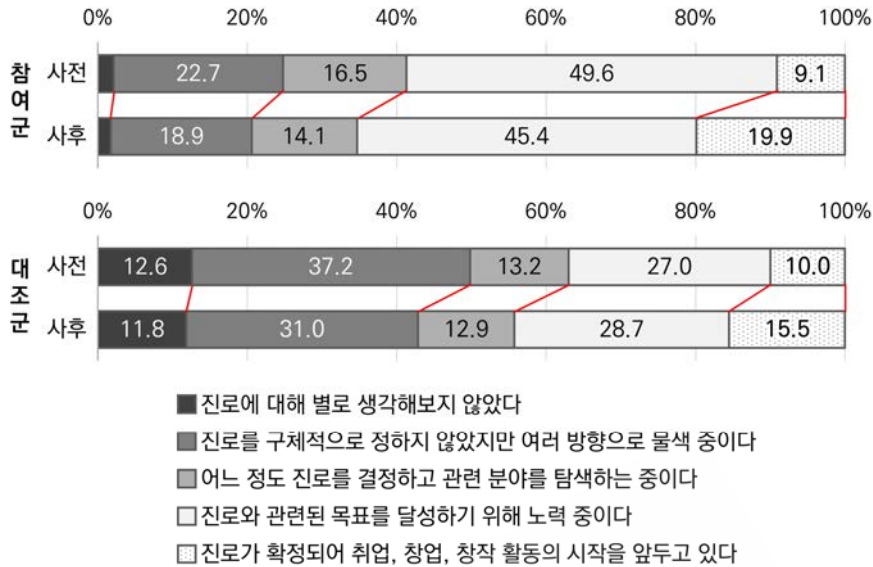
구분	분석 변수
활동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준비도 • 최근 4주 이내 활동: 4주 이내 구직활동 경험 여부, 4주 이내 주된 활동 • 소득활동: 현재 소득활동 여부, 근로소득, 근로시간,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 여부 • 시간사용
건강과 기본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적 건강상태 • 우울 • 결핍 경험: 병원에 갈 수 없었던 경험,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없었던 경험, 식사를 줄이거나 거른 경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신뢰: 정부 신뢰, 서울시 신뢰, 이웃 신뢰 • 사회적 지지와 자아신뢰: 지지체계(관심·지원, 의지할 사람, 자신감), 재기 믿음, 정치적 효능감, 1년 이내 목표달성 믿음 • 공정성 인식(노력하면 성공, 기회의 균등, 부모의 경제적 지위보다 나의 노력 중요)

1) 활동실태

(1) 구직준비도

응답자의 구직준비도를 살펴보기 위해 ‘진로와 관련된 본인의 상태’를 질문하였다. 청년수당 참여군 사전·사후조사 모두 ‘진로와 관련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조군은 사전·사후조사 모두 ‘진로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여러 방향으로 물색 중이다’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참여군이 대조군보다 구직준비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여자의 경우 사전·사후조사를 비교한 결과 ‘진로가 확정되어 취업, 창업, 창작 활동의 시작을 앞두고 있다’의 비율이

사전조사(9.1%)보다 사후조사(19.9%)에서 10%p 높게 확인돼 사후조사에서 진로를 확정한 비율이 대폭 증가하였다.



[그림 3-12] 진로와 관련하여 귀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표 3-27] 구직준비도

(단위: %)

구분	참여군(n=11,831)		대조군(n=955)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진로에 대해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다	2.1	1.7	12.6	11.8
진로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여러 방향으로 물색 중이다	22.7	18.9	37.2	31.0
어느 정도 진로를 결정하고 관련 분야를 탐색하는 중이다	16.5	14.1	13.2	12.9
진로와 관련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49.6	45.4	27.0	28.7
진로가 확정되어 취업, 창업, 창작 활동의 시작을 앞두고 있다	9.1	19.9	10.0	15.5

참여자의 구직준비도의 사전·사후 변화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사전조사 응답을 기준으로 사후조사의 구직준비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사전조사에서 진로를 생각해보지 않은 236명 중 45%가 '진로 물색 중', 9.3%가 '관련 분야 탐색 중', 13.1%가 '목표달성 노력 중', 5.9%가 '진로 확정'의 단계로 변화하였다. 사전조사에서 진로를 물색 중이던 2,681명도 전체의 45%가 여전히 동일한 상태에 있었으나, 20.3%는 '관련 분야 탐색 중', 22.5%는 '목표달성 노력 중', 9%는 '진로 확정'의 단계로 진전되었다. 참여군 전체 응답자의 32%에 달하는 3,776명이 1차에 비해

2차 조사에서 진로와 관련되어 진전된 상태에 있었다. 대조군의 경우 전체 996명 중 268명(28%)이 1차에 비해 2차에서 진로와 관련해 진전된 상태에 있었음을 고려할 때 구직준비도에 진전을 보인 집단의 비율은 대조군보다 참여군이 더 높았다.

[표 3-28] 사전·사후 구직준비도의 교차분석(참여자)

(단위: %, 명)

구분		2차					사례 수 (100%)
		1	2	3	4	5	
1차	1. 별로 생각해 보지 않음	26.3	45.3	9.3	13.1	5.9	236
	2. 여러 방향으로 탐색 중	3.1	45.1	20.3	22.5	9.0	2,681
	3. 관련 분야 탐색 중	0.7	20.7	26.4	34.6	17.7	1,949
	4. 목표달성 노력 중	0.5	7.3	8.8	63.1	20.3	5,888
	5. 진로 확정	0.7	5.9	6.4	33.0	53.9	1,077
사례 수		195	2,214	1,667	5,379	2,376	11,831

주: 비율은 행의 합이 100%임

구직준비도의 5개 문항을 5점 만점의 리커트 척도로 보았을 때, 참여군과 대조군 모두 사전조사에 비해 사후조사에서 구직준비가 유사한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표 3-29] 구직준비도(점수)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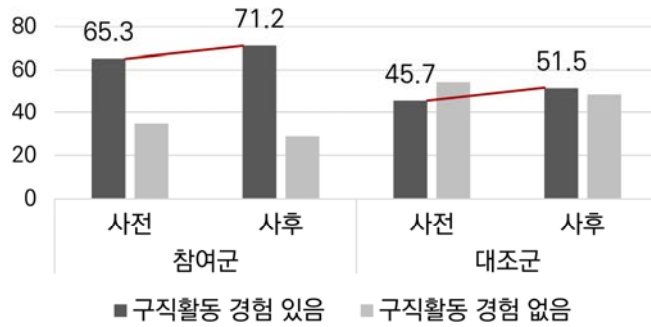
구분		참여군(n=11,831)			대조군(n=955)		
		사전	사후	t	사전	사후	t
구직준비도 (5점 만점)	평균	3.41	3.63	-16.45***	2.84	3.05	-3.58***
	표준편차	1.00	1.05		1.23	1.30	

주: *p<0.1, ** p<0.05, ***p<0.01

(2) 최근 4주 이내 활동

① 최근 4주 이내 구직활동 경험 여부

청년수당 사업의 주된 목적은 청년이 진로를 준비하고 자기를 탐색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최근 4주 이내 일자리를 얻기 위한 활동 여부를 살펴보면 참여군은 사전 65.3%에서 사후 71.2%로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사전 45.7%에서 사후 51.5%로 두 집단 모두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참여군은 청년수당을 받으면서 대조군과 유사한 수준의 구직활동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3] 최근 4주 이내 구직활동 경험 여부

[표 3-30] 구직활동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참여군(n=11,831)		대조군(n=955)	
		사전	사후	사전	사후
구직활동 경험 있음	빈도	7,741	8,436	416	471
	%	65.3	71.2	45.7	51.5
구직활동 경험 없음	빈도	4,090	3,395	539	484
	%	34.7	28.8	54.3	48.5

‘4주 이내 구직활동 경험 있음’ 응답자의 특성을 성별·연령·학력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하위집단별로 변화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전반적으로 지난 4주 이내 구직활동의 경험이 있는 집단의 경우 여성, 만 25세~29세, 4년제 대학 이상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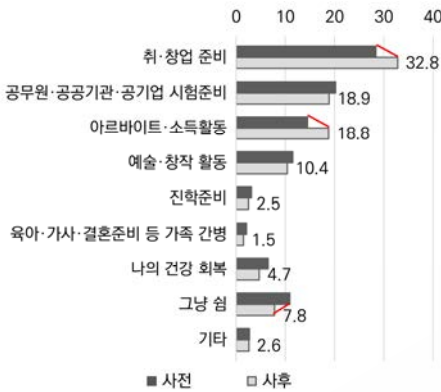
[표 3-31] 4주 이내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집단의 특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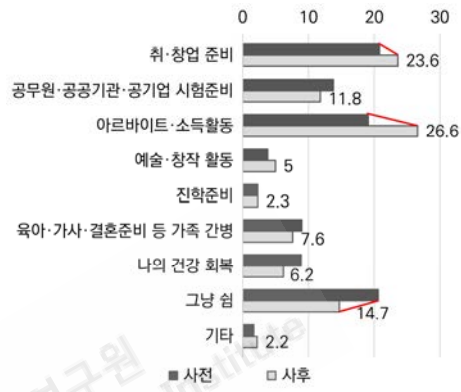
구분		참여군 구직활동 경험 있음			대조군 구직활동 경험 있음		
		사전(A) (n=7,741)	사후(B) (n=8,436)	B-A	사전 (n=416)	사후 (n=471)	B-A
성별	남성	43.1	42.6	-0.5	43.3	43.7	0.4
	여성	57.0	57.5	0.5	56.7	56.3	-0.4
연령	만 19~24세	10.2	10.9	0.8	11.3	11.1	-0.2
	만 25~29세	50.3	50.4	0.1	57.8	54.7	-3.1
	만 30~34세	39.5	38.6	-0.9	31.0	34.2	3.3
학력	고졸이하	22.5	23.0	0.5	29.6	26.7	-2.9
	2~3년제 전문대	18.2	19.2	1.0	17.5	17.6	0.1
	4년제 대학 이상	59.2	57.8	-1.5	52.9	55.7	2.7

② 4주 이내 주된 활동

최근 4주 이내 주된 활동을 1순위를 기준으로 사전·사후조사 비교결과를 살펴보았다. 참여군은 ‘취·창업 준비’¹⁵⁾가 사전조사(28.4%)와 사후조사(32.8%) 모두 가장 높았다. 대조군은 사전조사에서 ‘취·창업 준비(20.8%)’와 ‘그냥 쉬(20.6%)’의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사후조사에서는 ‘아르바이트·소득활동’(26.6%)이 가장 높았다. 두 집단 모두 사전·사후의 변화 방향이 유사한 가운데 참여군과 대조군 모두 ‘취·창업 준비’와 ‘아르바이트·소득활동’의 비율이 상승한 반면, ‘그냥 쉬’는 감소했다.



[그림 3-14] 4주 이내 주된 활동 1순위(참여군)



[그림 3-15] 4주 이내 주된 활동 1순위(대조군)

[표 3-32] 4주 이내 주된 활동 1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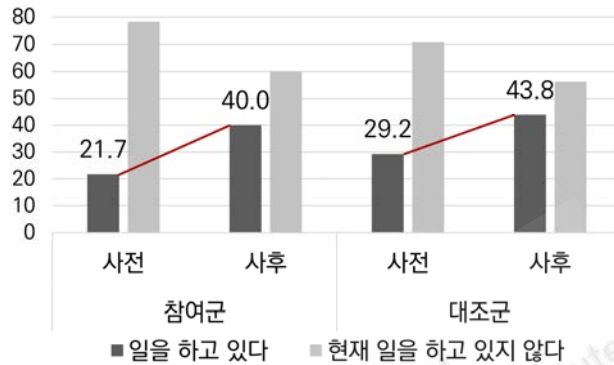
구분	참여군(n=11,831)		대조군(n=955)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취·창업 준비	28.4	32.8	20.8	23.6
공무원·공공기관·공기업 시험준비	20.2	18.9	13.8	11.8
아르바이트·소득활동	14.5	18.8	19.1	26.6
예술·창작 활동	11.5	10.4	3.8	5.0
진학준비	3.1	2.5	2.3	2.3
육아·가사·결혼준비 등 가족 간병	2.1	1.5	9.0	7.6
나의 건강 회복	6.5	4.7	8.9	6.2
그냥 쉬	10.9	7.8	20.6	14.7
기타	2.7	2.6	1.7	2.2

15) 취업은 사기업, 일반기업 취업준비에 한함

(3) 소득활동

① 현재 소득활동 여부

현재 주 1시간 이상 소득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참여군의 ‘일을 하고 있다’ 응답은 사전조사 21.7%, 사후조사 40%로 약 18%p 상승하였으며, 대조군의 경우 사전조사 29.2%, 사후조사 43.8%로 약 15%p가 상승하여 사전조사 대비 사후조사의 상승폭은 참여군이 더 높게 나타났다¹⁶⁾.



[그림 3-16] 현재 소득활동 여부의 변화

[표 3-33] 현재 소득활동 여부

(단위: 명, %)

구분		참여군(n=11,831)		대조군(n=955)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일을 하고 있다	빈도	2,569	4,775	266	392
	%	21.7	40.0	29.2	43.8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다	빈도	9,262	7,056	689	563
	%	78.3	60.0	70.8	56.2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집단의 특성을 응답자의 성별·연령·학력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대조군에서 만 25세~29세의 소득활동 비율이 증가한 것 이외에는 하위집단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4주 이내 구직활동의 경험이 있는 집단의

¹⁶⁾ 단기 일자리와 다중 일자리를 선택하는 청년층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복수의 일자리의 직종, 소득, 근로시간을 설문하였음. 사전조사를 기준으로 참여군은 84%가 1개의 일자리, 13%가 2개의 일자리, 3%가 3개 이상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조군 또한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경우 여성, 만 25세~29세, 4년제 대학 이상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 하위집단별 분포는 4주 이내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집단의 분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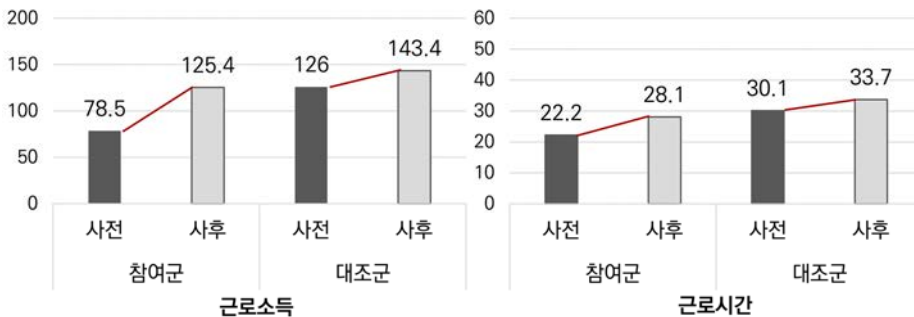
[표 3-34]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집단의 특성

(단위: %)

구분		참여군 현재 일하고 있음			대조군 현재 일하고 있음		
		사전(A) (n=2,569)	사후(B) (n=4,775)	B-A	사전 (n=689)	사후 (n=392)	B-A
성별	남성	39.5	38.2	-1.3	46.3	47.8	1.6
	여성	60.5	61.8	1.3	53.8	52.2	-1.6
연령	만 19~24세	13.2	11.1	-2.2	14.8	12.4	-2.4
	만 25~29세	50.1	51.4	1.3	46.1	52.5	6.4
	만 30~34세	36.7	37.6	0.8	39.1	35.1	-4.0
학력	고졸이하	23.9	21.1	-2.8	26.0	27.2	1.1
	2~3년제 전문대	19.7	20.3	0.6	14.9	17.2	2.3
	4년제 대학 이상	56.4	58.6	2.2	59.0	55.7	-3.4

② 근로소득과 근로시간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복수의 일자리의 근로소득과 근로시간을 설문하였다. 참여자의 경우 현재 일자리의 소득이 사전 79만 원에서 사후 125만 원으로 약 47만 원가량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주당 근로시간도 22시간에서 28시간으로 약 6시간가량 증가하여 노동시장 성과가 두드러지게 향상되었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대조군의 경우 현재 일자리의 소득은 사전 126만 원에서 사후 143만 원으로 17만 원가량 증가하였고, 주당 근로시간은 30시간에서 34시간으로 약 5시간 증가하였다.



[그림 3-17] 근로소득과 근로시간의 변화

[표 3-35] 근로소득과 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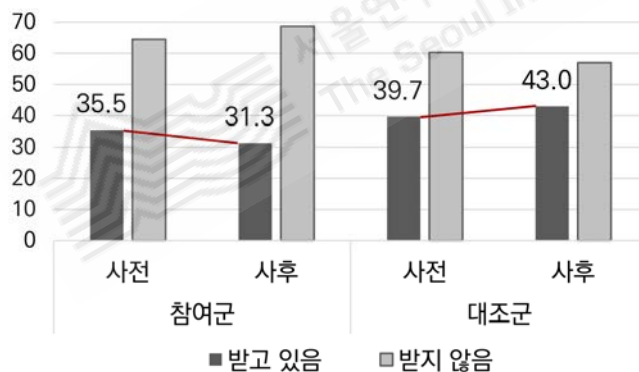
(단위: 만 원, 시간)

구분		참여군			대조군		
		사전 (n=2,569)	사후 (n=4,775)	t	사전 (n=266)	사후 (n=392)	t
근로소득	평균	78.5	125.4	-27.14***	126.0	143.4	-2.53**
	표준편차	56.45	77.29		83.85	88.45	
근로시간	평균	22.2	28.1	-13.79***	30.1	33.7	-2.64***
	표준편차	18.20	17.01		18.34	16.28	

주: *p<0.1, ** p<0.05, ***p<0.01

③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 여부

사전·사후의 노동시장 참여의 증가가 가족으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가족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여부’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참여군에서는 사전조사에 비해 사후조사에서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소폭 감소했으며, 대조군의 경우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8]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 여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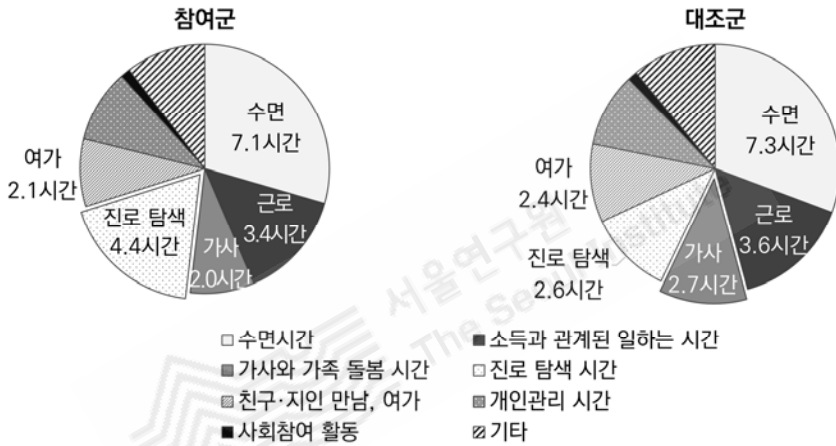
[표 3-36]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 여부

(단위: %)

구분	참여군(n=11,831)		대조군(n=955)	
	사전	사후	사전	사후
받고 있음	35.5	31.3	39.7	43.0
받고 있지 않음	64.5	68.7	60.3	57.0

(4) 하루 평균 시간사용

24시간 기준 하루 평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았다. 문항별 시간 사용 증감폭을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소득과 관계된 일하는 시간'의 상승폭이 모든 문항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참여군은 평균 1.4시간, 대조군은 평균 1시간 증가하였다. 한편 두 집단 모두 '소득과 관계된 일 하는 시간'의 증가로 인해 '진로탐색 시간'이 사전조사 대비 사후조사에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사후조사를 기준으로 참여군은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에서 '진로 탐색시간(평균 4.4시간)'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대조군은 '소득과 관계된 일하는 시간(평균 3.6시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진로탐색'은 사후조사 기준으로 참여군이 대조군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9] 참여군과 대조군의 시간사용(사후조사 기준)

[표 3-37] 하루 평균 시간 사용

(단위: 시간)

구분		참여군(n=11,831)			대조군(n=955)		
		사전	사후	t	사전	사후	t
수면시간	평균	7.3	7.1	10.69***	7.5	7.3	2.22**
	표준편차	1.41	1.38		1.60	1.56	
소득과 관계된 일하는 시간	평균	2.0	3.4	-31.61***	2.6	3.6	-6.28***
	표준편차	2.97	3.73		3.45	3.92	
가사와 가족 돌봄 시간	평균	2.1	2.0	3.34***	2.9	2.7	1.44
	표준편차	2.26	2.11		3.48	3.39	
진로 탐색 시간	평균	5.0	4.4	13.30***	3.0	2.6	2.28**
	표준편차	3.74	3.66		3.27	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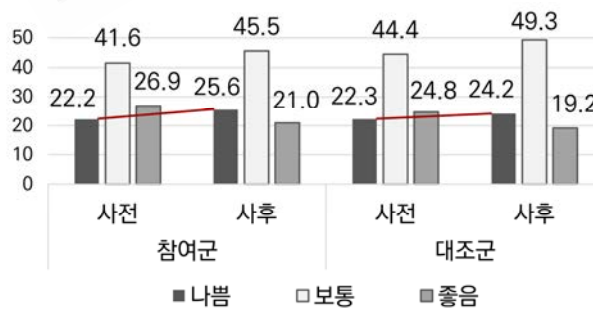
친구·지인 만남, 여가	평균	2.7	2.1	22.60***	3.1	2.4	5.84***
	표준편차	2.31	1.82		3.03	2.38	
개인관리 시간 (운동, 식사, 개인위생 등)	평균	2.7	2.3	20.51***	2.6	2.3	2.98***
	표준편차	1.57	1.30		1.79	1.68	
사회참여 활동 (자원봉사·시민단체·종교활동 등)	평균	0.3	0.3	1.22	0.3	0.3	0.06
	표준편차	0.77	0.74		0.87	0.86	
기타	평균	1.9	2.5	-19.84***	2.0	2.6	-5.06***
	표준편차	1.91	2.34		2.57	2.82	

주: *p<0.1, ** p<0.05, ***p<0.01

2) 건강과 기본생활

(1) 주관적 건강상태

청년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건강상태를 조사하였다. 건강상태가 매우 나쁨을 1점, 매우 좋음을 5점으로 한 5점 척도 분석 결과, 참여군과 대조군 모두 사전·사후조사가 평균 3점으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사전조사 대비 사후조사에서 소폭 하락했다. 한편 사전·사후조사 모두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쁨’과 ‘매우 나쁨’을 합산하여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은 사전·사후 조사에서 참여군이 24%에서 28%로, 대조군이 25%에서 27%로 증가하여 주관적 건강 수준이 나쁘고 그 수준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 2020년 통계청 사회조사의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한 동일 질문에서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하는 인구 비율이 14% 수준임을 감안하면¹⁷⁾ 서울 청년의 주관적 건강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다.



[그림 3-20] 주관적 건강상태

17) 2020년 통계청 사회조사(13세 이상 인구)의 주관적 건강 수준은 ‘매우 나쁨, 1.4%’, ‘나쁨, 12.2%’, ‘보통, 36%’, ‘좋음, 39.6%’, ‘매우 좋음, 10.8%’로 나타남(통계청, 2020년 사회조사결과 보도자료 통계표)

[표 3-38]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 %)

구분	참여군(n=11,831)		대조군(n=955)	
	사전	사후	사전	사후
5점 평균	3.2	3.0	3.1	3.0
매우 나쁨	1.8	2.5	2.2	2.8
나쁨	22.2	25.6	22.3	24.2
보통	41.6	45.5	44.4	49.3
좋음	26.9	21.0	24.8	19.2
매우 좋음	7.6	5.5	6.2	4.5

주관적 건강 수준을 나쁨, 보통, 좋음으로 구분하여 사후조사를 기준으로 각 집단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참여군과 대조군 모두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집단에서 여성의 비율이 65%로 매우 높았고, 연령별로는 만 25세~29세, 학력별로는 4년제 대학 이상의 비율이 높았다.

[표 3-39]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청년의 건강상태(사후조사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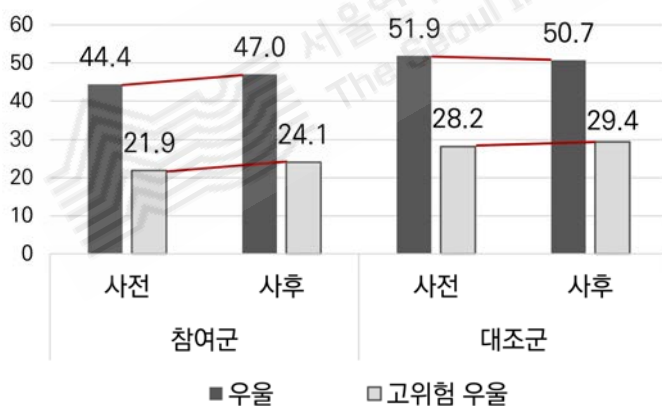
구분		참여군(n=11,831)			대조군(n=955)		
		나쁨 (n=3,373)	보통 (n=5,393)	좋음 (n=3,065)	나쁨 (n=268)	보통 (n=475)	좋음 (n=212)
성별	남성	34.7	40.0	52.7	34.9	39.6	54.5
	여성	65.3	60.1	47.3	65.1	60.5	45.5
연령	만 19~24세	13.1	12.3	11.4	13.5	11.6	12.5
	만 25~29세	46.7	50.8	51.2	51.4	50.5	46.4
	만 30~34세	40.1	36.9	37.4	35.2	37.9	41.1
학력	고졸이하	27.8	23.3	22.6	38.0	28.5	23.7
	2~3년제 전문대	19.6	21.1	16.7	22.4	18.5	13.0
	4년제 대학 이상	52.6	55.7	60.7	39.6	53.0	63.3

(2) 우울

응답자의 정신건강을 측정하기 위해 ‘통합적 한국판 CES-D’이 0~3점 척도 20문항 중 한국복지패널 조사연구에서 11문항을 선정한 축약형 CES-D11 문항을 활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에서는 우울감 척도로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역학연구용 우울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원척도는 0~3 점으로 구성된 20문항으로, 이 연구에서는 11개 문항의 총점에 20/11을 곱하여 활용

하였다. 점수의 분포는 0점에서 6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6점 이상이면 ‘우울 있음’으로 판별한다¹⁸⁾. 한편, CES-D 점수가 25점 이상일 경우 ‘DSM-III-R의 주요 우울증에 대응하는 명확한 우울증 증상을 가진 군(definite depressive symptom)’으로 ‘확실 우울 또는 고위험 우울군’으로 분류된다(조명재 외, 1993; 유태정 외, 2015; 박준혁 외, 2011). 이에 우울 점수가 25점 이상일 경우 ‘고위험 우울군’으로 분류하였다.

60점 만점의 우울 점수는 참여군이 평균 16점대, 대조군이 평균 18점대로 두 집단 모두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대조군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조사에 활용한 원척도가 포함된 한국복지패널의 2019년 전체 응답자 우울 점수 평균이 4.73점임을 고려할 때, 청년층의 우울 점수는 약 4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서울 청년의 정신건강 위험도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참여군의 ‘우울 있음’ 비율은 사전조사 44%, 사후조사 47%로 증가했고, 대조군의 ‘우울 있음’ 비율은 두 시점 모두 51% 수준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임상적 개입이 필요한 ‘고위험 우울’의 비율도 사후조사 기준 참여군 24%, 대조군 30%로 매우 높았다.



[그림 3-21] 우울과 고위험 우울 경험 비율

¹⁸⁾ 분석에는 1~4점 척도로 구성된 문항을 0점~3점으로 코딩 변경하였고, ‘비교적 잘 지냈다’와 ‘불만 없이 생활했다’는 문항은 역코딩하였다. 모두 11문항의 합산 총점에 합산 총점에 20/11을 곱하여 총점(33점)을 20문항일 때의 총점(60점)으로 환산하여 활용하였다.

[표 3-40] 우울

(단위: %)

구분		참여군(n=11,831)		대조군(n=955)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우울 점수		16.12	16.80	18.35	18.46
우울 없음	빈도	6,489	6,214	458	462
	%	55.6	53.0	48.1	49.3
우울 있음(16점 이상)	빈도	5,342	5,617	497	493
	%	44.4	47.0	51.9	50.7
우울 없음	빈도	9,186	8,933	691	667
	%	78.1	75.9	71.8	70.6
고위험 우울(25점 이상)	빈도	2,645	2,898	264	288
	%	21.9	24.1	28.2	29.4

사후조사를 기준으로 ‘우울’과 ‘고위험 우울’ 군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참여군과 대조군 모두 ‘우울’과 ‘고위험 우울’에 속한 집단 중 여성의 비율이 60%대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연령별로는 만 25세~29세, 학력별로는 4년제 대학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주관적 건강상태와 하위집단별 분포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3-4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청년의 건강상태(사후조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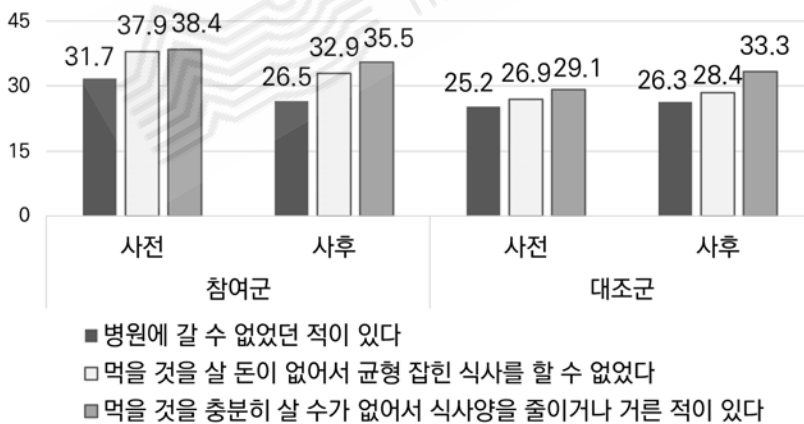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참여군		대조군	
		우울 있음 (n=5,617)	고위험 우울 (n=2,898)	우울 있음 (n=493)	고위험 우울 (n=288)
성별	남성	36.1	32.9	37.5	37.2
	여성	63.9	67.2	62.5	62.8
연령	만 19~24세	12.9	13.5	12.3	13.8
	만 25~29세	49.2	48.4	52.4	48.6
	만 30~34세	38.0	38.1	35.3	37.6
학력	고졸 이하	26.2	27.4	36.3	40.2
	2~3년제 전문대	21.0	21.5	18.4	19.0
	4년제 대학 이상	52.8	51.2	45.3	40.8

(3)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결핍

응답자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의료이용, 균형 있는 식사 또는 충분한 식사 등의 결핍 경험 여부를 집단별로 살펴보았다. 참여군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결핍 경험이 26%~38% 수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동일한 문항이 포함된 한국복지패널에서 2019년 기준으로 '돈이 없어서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못 간 경험'이 있는 경우는 0.43%,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없었던 경험'이 있는 경우가 2.9%¹⁹⁾,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식사량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경험'이 있는 경우가 0.16% 수준으로 나타난 것을 고려하면 전체 집단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다. 이는 실제 돈과 시간이 부족할 경우 식사비용이나 의료이용을 우선 줄이는 청년층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모두 참여군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경험이나 식사 등에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가 없었던 경험'은 대조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핍경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 사전·사후 조사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참여군은 사후조사에서 각 항목에 대해서 경험한 비율이 감소했지만, 대조군의 경우 경험한 비율이 소폭 증가하여 증감이 대비되고 있다.



[그림 3-22]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결핍

¹⁹⁾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없었던 경험'에 '자주 그렇다(0.34%)'와 '가끔 그렇다(2.59%)'로 응답한 비율의 합(여유진 외, 2019)

[표 3-42]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결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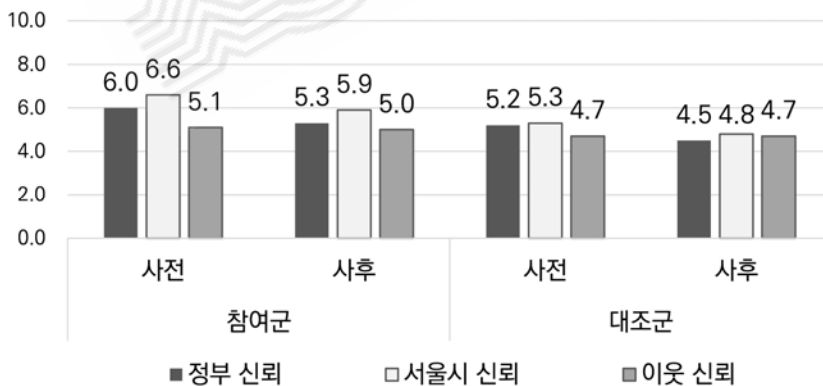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참여군 (n=11,831)		대조군 (n=955)	
	사전	사후	사전	사후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²⁰⁾	31.7	26.5	25.2	26.3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없었던 경험이 있다	37.9	32.9	26.9	28.4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가 없어서 식사량을 줄이거나 거른 적이 있다	38.4	35.5	29.1	33.3

3) 인식

(1) 사회신뢰: 정부, 서울시, 이웃

정부와 이웃에 대한 신뢰 정도를 0~10점으로 점수화하여 살펴보았다. 참여군은 사전 조사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 평균 6점, '서울시에 대한 신뢰' 6.6점, '동네, 이웃 사람들에 대한 신뢰' 5.1점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보다 서울시에 대한 신뢰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대조군은 사전조사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 평균 5.2점, '서울시에 대한 신뢰' 5.3점, '주위의 동네, 이웃사람에 대한 신뢰' 4.7점으로 전반적으로 참여군에 비해 신뢰수준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사전조사 대비 사후조사에서 신뢰 점수가 모두 하락한 가운데 참여군과 대조군 모두 이웃에 대한 신뢰에 비해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대한 신뢰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그림 3-23] 신뢰수준

20)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갈 수 없었던 경험'과 별개로 청년의 미충족 의료욕구를 살펴보기 위해 사전조사에서 지난 2년간 건강검진 여부를 조사하였다.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참여군 38%, 대조군 36%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3-43] 신뢰수준

(단위: 점,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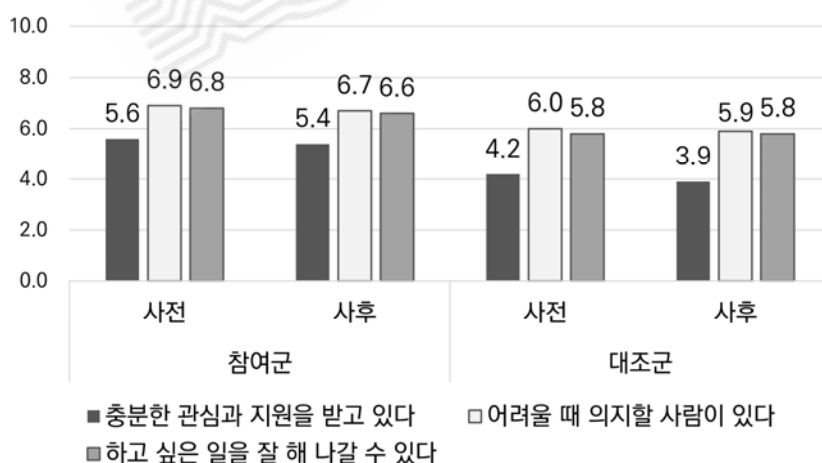
구분		참여군 (n=11,831)			대조군 (n=955)		
		사전	사후	t	사전	사후	t
정부 신뢰	평균	6.0	5.3	26.43***	5.2	4.5	5.38***
	표준편차	2.19	2.36		2.52	2.44	
서울시 신뢰	평균	6.6	5.9	25.37***	5.3	4.8	5.23***
	표준편차	1.95	2.12		2.32	2.28	
이웃 신뢰	평균	5.1	5.0	3.79***	4.7	4.7	0.81
	표준편차	1.94	1.98		2.07	2.04	

주: *p<0.1, ** p<0.0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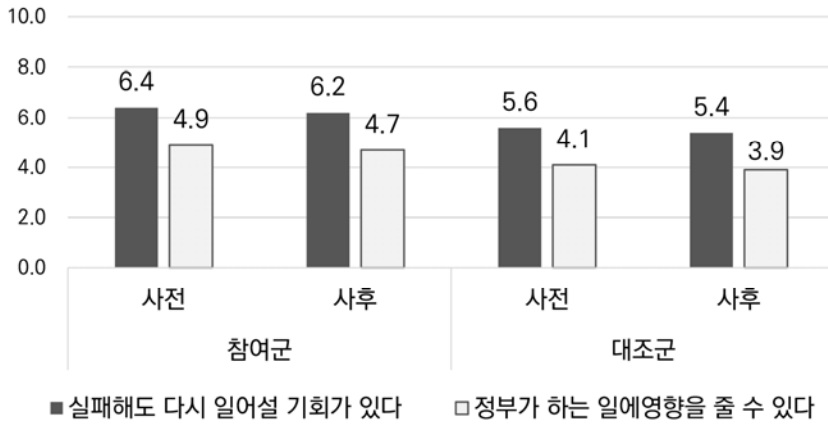
(2) 사회적 지지와 자아 신뢰

① 자아인식

지지체계와 재기에 대한 믿음, 정치적 효능감에 대한 인식을 0~10점으로 점수화하여 살펴보았다. 사전·사후조사의 모든 항목에 대해서 참여군의 점수가 대조군 보다 높았다. 그 중 '나는 사회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다'의 응답에서 사후조사 기준으로 참여군(평균 5.4점)이 대조군(평균 3.9점)보다 1.4점 더 높게 나타나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사전조사 대비 사후조사에서 참여군과 대조군 모두 모든 항목에서 점수가 소폭 하락하였으며, 하락의 폭도 유사했다.



[그림 3-24] 지지체계



[그림 3-25] 재기 믿음, 정치적 효능감

[표 3-44] 지지체계, 재기 믿음, 정치적 효능감

(단위: 점, 10점 만점)

구분		참여군 (n=11,831)			대조군 (n=955)		
		사전	사후	t	사전	사후	t
나는 사회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다	평균	5.6	5.4	8.33***	4.2	3.9	2.99***
	표준편차	1.99	1.99		2.16	2.17	
나는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평균	6.9	6.7	5.22***	6.0	5.9	1.47
	표준편차	2.22	2.24		2.40	2.44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잘 해 나갈 수 있다	평균	6.8	6.6	5.88***	5.8	5.8	0.71
	표준편차	2.14	2.18		2.29	2.27	
나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다	평균	6.4	6.2	5.59***	5.6	5.4	1.79*
	표준편차	2.39	2.47		2.52	2.48	
나는 정부가 하는 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평균	4.9	4.7	8.45***	4.1	3.9	1.63
	표준편차	2.50	2.60		2.57	2.52	

주: *p<0.1, ** p<0.05, ***p<0.01

② 1년 내 목표달성에 대한 믿음

집단별로 향후 1년 이내에 취업, 창업, 창작 등 내가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을 것 인지에 대한 믿음 정도를 0점~10점으로 점수화하여 살펴보았다. 참여군과 대조군 모두 사전조사 대비 사후조사에서 점수의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조사 기준으로 참여군(6.7점)이 대조군(5.5점)에 비해 다소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3-45] 1년 내 목표달성에 대한 믿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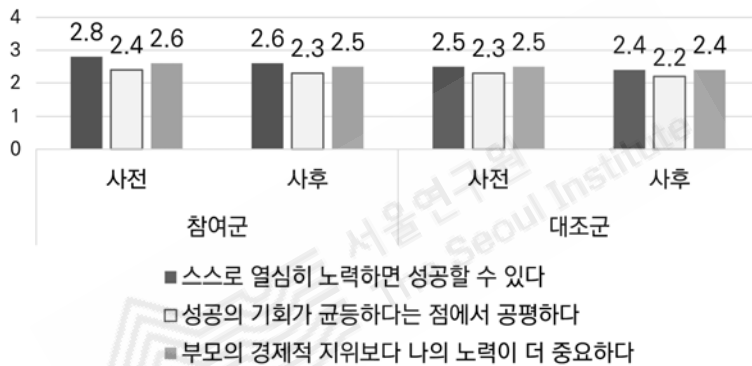
(단위: 점, 10점 만점)

구분		참여군 (n=11,831)			대조군 (n=955)		
		사전	사후	t	사전	사후	t
1년 이내 목표달성에 대한 믿음	평균	6.8	6.7	5.77***	5.6	5.5	1.32
	표준편차	2.24	2.45		2.67	2.52	

주: *p<0.1, ** p<0.05, ***p<0.01

(3) 공정성 인식

공정성에 대한 인식 문항은 1~5점의 척도로 측정하였다. 두 집단 모두 사전조사 대비 사후조사에서 모든 문항에서 점수가 하락하였고 참여군에 비해 대조군의 점수가 약간 높았다.



[그림 3-26] 공정성에 대한 인식

[표 3-46] 공정성에 대한 인식

(단위: 점, 5점 만점)

구분		참여군 (n=11,831)			대조군 (n=955)		
		사전	사후	t	사전	사후	t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	평균	2.8	2.6	10.05***	2.5	2.4	2.07**
	표준편차	1.07	1.06		1.02	1.03	
성공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라는 점에서 공평하다고 생각한다	평균	2.4	2.3	3.89***	2.3	2.2	1.93*
	표준편차	0.98	0.97		0.95	0.94	
사회적 성취에 있어 부모의 경제적 지위보다 나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	평균	2.6	2.5	8.16***	2.5	2.4	1.62
	표준편차	1.20	1.15		1.13	1.11	

주: *p<0.1, ** p<0.05, ***p<0.01

4) 소결

이 절에서는 청년수당 참여자와 대조군의 활동실태, 건강과 기본생활, 인식을 중심으로 사전-사후 변화를 살펴보았다. 활동실태의 경우 참여자가 대조군에 비해 6개월간 ‘진로가 확정’되거나, 구직준비도에 진전을 보인 비율이 높았다. 참여자와 대조군 모두 4주 이내 주된 활동에서 취·창업준비와 아르바이트·소득활동의 비율이 높아졌고,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비율이 높아졌는데 특히 참여군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비율’, ‘근로소득’, ‘근로시간’의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참여군의 경우 사전조사에 비해 사후조사에서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줄어들었고, 시간사용 문항에서 근로시간이 증가하였다. 청년수당은 본래 청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2020년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취업지연, 아르바이트의 중단 등 소득감소가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했던 상황을 고려할 때, 현금성 청년수당이 청년들의 근로 동기를 저해하지 않고 청년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건강과 기본생활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결핍 경험의 모든 항목에서 참여군과 대조군 모두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이 나타나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여군과 대조군 모두 주관적 건강 수준, 우울이 사전조사에서도 심각한 수준이었으나 사후조사에서 악화되었으며, 결핍 역시 모든 문항에서 25% 이상의 응답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결핍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감이 다른 조사 결과에 비해 좋지 않게 나타난 것은 조사 대상자가 졸업 후 2년 이상 경과 한 미취업 청년이라는 점, 그리고 코로나 19사태의 특수성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결핍 경험은 대조군이 6개월간 결핍상태가 늘어난 반면, 참여군은 모든 항목에서 결핍 경험이 감소한 점은 의미가 있다.

인식의 경우 대부분의 문항에서 참여군이 대조군에 비해 인식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사전-사후의 변화는 참여군·대조군 모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재성 외(2019)에 따르면 ‘인식’의 변화는 단기적인 사업결과(Output)보다는 장기적 사업효과(Outcome)로 분류된다. 6개월의 한정된 기간의 사회적 지원이 개인의 인식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한편, 청년활동지원사업 효과성 평가와 관련한 선행연구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효과성 평가 연구 등 일련의 선행연구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현금수당을 받은 집단이 대조군에 비해 사회실패, 복지

인식 등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던 반면 이 연구에서는 인식에 뚜렷한 차이나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이로 인한 불안정성의 확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해석을 위해 향후 추가적인 면접조사로 심층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4_수당 외 프로그램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특성 비교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청년수당과 함께 청년의 활력증진과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다양한 비금전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수당참여자는 자율적 선택에 따라 관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대조군을 제외한 청년수당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청년수당만 받은 집단과 청년수당을 받으면서 수당 외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한 집단을 구분하여 집단 간 차이와 사전-사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우선 수당 외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집단의 특성과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프로그램 참여경험, 참여 현황, 만족도, 프로그램 수요 등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프로그램의 목적성에 따라 ‘진로탐색·역량강화 지원사업’, ‘마음건강 지원사업’, ‘사회참여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프로그램 참여경험에 따른 활동실태, 우울, 사회적 지지와 자아신뢰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표 3-47] 수당 외 프로그램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특성 비교 분석 개요

구분	분석 변수
수당 외 프로그램 참여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참여경험: 참여 여부, 횟수, 미참여 사유 프로그램별 참여현황·만족도: 만족도, 만족사유, 개선점 프로그램 수요: 수당 외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
‘진로탐색·역량강화 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활동실태의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직준비도 최근 4주 이내 활동 근로소득과 근로시간
‘마음건강 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우울의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울
‘사회참여 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자아신뢰의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지지와 자아신뢰: 지지체계(관심·지원, 의지할 사람, 자신감), 재기 믿음, 정치적 효능감

1) 수당 외 프로그램 참여경험

(1) 프로그램 참여 여부

2020년 1차 청년수당 참여자 중 약 31%(3,625명)이 1개 이상의 프로그램 참여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참여경험이 있는 경우 참여한 프로그램 개수를 살펴보면, 1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가 6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2개 이상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도 약 35%에 달했다.

[표 3-48] 수당 외 프로그램 참여경험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프로그램 참여경험	없음	8,206	69.4
	있음	3,625	30.6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참여한 프로그램 개수 (n=3,625)	1개 참여	2,366	65.3
	2개 참여	830	22.9
	3개 참여	280	7.7
	4개 이상 참여	149	4.1
전체		11,831	100.0

수당 외 프로그램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보다 여성, 30대,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의 프로그램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3-49] 프로그램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구분		전체 응답자 (n=11,831)	프로그램 미참여 (n=8,206)	프로그램 참여 (n=3,625)
성별	남성	37.3	39.8	31.7
	여성	62.7	60.2	68.3
연령	만 19~24세	10.4	11.4	8.3
	만 25~29세	49.9	50.0	49.5
	만 30~34세	39.7	38.6	42.2
학력	고졸 이하	22.3	23.5	19.8
	2~3년제 전문대	19.7	19.9	19.1
	4년제 대학 이상	58.0	56.6	61.0

한편, 프로그램 미참여 집단(n=8,206)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를 조사한 결과, 전체 미참여자의 90% 이상이 '시간이 적절하지 않아서'라고 응답했고, 87%가 '코로나 상황에 외출하기가 불안해서', 응답자의 65%가 '필요가 없어서'라고 응답했다. 즉 프로그램 미참여자의 프로그램 참여 저해 요인은 '프로그램 운영시간', '코로나 19로 인한 불안감'으로 보인다. 특히 '시간이 적절하지 않아서'의 응답은 앞선 절에서 지난 6개월간 참여자들의 구직활동, 취·창업준비, 소득활동이 늘어난 것과도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으로 참여율 향상을 위해서는 근로 중인 청년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운영시간을 다양화하거나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비대면 프로그램을 보다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림 3-27] 수당 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

[표 3-50] 수당 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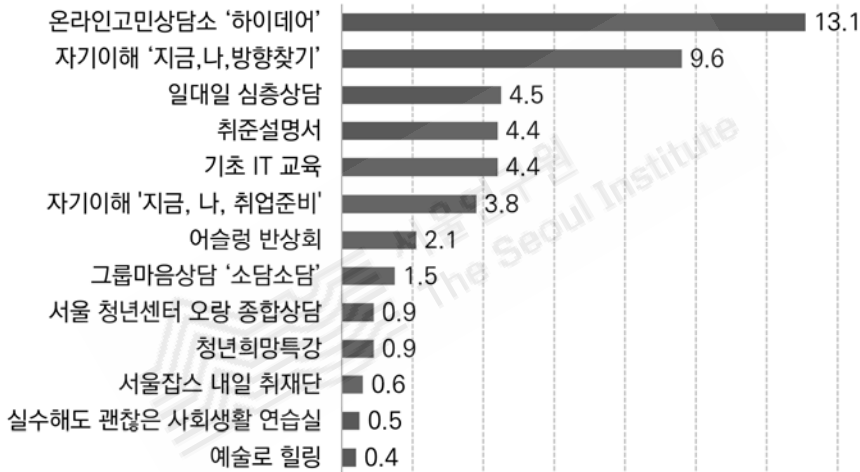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필요가 없어서	5,336	65.0
관련 정보를 알지 못해서	2,236	27.2
시간이 적절하지 않아서	7,666	93.4
장소가 멀거나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2,008	24.5
코로나 상황에 외출하기가 불안해서	7,106	86.6
비대면 프로그램이라서	1,094	13.3

주: 비율은 프로그램에 한 번도 참여한 경험이 없는 8,206명 중 해당 문항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임

(2) 프로그램별 참여현황 및 만족도

프로그램별 참여 여부를 살펴보면 ‘온라인고민 상담소 하이데어’가 13.1%로 가장 높았고, ‘자기이해 지금, 나, 방향찾기’(9.6%), ‘일대일 심층상담’(4.5%), ‘Microsoft 기초IT교육’(4.4%), ‘취준설명서(진로고민·취업전략·자소서·면접 강의, 4.4%)’ 순으로 참여율이 높았다. 각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0~10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어슬렁 반상회’가 평균 7.6점으로 모든 프로그램 중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서울잡스 내일취재단’(7.4점), ‘서울 청년센터 오랑 종합상담’과 ‘취준설명서’(각각 7.3점), ‘온라인고민상담소 하이데어’와 ‘일대일 심층상담’(각각 평균 7.2점)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프로그램 만족도는 평균 7점대로 6점~7점 사이에서 대체로 유사했는데 이는 프로그램의 질 관리가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28] 수당 외 프로그램 참여경험

[표 3-51] 참여 프로그램(복수응답)과 만족도

(단위: 명, %, 점)

구분	참여경험 있음		만족도 (10점 만점)
	빈도	비율	
일대일 심층상담	528	4.5	7.23
그룹마음상담 '소담소담'	173	1.5	6.75
온라인고민상담소 '하이데어'	1,555	13.1	7.20
자기이해 '지금, 나, 방향찾기'	1,136	9.6	6.77
자기이해 '지금, 나, 취업준비'	451	3.8	7.05

취준설명서	521	4.4	7.25
실수해도 괜찮은 사회생활 연습실	59	0.5	6.60
서울잡스 내일 취재단	68	0.6	7.40
어슬렁 반사회	254	2.1	7.60
서울 청년센터 오랑 종합상담	109	0.9	7.27
예술로 힐링	45	0.4	6.34
기초 IT 교육	523	4.4	6.48
청년희망특강	102	0.9	7.09

[표 3-52]에서는 총 13개의 활동지원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의 목적성에 따라 ① 진로 탐색·역량강화 지원 사업, ② 마음건강 지원사업, ③ 사회참여 지원사업으로 범주화한 결과이다. 자기이해와 진로탐색을 위한 교육과정인 ‘자기이해 지금, 나, 방향찾기’, ‘자기이해 지금, 나, 취업준비’, ‘취준설명서’, ‘청년희망특강’과 직무·기업정보를 제공하는 ‘서울잡스 내일취재단’ 그리고 직무역량 교육인 ‘기초 IT 교육’을 ‘진로탐색·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였다. 목적성이 뚜렷한 마음건강 지원 3개 사업(일대일 심층상담, 그룹마음상담, 온라인 고민상담)은 ‘마음건강 지원사업’으로 묶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참여 지원사업’으로 분류된 세부사업은 ‘실수해도 괜찮은 사회생활 연습실’, ‘어슬렁 반사회’, ‘청년센터 오랑 종합상담’, ‘예술로 힐링’이다. 전자의 2개 사업은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활력 청년, 소통과 교류가 필요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인관계 연습,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이다. ‘청년센터 오랑 종합상담’은 권역별 청년센터 이루어지는 상담·사정·정보연계 프로그램으로 청년의 상황과 욕구를 파악하여 정기·비정기적 대면·비대면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개별 맞춤형 지원사업이다. ‘예술로 힐링’은 치유예술을 주제로 예술가의 창작·치유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활동지원사업참여자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참여형 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4개의 사업이 모두 동일한 목적성을 가졌다고는 할 수 없으나, 모두 청년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도움과 정보가 필요한 청년의 지지체계를 형성하기 위해 구성되었다고 판단하여 4개 사업을 묶어 ‘사회참여 지원사업’으로 범주화하였다. 프로그램 범주별 참여율을 살펴보면, 전체 청년수당 대상자 중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1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진로탐색·역량강화 지원사업’이 17.1%, ‘사회참여 지원사업’이 3.6% 순으로 분석됐다.

[표 3-52] 참여 프로그램 범주화

(단위: 명, %, 점)

범주	프로그램명	참여경험 있음	
		빈도	비율
진로탐색·역량강화 지원사업	자기이해 '지금, 나, 방향찾기'	2,021	17.1
	자기이해 '지금, 나, 취업준비'		
	취준설명서		
	서울잡스 내일 취재단		
	기초 IT 교육		
	청년희망특강		
마음건강 지원사업	일대일 심층상담	2,069	17.5
	그룹마음상담 '소담소담'		
	온라인고민상담소 '하이데어'		
사회참여 지원사업	실수해도 괜찮은 사회생활 연습실	431	3.6
	어슬렁 반상회		
	서울 청년센터 오랑 종합상담		
	예술로 힐링		

[표 3-52]의 프로그램 범주에 따라 [표 3-53]에서는 프로그램 유형별 참여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진로탐색·역량강화 지원사업'과 '마음건강 지원사업' 참여경험이 있는 집단은 전체 프로그램 참여자의 특성과 유사하게 여성과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가 많은 데 비해, '사회참여 지원사업'의 참여자 특성은 다소 상이했다. 전체 프로그램 참여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68%가 여성인 데 비해, 사회참여 지원사업 참여자의 경우 58%가 여성, 42%가 남성으로 상대적으로 남성의 참여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의 비율이 낮고 고졸 이하, 2~3년제 전문대를 졸업한 집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남성', '2~3년제 전문대 이하' 학력 청년에서 사회참여 지원에 대한 정책적 욕구가 높게 나타났고, 사회참여 지원 프로그램 경험 비율도 높았다.

[표 3-53] 프로그램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범주별)

(단위: %)

구분		프로그램 참여경험 있음 (n=3,625)	진로탐색·역량강화 지원사업 참여경험 있음 (n=2,021)	마음건강 지원사업 참여경험 있음 (n=2,069)	사회참여 지원사업 참여경험 있음 (n=431)
성별	남성	31.7	29.7	32.0	42.2
	여성	68.3	70.3	68.0	57.8
연령	만 19~24세	8.3	7.8	8.5	8.6
	만 25~29세	49.5	50.9	47.0	47.1
	만 30~34세	42.2	41.3	44.5	44.3
학력	고졸 이하	19.8	19.0	20.6	21.8
	2~3년제 전문대	19.1	19.3	18.8	21.6
	4년제 대학 이상	61.0	61.8	60.6	56.6

총 13개의 활동지원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 참여율이 가장 높은 5개 프로그램에 대해 각 프로그램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여율이 높은 상위 5개 프로그램에서 공통으로 가장 응답이 많았던 만족 사유는 ‘나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었다’였다. ‘기초 IT교육’과 ‘일대일 심층상담’과 같이 프로그램의 목적성이 뚜렷하고 전문적·집중적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나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었다’의 응답이 40%가 넘어 구체적 욕구를 가진 청년의 수요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고민상담소 하이데어’, ‘일대일 심층상담’, ‘기초 IT교육’의 경우 ‘다른 곳에서 경험하지 못한 프로그램이었다’가 두 번째로 응답 비율이 높았고, ‘자기이해 지금, 나 방향찾기’, ‘취준설명서’는 ‘프로그램 운영진이 전문적이고 주제에 맞게 구성되었다’의 응답비율이 높았다. 특히 ‘취준설명서’는 ‘프로그램 운영진이 전문적이고 주제에 맞게 구성되었다’의 응답이 32%에 달해 프로그램 강사와 담당자에 대한 만족도가 특히 높았다.

[표 3-54] 지원금 외 프로그램 만족 사유

(단위: %)

구분	온라인 고민상담소 ‘하이데어’ (n=1,555)	자기이해 ‘지금, 나, 방향찾기’ (n=1,136)	일대일 심층상담 (n=528)	Microsoft ‘기초IT교육’ (n=523)	취준설명서 (n=521)
나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었다	38.9	25.3	40.5	45.4	41.2
다른 곳에서 경험하지 못한 프로그램이었다	24.8	19.5	26.6	32.1	12.8
프로그램 운영진이 전문적이고 주제에 맞게 구성되었다	9.6	21.6	17.5	14.1	31.7
프로그램 운영진이 청년세대를 잘 이해하고 친절했다	21.3	19.6	8.5	2.0	11.1
또래 청년들을 만나서 좋았다	1.8	10.3	1.4	0.5	2.3
기타	3.5	3.7	5.6	5.8	0.9

프로그램 참여율이 가장 높은 5개 프로그램에 대해 각 프로그램에서 아쉬웠던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쉬웠던 점이 없다’는 응답을 제외하면, ‘사후관리·후속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프로그램이 나의 기대와는 달랐다’의 응답이 높게 나타나, 이후 후속프로그램 연계와 사전 프로그램 안내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3-55] 지원금 외 프로그램에 대해 아쉬운 점

(단위: %)

구분	온라인 고민상담소 '하이데어' (n=1,555)	자기이해 '지금, 나, 방향찾기' (n=1,136)	일대일 심층상담 (n=528)	Microsoft '기초IT교육' (n=523)	취준설명서 (n=521)
사후관리·후속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32.7	28.0	21.6	21.6	28.2
프로그램이 나의 기대와 달랐다	24.0	36.7	20.4	38.4	24.7
시간 또는 장소가 적절하지 않았다	10.3	11.5	18.5	7.3	15.4
진행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3.7	3.5	7.5	12.8	6.3
횟수/시간/기간이 짧다	0.1	1.8	5.4	2.7	2.0
없다	22.1	13.2	16.9	12.8	18.0
기타	7.1	5.4	9.8	4.5	5.4

(3) 프로그램 수요

2020 청년수당 참여자의 프로그램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청년활동지원금 이외에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을 2개씩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주거, 노동, 금융 등 청년 생활 상담지원'이 47.0%, '마음건강 자가진단과 상담 지원' 3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필수적인 생활지원과 더불어 마음건강 관련 수요가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인데, 앞선 절의 청년의 높은 우울 수준을 고려할 때 청년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 일자리 및 취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마음건강과 심리적 지지와 같은 지원이 병행되어야 하고 더욱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3-56] 청년활동지원금 외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

(단위: 명, %)

구분	빈도
주거, 노동, 금융 등 청년 생활 상담 지원	47.0
마음건강 자가진단과 상담 지원	35.4
1년 미만 단기일자리, 창업지원	30.8
모의시험, 시험비용 할인, 특강 개설 등 어학시험 지원	27.3
정기적인 청년지원 정보 제공	26.1
자기이해 프로그램 및 직무강연 등 구직지원활동	16.6
일상과 관계 지원을 위한 소규모 커뮤니티 지원	5.4

2) 수당 외 프로그램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특성 비교

현재 중앙정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수당과 유사한 현금성 수당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수당 외에 다양한 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한 패키지 사업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이에 청년활동지원사업참여자 중 수당 외 프로그램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특성을 살펴보고 기술통계 수준에서 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수당+프로그램 참여집단과, 수당만 받은 집단을 구분하여 프로그램 참여자와 미참여자 간의 활동실태, 우울,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나아가 [표 3-5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총 13개의 활동지원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의 목적성에 따라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진로탐색·역량강화 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활동실태’의 차이, ‘마음건강 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우울의 차이, ‘사회참여 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표 3-57] 참여 프로그램 범주에 따른 응답자의 차이 분석

(단위: 명, %, 점)

범주	프로그램명	분석 내용
진로탐색· 역량강화 지원사업	자기이해 ‘지금, 나, 방향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활동실태(구직준비도, 구직·소득활동 경험)의 차이
	자기이해 ‘지금, 나, 취업준비’	
	취준설명서	
	서울잡스 내일 취재단	
	기초 IT 교육	
	청년희망특강	
마음건강 지원사업	일대일 심층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우울의 차이
	그룹마음상담 ‘소담소담’	
	온라인고민상담소 ‘하이데어’	
사회참여 지원사업	실수해도 괜찮은 사회생활 연습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신뢰의 차이
	어슬렁 반사회	
	서울 청년센터 오랑 종합상담	
	예술로 힐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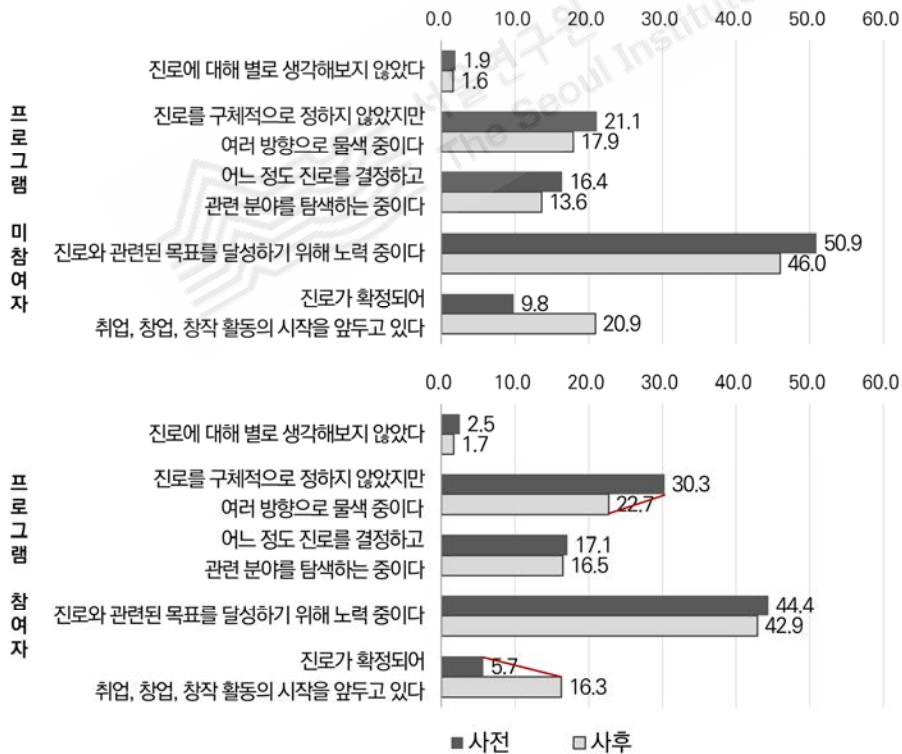
(1) ‘진로탐색·역량강화 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활동상태의 차이

① 구직준비도

2020년 1차 청년수당 참여자 중 ‘진로탐색·역량강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구직준비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사전·사후 조사 모

두 '진로탐색·역량강화 지원사업' 참여자보다 미참여자의 구직준비도 수준이 더 높았다.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 사전조사에서 진로를 생각해보지 않았거나, 진로를 물색 중인 경우의 비율이 미참여자에 높았으나, 사후조사에서는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응답 값의 차이가 줄어들었다. 프로그램 미참여자는 '진로 물색 중', '탐색 중', '노력 중'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진로 확정'의 비율이 약 11%p 증가하였고, 프로그램 참여자는 구직준비도 수준이 낮은 '진로 물색 중'의 비율이 대폭 줄어들고, '진로 확정'의 비율이 11%p 증가하였다.

진로관련 프로그램 참여자는 사전에 '진로를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생각하지 못한' 집단의 비율이 높고 프로그램 미참여자보다 구직준비도 수준도 낮았다. 이는, 진로목표가 뚜렷하지 않아 관련 프로그램에 더 큰 정책수요를 가지고 있던 집단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사후조사에서 참여자의 구직준비도 수준이 미참여자에 비해 확연하게 높아지지는 않았지만, 진로 미정의 응답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진로 확정 응답이 미참여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했음을 고려할 때 '진로탐색·역량강화 지원사업'이 참여자의 진로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29]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결핍

[표 3-58] 프로그램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구직준비도 차이

(단위: %)

구분	진로탐색·역량강화 지원사업 미참여자 (n=9,810)		진로탐색·역량강화 지원사업참여자 (n=2,021)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진로에 대해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다	1.9	1.6	2.5	1.7
진로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여러 방향으로 물색 중이다	21.1	17.9	30.3	22.7
어느 정도 진로를 결정하고 관련 분야를 탐색하는 중이다	16.4	13.6	17.1	16.5
진로와 관련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50.9	46.0	44.4	42.9
진로가 확정되어 취업, 창업, 창작 활동의 시작을 앞두고 있다	9.8	20.9	5.7	16.3

구직준비도의 5개 문항을 5점 만점의 리커트 척도로 보았을 때, ‘진로탐색·역량강화 지원사업’ 참여자와 미참여자 모두 사전조사보다 사후조사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표 3-59] 프로그램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구직준비도 차이(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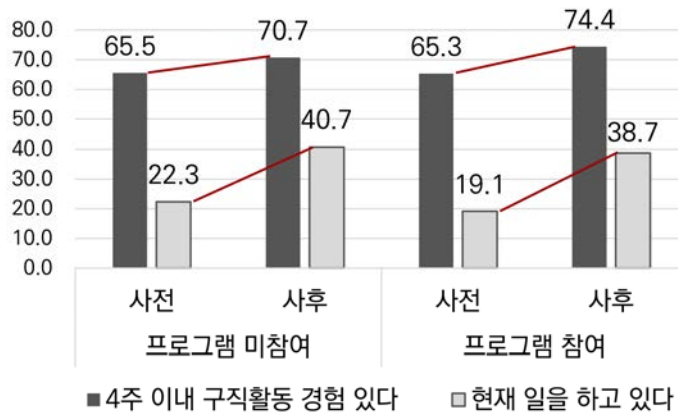
(단위: 점)

구분		진로탐색·역량강화 지원사업 미참여자 (n=9,810)			진로탐색·역량강화 지원사업참여자 (n=2,021)		
		사전	사후	t	사전	사후	t
구직준비도 (5점 만점)	평균	3.5	3.7	-14.39***	3.2	3.5	-8.84***
	표준편차	0.99	1.05		1.02	1.06	

주: *p<0.1, ** p<0.05, ***p<0.01

② 최근 4주 이내 구직활동·소득활동 참여

‘진로탐색·역량강화 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 4주 이내 구직활동, 소득활동 경험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프로그램 참여집단과 미참여집단 모두 사전조사에 비해 사후조사에서 구직활동·소득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 높아졌다. 특히 구직준비도와 더불어 ‘진로 탐색·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구직활동 참여 여부의 경우, 프로그램 미참여자는 6개월간 5.2%p, 참여자는 9.1%p 증가하여 프로그램 참여자의 증가폭이 더 크다. 소득활동 참여 여부의 변화는 두 집단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림 3-30]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른 구직활동·소득활동 참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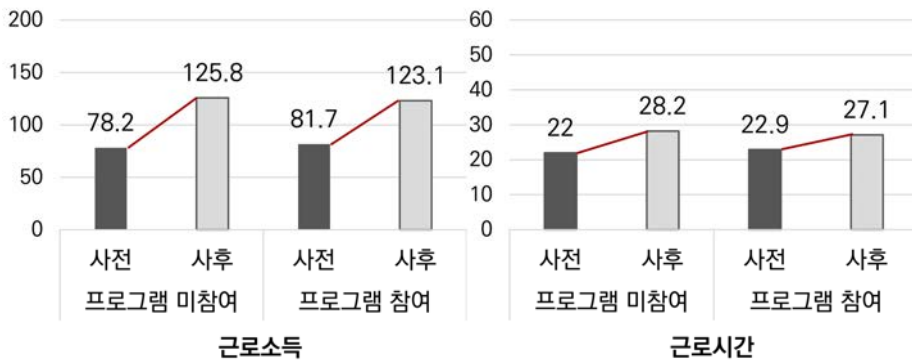
[표 3-60] 프로그램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구직·소득활동 차이

(단위: %)

구분		진로탐색·역량강화 지원사업 미참여자 (n=9,810)		진로탐색·역량강화 지원사업참여자 (n=2,021)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최근 4주 이내 구직활동 경험 있음	빈도	6,422	6,933	1,319	1,503
	%	65.5	70.7	65.3	74.4
현재 소득이 되는 일을 하고 있음	빈도	2,183	3,993	386	782
	%	22.3	40.7	19.1	38.7

③ 근로소득과 근로시간

현재 소득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진로탐색·역량강화 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근로소득과 근로시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사전·사후 조사에서 프로그램 미참여자의 경우 소득이 평균 47.6만 원 증가하였고 참여자의 경우 평균 41.4만 원 증가하여 프로그램 미참여자의 근로소득 상승폭이 더 높았다. 근로시간 역시 프로그램 미참여자가 6.2시간, 프로그램 참여자가 4.2시간 증가하여 프로그램 미참여자의 근로시간이 더 늘어났다. 앞서 프로그램 참여자의 구직준비도와 구직활동참여 여부 경험은 미참여자보다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근로소득과 근로시간으로 측정되는 지난 6개월간 노동시장 성과의 경우 미참여자가 참여자보다 더 높았다.



[그림 3-31]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른 근로소득과 근로시간

[표 3-61] 프로그램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근로소득과 근로시간

(단위: 점)

구분		진로탐색·역량강화 지원사업 미참여자 (n=9,810)			진로탐색·역량강화 지원사업 참여자 (n=2,021)		
		사전 (n=2,183)	사후 (n=3,993)	t	사전 (n=386)	사후 (n=782)	t
근로소득	평균	78.2	125.8	-25.40***	81.7	123.1	-9.24***
	표준편차	55.23	77.35		62.88	76.01	
근로시간	평균	22.0	28.2	-13.34***	22.9	27.1	-3.82***
	표준편차	17.83	17.02		19.74	16.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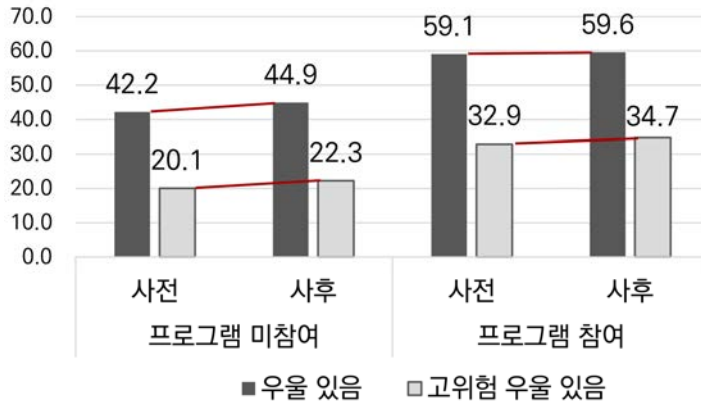
주: *p<0.1, ** p<0.05, ***p<0.01

(2) ‘마음건강 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우울의 차이

① 우울

‘마음건강 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살펴보았다.²¹⁾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모두 프로그램 참여집단이 미참여집단보다 ‘우울 있음’과 ‘고위험 우울 있음’이 비율이 더 높았다. 이는 앞서 구직준비도와 마찬가지로 정책수요가 높은 우울이 있는 집단에서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전·사후 조사를 비교하면 ‘우울 있음’과 ‘고위험 우울 있음’ 비율은 프로그램 미참여집단에서 참여집단보다 약간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1) 우울점수가 16점 이상일 경우 ‘우울 있음’, 25점 이상일 경우 ‘고위험 우울있음’으로 구분함.



[그림 3-32] 마음건강 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우울 수준의 차이

[표 3-62] 마음건강 지원사업참여자와 미참여자의 우울

(단위: %)

구분		마음건강 지원사업 미참여자 (n=9,762)		마음건강 지원사업참여자 (n=2,069)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우울 있음	빈도	4,119	4,384	1,223	1,233
	%	42.2	44.9	59.1	59.6
고위험 우울 있음	빈도	1,965	2,181	680	717
	%	20.1	22.3	32.9	34.7

60점 만점의 우울점수 역시 마음건강 지원사업참여자 집단에서 일관되게 더 높게 나왔으며, 사업참여자의 사전·사후 변화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음건강 지원사업 미참여자의 경우 참여자보다 우울점수는 낮았지만, 사후조사에서 우울 점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우울’을 판단하는 기준점수가 16점임을 고려할 때 마음건강 지원사업 참여 여부를 불문하고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전반의 우울 수준이 매우 높으며, 사전조사에 비해 사후조사에서 ‘우울 있음’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앞으로 마음건강 지원사업의 확대와 더불어 기존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다 전문적·치료적 프로그램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3-63] 마음건강 지원사업참여자와 미참여자의 우울 수준 차이

(단위: 점)

구분		마음건강 지원사업 미참여자 (n=9,762)			마음건강 지원사업참여자 (n=2,069)		
		사전	사후	t	사전	사후	t
우울점수	평균	15.5	16.2	-4.28***	20.3	20.4	-0.44
	표준편차	11.56	12.03		13.23	13.04	

주: *p<0.1, ** p<0.05, ***p<0.01

(3) '사회참여 지원사업' 참여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자아신뢰의 차이

'사회참여 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사회참여 지원사업의 참여 청년의 활력 수준과 자신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가정하고 사회참여 지원사업 여부에 따라 '지지체계와 자아신뢰'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사회참여 지원사업참여자와 미참여자 모두 모든 문항에서 사전조사에 비해 사후조사에서 점수가 감소하거나 동일하였고 감소폭이 유사하여 서비스 참여 여부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3-64] 사회참여 지원사업참여자와 미참여자의 지지체계와 자아신뢰의 차이

(단위: 점, 10점 만점)

구분		사회참여 지원사업 미참여자 (n=11,400)			사회참여 지원사업참여자 (n=431)		
		사전	사후	t	사전	사후	t
나는 사회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다	평균	5.6	5.4	8.55***	5.5	5.5	0.00
	표준편차	1.97	1.97		2.32	2.23	
나는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평균	6.9	6.7	4.97***	6.6	6.4	1.29***
	표준편차	2.20	2.23		2.43	2.48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잘 해 나갈 수 있다	평균	6.8	6.6	5.87***	6.8	6.7	0.26
	표준편차	2.14	2.18		2.24	2.19	
나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다	평균	6.4	6.2	5.36***	6.5	6.4	0.83***
	표준편차	2.39	2.46		2.37	2.46	
나는 정부가 하는 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평균	4.9	4.6	8.32***	5.3	5.1	1.44
	표준편차	2.49	2.59		2.52	2.66	

주: *p<0.1, ** p<0.05, ***p<0.01

3) 소결

2020년 1차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참여자의 특성과 변화를 수당 외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수당 외 프로그램 참여자의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살펴본 결과, 2020년 1차 사업참여자의 31%가 1개 이상의 수당 외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당 외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 전체 응답자에 비해 여성, 30대,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의 비율이 높았다. 프로그램 미참여 집단의 미참여 사유(복수응답)에서는 90% 이상이 '시간이 적절하지 않아서'로 응답하여 향후 활동 중인 청년, 일과가 유동적인 청년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운영시간을 유연화하거나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비대면 프로그램을 늘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프로그램 범주별 참여자 특성에서는 '사회참여 지원사업'에서 타 사업과 달리 '남성', '2~3년제 전문대 이하' 학력의 청년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고, 전반적 프로그램 수요에서는 '주거, 노동, 금융 등 청년 생활 상담지원'이 47.0%, '마음건강 자가진단과 상담 지원' 35.4% 순으로 높게 나타나 향후 프로그램 기획·설계 시 프로그램별 참여자 특성과 더불어 청년층의 정책수요를 반영한 보완이 필요하다.

나아가, 수당 외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과 청년수당만 받은 집단을 구분하여 활동상태, 우울, 인식 등 주요 성과지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수당 외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자체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자의 필요성과 정책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전조사의 기초값 대비 사후조사의 변화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진로탐색·역량강화 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활동상태 분석 결과,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 사전조사에서 진로를 생각해보지 않았거나, 진로를 물색 중인 경우의 비율이 미참여자에 높았으나, 사후조사에서는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응답값의 차이가 줄어들어, '진로탐색·역량강화 지원사업'이 참여자의 진로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실제 구직활동 참여경험도 프로그램 참여자의 6개월간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한편 '마음건강 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우울의 차이, '사회참여 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불문하고, 1차 청년활동지원사업참여자 전반의 우울 수준과 인식수준이 일관되게 악화된 결과로 해석된다.

04

청년활동지원사업 정책효과분석 II: 이중차분분석



1_분석방법

2_청년수당의 정책효과성 평가

3_수당 외 프로그램 정책효과성 평가

04. 청년활동지원사업 정책효과 분석 II : 이중차분분석

1_분석방법

1) 분석방법론: 이중차분 분석(DID: Difference-in-difference)

사실, 현존하고 있는 사회 문제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 구성원이 있을 때, 수급집단을 임의로 선정하여 정책참여 전후의 변화과정을 분석하는 사회실험 방식의 연구는 윤리성과 형평성의 문제로 인하여 시도되기 어렵다. 하지만 정책의 성과를 엄밀하게 파악하고 분석 모형상 발생하는 내생성(endogeneity)을 제어하는 문제가 최근 계량모형의 핵심 주제가 되면서, 윤리성의 문제는 최대한 우회하면서 조사 설계의 단계에서부터 정책개입의 고유한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자연과학적 실험설계 방식을 최대한 차용하는 ‘준(quasi)-실험설계’ 방식을 사용하는 연구와 단절적인 정책의 변화가 발생하는 시점을 전후로 변화의 영향을 받는 집단을 발견하고 관찰하여 비교하는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 사례를 보고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는 이중 전자에 속한다. 즉,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및 청년활동 지원사업의 정책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연구진은 정책대상집단(실험군)과 최대한 유사한 속성을 지닌 대조군을 설정하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정책 이전 시점(T0)과 정책 집행 이후 시점(T1)을 비교하는 일종의 준자연실험 하에서 정책효과를 추정하는 기법(Gould et al., 2004, Drago et al., 2009)을 도입하였다.

사회과학 내에서 준자연실험이란, 자연과학의 실험실과 같은 환경을 사회-환경 내에서 최대한 유사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정책변화나 천재지변 등에 의해서 우연히 실험 환경과 같은 구성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의미한다. 유사한 속성을 지닌 집단이 있다고 할 때,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진 일부 집단을 실험군으로, 정책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은 집단을 대조군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들 두 집단에 대하여 정책적 개입 이전 측정

치와 개입 후 측정치를 가지고 있다면, 1차적으로 개입 전후 실험군의 전후 성과를 차분하고, 2차적으로는 정책시행 전후 대조군의 변화를 차분한 후 1차 차분값에서 2차 차분값을 다시 빼 주는 방식으로 정책효과를 추정할 수 있으며, 이를 이중차분법(DID: Difference-in-difference)이라고 한다.

이중차분법은 두 번에 걸쳐 빼준다는 의미이다. 만일, 1차 차분값만을 정책효과로 간주한다면 정책 시행 전후에 발생한 모든 종류의 변화를 정책효과로 파악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정책 시행 전후에는 일정한 시차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차에 의해 발생하는 효과들, 예를 들어, 계절적 요인이라던지,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역사적 사건들이 미치는 영향들을 모두 정책효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정책 시행 전후 실험군과 유사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통제집단의 변화정도를 실험군의 변화에서 빼 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 성과를 차분하는 추정방식이기에, 이를 이중차분법이라고 부른다. 이중차분법은 준자연실험 상황에서 유용성이 높는데, 정책개입 전후의 두 시점 차이를 활용하기에 정책의 영향을 받는 집단(실험군)과 받지 않는 대조군을 비교할 때 발생하게 되는 편의(bias)를 제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코로나19 위기와 같이 외부 환경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추세(trends)의 영향 역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우석진, 2019).

다만,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실험군과 대조군의 고유한 차이는 시간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중차분 모형은 실험군과 대조군이 동질적이지 않을 때 유용한 분석모델이다. 두 집단의 차이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고정적인 차이라면, 시간에 따라 변화하되 측정하지 못한 외부요인이 실험군과 대조군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는 것이다(Kaushal & Kaestener, 2001; 은석, 2019:58에서 재인용). 실험군과 대조군이 정책의 외부요인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려면 두 집단의 공통추세에 대한 가정과 처치의 외생성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Wing et al., 2018; Lechner, 2010; 은석, 2019:58에서 재인용).

이 연구에서는 외부효과에 동일하게 반응하는 참여군과 대조군을 설정하기 위해 대조군 표집 시 참여군과 동일한 조건인 ① 만 19~34세 서울 거주 ② 졸업 후 2년경과 미취업자·단기취업자 ③ 가구소득이 4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미만 ④ 현재 정부 사업 및 과거 청년수당 미참여자의 기본 선정기준을 두었다. 조사 시점이 사전, 사후 2차에 불과하여 공통추세를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나, 3장의 참여군과 대

조군의 비교분석을 통해 두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통계적 비교가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처치의 외생성을 고려하여, 정책 변화의 효과가 각 집단이 가지고 있던 교유한 속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 추후 정책효과 분석에서는 성별, 연령, 학력 등의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이후 분석에는 앞서 참여군과 대조군의 사전-사후 분석을 통해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 이후 유의미한 변화가 포착된 항목을 중심으로 이중차분 분석을 통해 정책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은 크게 청년수당의 효과성 평가와 수당 외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로 구분된다. 청년수당의 효과성 평가는 참여자와 대조군을 중심으로 청년수당 수급이 노동시장 참여와 청년의 인식변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수당 외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는 청년활동지원사업참여자 중 프로그램 참여자와 미참여자를 구분하여 각각의 프로그램 참여가 목표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표 4-1] 이중차분 분석의 개요

구분		결과 변수	분석대상
청년수당의 효과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시장 참여: 근로소득, 근로시간, 노동시장 참여 여부 • 인식변화: 신뢰, 결핍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군과 대조군
수당 외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일대일 심층상담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군 중 일대일 마음건강 프로그램 참여자와 미참여자 • 참여군 중 일대일 마음건강 프로그램 참여자와 대조군
	취업준비 프로그램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준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군 중 취업준비 프로그램 참여자와 미참여자 • 참여군 중 취업준비 프로그램 참여자와 대조군

2) FGI 실시

양적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을 보완하기 위해, 2차조사 실시 이후 조사응답자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FGI는 양적 조사의 결과 중 특히 청년수당 참여 이후 노동시장 참여경험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에 집중하여 진행되었다. 이에 FGI 대상자의 표집과 그룹의 구분은 연령, 학력과 2차 조사 당시의 '주당 1시간 이상 근로 여부'를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FGI의 수행은 2021년 3월 2일과 3월 3일 양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2_청년수당의 정책효과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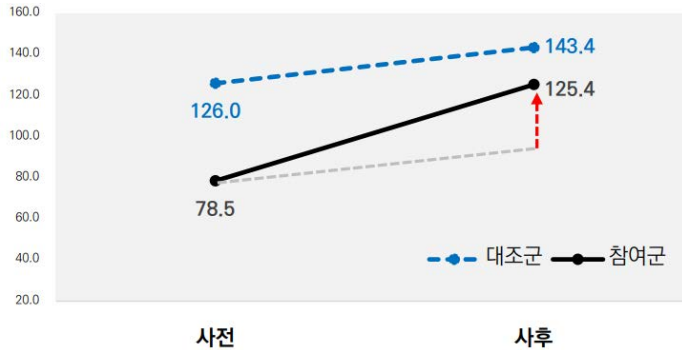
1) 청년수당의 효과성 평가: 노동시장 참여를 중심으로

청년수당의 효과성 평가 분석에 있어 먼저 청년수당이 청년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친 영향을 근로소득, 근로시간, 노동시장 참여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응답 시점 당시 주당 1시간 이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청년수당을 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노동시장 성과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청년의 일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새로운 설문 방식을 도입하였다. 기존의 설문들은 주로 한 개의 일자리 또는 주된 일자리를 중심으로 근로경험, 근로소득, 근로시간을 응답하도록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설문 방식은, 플랫폼 노동의 보편화, 일자리의 안정성 감소 등으로 인해서 개인이 여러 개의 일자리를 갖게 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 정확히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 연구는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투잡, n잡 등 여러 개의 단기·플랫폼 일자리를 가지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현재 소득이 되는 일자리를 모두 응답하고 각각의 일자리의 근로소득과 근로시간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에 현재 소득이 되는 n개의 일자리의 소득과 근로시간의 합계 값으로 '근로·사업소득' 변수를 구성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1) 청년수당이 근로소득에 미친 정책효과

청년수당을 받은 집단과 비교집단의 1차, 2차 조사 시점의 근로소득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4-2]와 같다. 사전·사후 조사 간에, 청년층의 근로소득은 전반적으로 상향세였다. 청년수당 시행 전후, 대조군은 실험군보다 더 높은 근로소득을 벌고 있었다. 하지만 청년수당의 정책효과로 인하여 이 두 집단 간의 소득 차이는 크게 좁혀졌다. 즉, 청년수당을 받은 참여자 집단이 받지 않은 집단보다 근로소득 면에서 더 큰 증가를 보였다.



[그림 4-1] 참여군과 대조군의 근로소득 변화

[표 4-2] 참여군과 대조군의 근로소득의 변화

(단위: 만 원, 시간)

구분		참여군			대조군		
		사전 (n=2,569)	사후 (n=4,775)	t	사전 (n=266)	사후 (n=392)	t
근로소득	평균	78.5	125.4	-27.14***	126.0	143.4	-2.53**
	표준편차	56.45	77.29		83.85	88.45	

주: *p<0.1, ** p<0.05, ***p<0.01

[표 4-3]의 모형 1~6는 청년수당을 받은 실험군과 받지 않은 대조군의 6개월간의 근로소득 변화에 대한 이중차분분석 결과이다. 모형에 따라 성별, 연령, 학력, 구직준비도, 우울 수준을 추가로 통제하였다. 분석표에서 기간효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두 집단 모두가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값, 즉, 공통추세를 의미한다. 기저값은 출발선상 차이 값으로 사전조사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를 의미한다. 정책효과는 청년수당을 받게 된 집단이 가지는 고유한 정책효과를 의미한다. 이 모델에서는 청년수당을 받은 실험군에서 근로소득이 26만 원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통제변수를 하나씩 추가하면서 분석한 6개의 모형 모두에서 청년수당이 근로·사업소득에 미친 정적인 정책효과는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즉, 모든 모형에서 청년수당을 수급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근로소득이 더 증가한 것이다. 성별, 만 나이, 고등교육 이수 여부 등의 통제변수는 실험군과 대조군이 지니고 있을 수 있는 이질성을 통제하는 공변량의 의미를 갖기에, 통제변수를 추가 투입한 후에도 청년수당의 정책효과와 유의도가 변하지 않은 것은 이 정책이 그만큼 공고한 효과를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근로소득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에게, 남성에게, 청년

층 내에서도 연령이 많을수록, 구직준비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낮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3] 이중차분분석결과: 청년수당이 수급자의 근로소득에 미친 영향

구분	모형1 coef/se	모형2 coef/se	모형3 coef/se	모형4 coef/se	모형5 coef/se	모형6 coef/se
기간효과	20.490*** (6.838)	20.391*** (6.821)	20.695*** (6.788)	20.838*** (6.789)	18.342*** (6.823)	18.632*** (6.813)
기저값 (개입전, 실험군-대조군)	-43.956*** (5.291)	-44.400*** (5.274)	-44.162*** (5.255)	-43.946*** (5.268)	-48.037*** (5.343)	-48.383*** (5.350)
정책효과 (2차시기×실험군 더미)	26.108*** (7.018)	26.295*** (7.002)	25.820*** (6.969)	25.569*** (6.969)	26.218*** (7.002)	26.160*** (6.989)
성별 (1=남, 2=여)		-7.733*** (1.738)	-6.628*** (1.749)	-8.151*** (1.775)	-7.747*** (1.768)	-6.398*** (1.787)
만 나이			1.318*** (0.244)	0.700*** (0.264)	0.625** (0.263)	0.700*** (0.263)
고등교육 이수여부 (1= 4년제졸 이상)				10.487*** (1.743)	8.430*** (1.738)	7.757*** (1.732)
구직준비도 (5점 리커트)					7.022*** (0.777)	6.555*** (0.783)
우울(60점 환산)						-0.368*** (0.069)
상수	122.68*** (5.173)	135.88*** (5.979)	96.19*** (9.293)	110.01*** (9.635)	91.76*** (9.912)	95.40*** (9.9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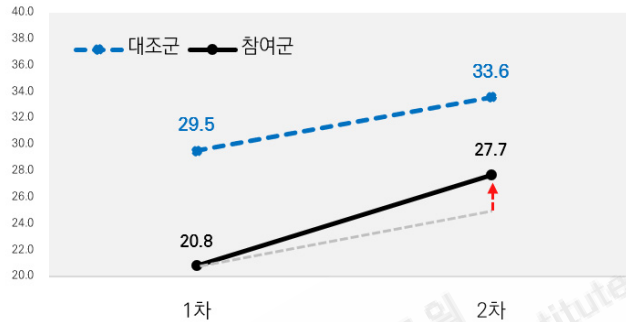
note: *** p<0.01, ** p<0.05, * p<0.1

(2) 청년수당이 근로시간에 미친 정책효과

근로소득과 더불어 청년수당을 받은 집단과 비교집단의 1, 2차 조사 시점의 근로시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투입하기 앞서 ‘주당 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n개의 각 일자리의 주당 근로시간’ 합계값을 산출하고 분포를 검토하였다. 선형 회귀모형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분포의 정규성을 가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왜도와 첨도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이상값(outlier)에 대해서 웨이브별, 집단별 총 4개의 분포를 구하여 표준편차 3단위 밖의 값을 결측으로 처리하였다. 이 경우,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이상점 1% 정도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들은 2차 웨이브

기준으로는 주당 근로시간을 각각 79시간(실험군, 29케이스), 81시간(대조군, 1케이스) 이상으로 응답한 경우였다.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결측처리하였다. 최종적으로 1차 웨이브에서는 대조군 263케이스와 실험군 2,523케이스, 2차 웨이브에서는 대조군 391케이스와 실험군 4,746 케이스가 분석에 투입되었다.

기술통계를 통해 두 집단의 근로시간 변화를 살펴본 결과, 두 집단 모두 1차에 비해 2차 조사에서 근로시간의 상향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참여자군의 근로시간이 다소 가파르게 증가하여 두 집단 간 근로시간의 차이가 줄어들었다.



[그림 4-2] 참여군과 대조군의 근로시간 변화

[표 4-4] 참여군과 대조군의 소득과 관계된 일하는 시간의 변화

(단위: 시간)

구분		참여군			대조군		
		사전 (n=2,523)	사후 (n=4,746)	t	사전 (n=263)	사후 (n=391)	t
소득과 관계된 일하는 시간	평균	20.8	27.7	-17.74***	29.5	33.6	-3.05**
	표준편차	14.83	16.20		17.49	16.18	

주: *p<0.1, ** p<0.05, ***p<0.01

[표 4-5]의 모형 1~6은 청년수당을 받은 실험군과 받지 않은 대조군의 노동시간 변화에 대한 이중차분분석 결과이다. 통제변수를 하나씩 추가하면서 분석한 6개의 모형 모두에서 정적인 기간효과가 관측되었다. 1차 조사기간(2020년 5월)과 2차 조사기간(2020년 12월) 동안, 청년층의 주당 노동시간은 전반적으로 상향세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수당 시행 전, 대조군은 참여군보다 주당 노동시간이 7~8시간 정도 더 길었다(기저값).

청년수당이 노동시간에 미친 정적인 정책효과는 모형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나타났다. 구직준비도를 통제하지 않은 모형 1~3에서는 정책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통제한 후에는 모형 4~6에서 모두 정적인 정책효과, 즉, 청년수당 수급집단이 비수급집단에 비해서 노동시간을 추가로 더 늘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 만 나이, 고등교육 이수 여부, 구직준비도 등의 통제변수는 실험군과 대조군이 지니고 있을 수 있는 이질성을 통제하는 공변량의 의미를 갖는데, 남성보다 여성의 노동시간이 약 3시간 정도 더 작게 나타났으며, 구직준비도가 높을수록 노동시간 역시 긴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고등교육 이수여부, 우울 수준 등은 노동시간 증가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4-5] 이중차분분석결과: 청년수당이 주당 노동시간에 미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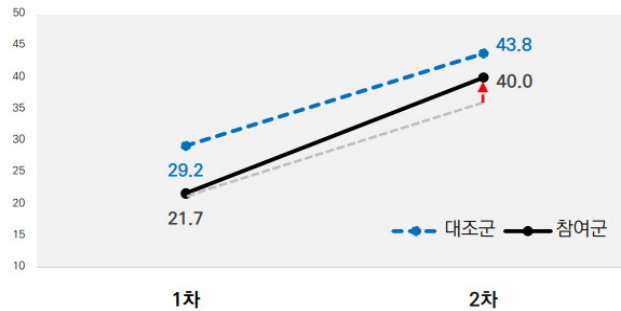
구분	모형1 coef/se	모형2 coef/se	모형3 coef/se	모형4 coef/se	모형5 coef/se	모형6 coef/se
기간효과	4.696*** (1.320)	4.738*** (1.323)	4.688*** (1.304)	4.189*** (1.311)	4.194*** (1.311)	4.191*** (1.310)
기저값 (개입전, 실험군-대조군)	-7.094*** (1.086)	-7.066*** (1.090)	-7.249*** (1.073)	-8.073*** (1.088)	-8.066*** (1.088)	-8.063*** (1.088)
정책효과 (2차시기×실험군 더미)	2.121 (1.373)	2.056 (1.376)	2.144 (1.357)	2.268* (1.363)	2.263* (1.363)	2.264* (1.363)
만 나이		0.170*** (0.054)	0.111** (0.054)	0.071 (0.054)	0.063 (0.059)	0.063 (0.059)
성별 (1=남, 2=여)			-3.393*** (0.385)	-3.367*** (0.383)	-3.387*** (0.388)	-3.399*** (0.393)
구직준비도				1.418*** (0.164)	1.412*** (0.166)	1.416*** (0.167)
고등교육 이수여부 (1= 4년제졸 이상)					0.132 (0.396)	0.138 (0.398)
우울(60점 환산)						0.003 (0.015)
상수	27.875*** (1.045)	23.007*** (1.867)	30.478*** (2.055)	27.337*** (2.092)	27.526*** (2.178)	27.493*** (2.182)

note: *** p<0.01, ** p<0.05, * p<0.1

(3) 청년수당이 노동시장 참여 여부에 미친 정책효과

청년수당을 받은 집단과 비교집단의 1차, 2차 조사 시점의 노동시장시장 참여경험은 [표 4-6]과 같다. 1차 조사기간(2020년 5월)과 2차 조사(2020년 12월) 기간 동안 노

동시장 참여비율은 1차 20%대에서 2차 40%대로 참여자와 대조군 모두 크게 늘었다. 청년수당을 받기 전 대조군은 참여군보다 노동시장 참여율이 7.5%가량 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2차 조사에서는 참여자 집단이 대조군보다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참여율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여 두 집단 간의 노동시장 참여율의 차이가 3.8% 수준으로 좁혀졌다.



[그림 4-3] 참여군과 대조군의 노동시장 참여비율 변화

[표 4-6] 참여군과 대조군의 '현재 일을 하고 있음' 비율의 변화

(단위: 명, %)

구분		참여군(n=11,831)		대조군(n=955)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일을 하고 있다	빈도	2,569	4,775	266	392
	%	21.7	40.0	29.2	43.8

1차조사에 비해 2차조사에서 청년수당 참여자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청년수당의 정책효과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참여군과 대조군의 1차, 2차 노동시장 참여 여부의 이종차분분석을 실시하였다. 노동시장 참여 여부는 이분변수로 구성되어 분석결과는 승산을 나타내는 오즈비(odds ratio)로 해석한다.

통제변수를 하나씩 추가하면서 분석한 4개의 모형 모두 정책효과와 오즈비가 1보다 크게 나타나 청년수당을 받은 집단이 받지 않은 집단보다 노동시장에 참여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청년수당은 참여군의 노동시장 참여확률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정책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 4-7] 이중차분분석결과: 청년수당이 노동시장 참여 여부에 미친 정책효과

구분	모형1 coef/se	모형2 coef/se	모형3 coef/se	모형4 coef/se
기간효과	1.805*** (0.176)	1.805*** (0.176)	1.805*** (0.176)	1.805*** (0.176)
기저값 (개입전, 실험군-대조군)	0.732*** (0.055)	0.732*** (0.055)	0.731*** (0.055)	0.725*** (0.055)
정책효과 (2차시기×실험군 더미)	1.353*** (0.138)	1.353*** (0.138)	1.353*** (0.138)	1.354*** (0.138)
성별 (1=남, 2=여)	1.166*** (0.034)	1.166*** (0.034)	1.162*** (0.034)	1.141*** (0.033)
만 나이			0.995 (0.004)	0.987*** (0.004)
고등교육 이수여부 (1= 4년제졸 이상)				1.151*** (0.035)
상수	0.295*** (0.026)	0.295*** (0.026)	0.343*** (0.053)	0.410*** (0.065)

note: *** p<0.01, ** p<0.05, * p<0.1

(4) 노동시장 참여와 관련된 FGI 결과

청년수당을 수령하는 6개월 동안 근로소득, 근로시간 그리고 노동시장 참여율 모두 대조군에 비해 참여군에서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참여군의 근로소득, 근로시간, 노동시장 참여율 모두 그 수준이 대조군보다 낮았으나, 근로소득의 경우 6개월간 대조군이 17.4만 원 증가한 것에 비해 참여군은 46.9만 원 증가했고, 근로시간은 대조군이 4시간 증가한 것에 비해 참여군이 6.9시간 증가했다. 참여군의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비율도 1차에서는 21.7%에서 2차는 40%로 18.3% 증가했다.

‘일’의 기준을 지난 일주일간 1시간 이상의 노동으로 정의하였고, 청년수당은 주 26시간 초과, 3개월 초과 근로 시 수급자격이 박탈됨으로 대부분 단기 일자리 혹은 아르바이트 참여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참여군의 10.6%에 달하는 1,249명이 6개월 미만 청년수당에 참여했고, 이 중 65%에 달하는 818명이 취·창업의 사유로 현금성 수당 지급으로 수당 지급을 중단했음으로 일부 취·창업에 성공한 사례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현금성 수당 지급으로 인한 소득의 증가는 개인의 노동 동기와 근로유인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대조군보다 참여군에서 노동시장 참여와 관련된 지표가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를 해석하기 위해, 청년수당 참여 이후 노동시장 참여경험 변화를 중심으로 집단면접조사(Focused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하였다.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경험이 연령과 학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을 고려하여, 인터뷰 그룹은 연령과 학력, 그리고 2차 조사 당시 노동시장 참여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그룹1은 20~25세의 고졸 이하, 2그룹은 26세 이상의 고졸 이하, 3그룹은 26세 이상의 대졸 이상으로 구분하고 집단 내에서 2차 조사 당시 일을 하고 있는 경우와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비슷한 비율을 보일 수 있도록 표집하였다.

[표 4-8] FGI 그룹 구성

구분		참여자	성별	연령	근로 여부
그룹1	고졸 또는 초대졸, 20~25세	A	여	22	일함
		B	여	25	일함
		C	여	24	일 안함
		D	여	24	일함
		E	여	24	일 안함
그룹2	고졸 또는 초대졸, 26~34세	F	남	30	일함
		G	여	28	일함
		H	여	26	일함
		I	남	27	일 안함
		J	여	29	일 안함
그룹3	대졸이상 26세~34세	K	여	28	일함
		L	여	30	일함
		M	여	31	일함
		N	남	29	일 안함
		O	여	26	일 안함
		P	남	35	일 안함

인터뷰 참여자가 서울시 청년수당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노동시장으로부터의 퇴출, 그리고 생계의 막막함에 대한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로 인해 아르바이트나 기존 일자리를 그만두면서 노동시장 재진입이 어려워지거나 구직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직접 찾아보거나, 주변의 권유를 받아 정책에 참여하게 된 경로가 많았다.

제가 2월에 (직장에) 들어갔는데 2월에 코로나가 심하게 터져서 제가 출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이 됐었어요. 그래서 결국 내가 국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검색을 하다가 청년수당을 봤었고, 그렇게 신청을 해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참여자 B, 여, 25세, 구직 중)

대부분의 인터뷰 참여자는 수당을 받는 기간 동안 구직활동 중이거나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일부 재충전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청년수당을 받는다고 해서 구직활동을 안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일 구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참여자 N, 남, 29세, 공무원시험 준비 중)

(수당을 받더라도) 먹고 살려면 취업을 해야 되긴 하니까 그래도 (구직에 대한) 압박은 조금 있었던 건 같긴 해요. (참여자 E, 여, 24세, 구직 중)

청년수당을 받는 기간 동안의 구직활동과 관련된 변화로는, 청년수당으로 인한 경제적 여유가 당장 취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었고, 그로 인해 취업을 위해 더 집중을 하거나 역량개발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생겼다는 응답이 있었다. 수당으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본인을 돌아보거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응답도 있었다.

구직기간이 길어지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 (교육을) 받으면서도 너무 마음이 불안하니까 바로 취직을 계속 준비를 해야 하나 구직활동을 계속해야 하나 아니면 이걸 다 듣고 바로 취직을 해야 하나 생각을 했었는데. (청년수당을) 5월부터 받았었다 그랬는데 그거를 받으니까 조금 더 여유가 생겨가지고 그래도 이거(교육) 받고 자격증 준비해서 따고 취직을 하자 생각을 해서 그거하고 9월쯤에 취직을 했어요. (수당을 받고) 가장 바뀐 건 마음의 여유인 거 같아요. (참여자 M, 여, 31세, 수당 참여 중 취업)

청년수당을 받으면서부터 금전적으로 좀 여유로워지게 됐고 이제 그래서 제가 따로 준비하고 있는 시험에 많이 미끄러졌는데 돈 같은 거 개의치 않고 좀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했었고요. (참여자 N, 남, 29세, 공무원시험 준비 중)

그리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2~3개를 할 시간에 차라리 하나로 줄여서 취업준비에 좀 더 매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O, 여, 26세, 수당 참여 중 취업)

프리랜서 일을 할 때 한 건당 10만 원을 받거든요. 50만 원이면 다섯 건의 일을 해야 하는데 한번 일을 할 때 한 열두 시간 정도 일을 해요. ... 어떨 때는 12시간을 넘길 때도 있어요. 그런다고 돈을 더 받지는 않거든요. 건당 받으니까, 근데 5건의 일을 안 할 수 있던 말이에요. 그 시간 동안 저의 개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 (그 개인 시간이) 구직기간에 간절히 필요로 하던 거였는데... (참여자 L, 여, 30세, 수당 참여 이후 취업)

그 취업을 나가기 위한 출발선에 조금 더 빨리 설 수 있게 해준 거 같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금전적으로 보장을 해주니까 마음 그런 부분에서 마음 놓고 구직활동을 조금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C, 여, 24세)

또한, 수당 지급 기간인 6개월이라는 시간이 해당 기간 개인적 목표를 달성해야겠다는 심리적 마지노선이 되어, 구직의욕이 늘어나거나 실제 구직시도가 늘어난 경우도 있었다.

이게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이 6개월이 끝났을 때 '이걸로 인해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개월이 지났을 때 ... 내가 이걸 받은 만큼 좀 더 발전해있으면 좋겠다고... (참여자 G, 여, 28세, 수당 참여 중 취업)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정책을 보면 본인이 쓴 내역이랑 취업을 꼭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잖아요. 근데 청년수당 같은 경우는 그 압박감이 적어서 신청을 많이 고민하지 않고 했던 이유 중 하나데. ... 청년수당 덕분에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의사가 더 ... 타의적으로 누가 너 일을 해! 이게 아니라 ... 본인 스스로 가 일을 해야겠다는 의사가 생겼다는 점에서... (참여자 J, 여, 29세)

또한, 월 50만 원의 추가 금액으로 인한 생활 수준의 여유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지면서 수당 지급 초기에는 아르바이트나 노동시장 참여가 줄어들더라도 종결 시점이 다가오면서 노동시간이 증가하거나 실제 수당 지급 중 구직으로 이어진 경우가 있었다.

제가 전공하면서 제가 어떤 공부를 하면서 그때 댔던 자격증이 있었는데 그걸 활용해서 플랫폼 관련된 노동들이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생겨 가지고 그걸 하게 돼서 50만 원은 아니지만 충당할 수 있게 됐어요. 할 일이 많아서 그 50만 원 받다 보니까 곱졌을 때 조금 그 공간이 너무 클 거 같아서 가만히 못 있겠더라고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 해야겠다. 막 앉아서 노트북 열고 하고 있고 그냥 조금 쉴까 하다가도 아 해야지 하고. 하게 되는 거 같아요. (참여자 O, 여, 26세, 수당 참여 중 취업)

사실 50만 원을 받는 게 그냥 진짜 월급 받는 느낌이었어요. 퇴직금이랑 그 청년수당으로 그냥 살고 있었던 거라서 무조건 이거 끝나기 전 취업해야 한다 이게 조금 전 강했어서... (참여자 B, 여, 25세, 파트타임 근무)

그 6개월을 다 채우기보다는 그 전에 저도 취업을 빨리해서 취업을 빨리하는 게 저한테는 더 경력상 이득이기 때문에 그런 조금 불안한 심리도 있었고... (참여자 D, 여, 24세, 청년수당 참여 중 취업)

인터뷰 말미에는 인터뷰 참여자에게 노동시장 참여와 관련된 양적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당사자들의 해석을 들어보았다. 수당 참여자들은 6개월간 근로소득, 근

로시간, 노동시장 참여율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정된 기간과 소득에 안주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생애주기상 취업과 구직이 주요 과업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직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년수당을 받는 기간 동안 근로유인이 줄어들거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노동시장 참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처음에는 조금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태해지고 소홀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하니까. 4회차 5회차쯤부터는 사람들이 많이 직접 나가고 찾아보고, (취업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참여자 C, 여, 24세)

돈을 준다고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기에는 주는 돈은 한정이 되어있고 기간도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돈을 안 번다는 건 조금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일 안 할 수 있지만, 이 지원사업을 알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일을 좀 더 하려고, 준비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받고 끝낼 거야' 이 생각으로 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조금은 더 나라의 지원을 받고 마음 편하게 하고 싶어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참여했거든요. (참여자 K, 여, 28세, 개인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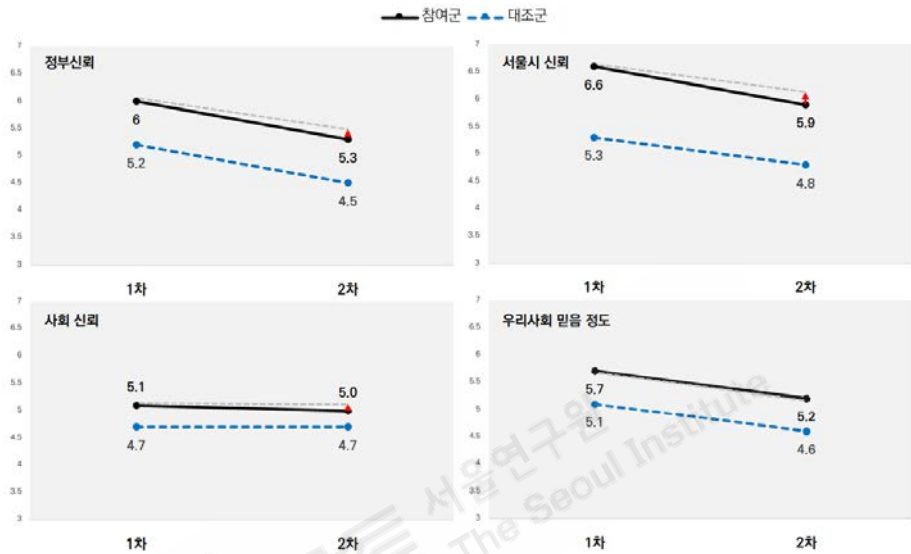
일단 저는 그 수당을 더 받음으로 인해서 노동시간이 늘어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 게 그 50을 벌기 위한 시간을 좀 더 벌었다 생각을 하고 저는 일단 돈은 벌면 벌수록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나한테 보상 같은 게 되어서 좀 더 기운을 갖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참여자 C, 여, 24세)

2) 청년수당의 효과성 평가: 청년들의 인식변화를 중심으로

2019년 청년활동지원사업 효과성 평가연구는 참여자군이 대조군에 비해 사전조사 대비 사후조사에서 사회신뢰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고, 사회적지지, 자신감, 정치적 효능감, 삶의 안정, 삶의 만족도 변화가 더 높게 나타남을 보고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수행된 양적·질적 조사결과에서 사회신뢰와 자아인식에 대한 긍정적 변화는 청년수당이 주요 성과로서 일관성 있게 제시되었다. 하지만 선행연구의 분석은 참여자군과 대조군의 사전-사후 변화량의 단순비교 결과에 그쳐 이러한 긍정적 인식변화가 청년수당의 효과인지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청년수당이 청년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친 영향과 더불어 청년들의 인식변화에 미친 영향을 이중차분분석 결과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1) 정부신뢰, 서울신뢰, 이웃신뢰, 사회신뢰에 대한 정책효과

청년수당을 받은 집단과 비교집단의 1차, 2차 조사 시점의 사회신뢰 점수는 다음과 같다. 사회 신뢰 점수는 10점 만점의 점수로 측정되었다. 1차 조사에 비해 2차 조사에서 참여군과 대조군 모두 정부·서울시·이웃 신뢰 점수와 사회에 대한 믿음 점수가 모두 비슷한 기울기로 하락하였다.



[그림 4-4] 참여군과 대조군의 신뢰수준의 변화

[표 4-9] 참여군과 대조군의 신뢰수준의 변화

(단위: 점, 10점 만점)

구분		참여군 (n=11,831)			대조군 (n=955)		
		사전	사후	t	사전	사후	t
정부 신뢰	평균	6.0	5.3	26.43***	5.2	4.5	5.38***
	표준편차	2.19	2.36		2.52	2.44	
서울시 신뢰	평균	6.6	5.9	25.37***	5.3	4.8	5.23***
	표준편차	1.95	2.12		2.32	2.28	
이웃 신뢰	평균	5.1	5.0	3.79***	4.7	4.7	0.81
	표준편차	1.94	1.98		2.07	2.04	
우리 사회 믿음 정도	평균	5.7	5.2	17.0***	5.1	4.6	4.67***
	표준편차	1.99	2.18		2.24	2.23	

주: *p<0.1, ** p<0.05, ***p<0.01

[표 4-10]는 모든 통제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한 정부신뢰와 사회신뢰에 대한 이중차분 분석 결과이다. 4개의 모형 모두에서 청년수당이 정부신뢰와 사회신뢰에 미친 정책효과를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그래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웃 신뢰를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기간효과가 나타났다. 다만, 네 지표 모두에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기저값이 모두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1차 조사가 청년수당 수급 선정 통보가 이루어진 이후 시행되어 청년수당의 선정된 것 자체로 baseline의 사회신뢰 수준이 높게 나왔던 것으로 보인다. 추후 연구에서는 참여자 집단의 '선정'에서 오는 편의를 통제하기 위해, 선정 후 조사가 아닌 청년수당 '신청' 단계에서 1차 조사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4-10] 이중차분분석결과: 청년수당이 '사회신뢰'에 미친 미친 정책효과

구분	모형1 정부신뢰 coef/se	모형2 서울시 신뢰 coef/se	모형3 이웃 신뢰 coef/se	모형4 사회 믿음 정도 coef/se
기간효과	-0.714*** (0.112)	-0.647*** (0.103)	-0.102 (0.091)	-0.473*** (0.101)
기저값 (개입전, 실험군-대조군)	0.787*** (0.082)	1.187*** (0.076)	0.257*** (0.067)	0.479*** (0.073)
정책효과 (2차시기×실험군 더미)	-0.077 (0.115)	-0.034 (0.106)	0.005 (0.094)	0.012 (0.104)
성별 (1=남, 2=여)	0.257*** (0.031)	-0.080*** (0.028)	-0.292*** (0.026)	-0.126*** (0.028)
만 나이	0.048*** (0.005)	0.042*** (0.004)	0.009** (0.004)	0.030*** (0.004)
고등교육 이수여부 (1= 4년제졸 이상)	0.335*** (0.031)	0.373*** (0.028)	0.413*** (0.027)	0.345*** (0.028)
상수	3.304*** (0.165)	4.162*** (0.150)	4.822*** (0.142)	4.339*** (0.151)

note: *** p<0.01, ** p<0.05, * p<0.1

FGI는 청년수당을 받는 기간 구직활동 경험과 노동시장 참여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나, 응답자의 청년수당 참여경험에서 자연스럽게 사회신뢰와 관련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 양적 분석결과에서 1차에 비해 2차에 정부·사회 신뢰와 관련된 모든 항목에서 신뢰수준이 낮아졌으나, 여전히 대조군에 비해 참여군의 사회 신뢰수준이 높았고, 이와 관련하여 인터뷰 도중 청년수당을 받음으로 정부와 서울시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서울시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구나. 그러면 이제 보통사람들 생각하면은 주변에 뭘 받으면 뭘 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저는 저렇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I, 남, 27세, 구직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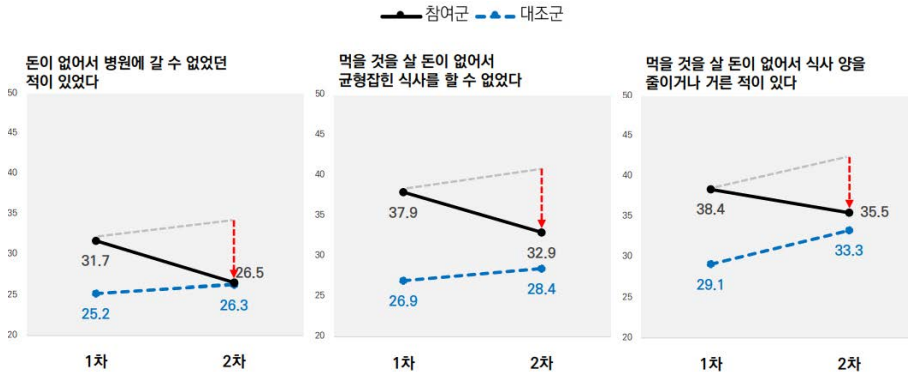
저도 일을 안 할 때는 나라에서 준 돈, 막상 일을 하고 세금 떼어가니까 저 세금으로 내가 활동했구나(웃음). (참여자 C, 여, 24세)

나라가 있다는 거를 잘 느껴본 적이 없는데, 나한테 영향이 오는지 도움을 주는지 이런 걸 잘 느껴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내가 뭐 서울사람 이런 거를 처음으로 느껴봤던 것 같고. 뭔가 조금 시에서 무슨 정책을 하면 그게 나한테까지 오는구나. 정책이 참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 (참여자 A, 여, 22세)

하나는 좀 서울시 정책에 대한 믿음이 좀 생겼다. (갑자기? 웃음) 왜냐면 그 전에는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참 없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도 나는 굉장히 열심히 뭔가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데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일을 그만둘 수가 없고, 이직을 하더라도 뭔가 더 자기계발을 조금 더 해서 좋은 직장으로 옮기고 싶은데 그런 여유도 되지 않는 거죠. 핑계일 수도 있지만, 그랬는데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간소화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도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구나, 그런 걸 처음 알게 해줬던 정책인 것 같고요. (참여자 G, 여, 28세, 수당 참여 중 취업)

(2) 청년수당이 수급자의 결핍인식에 미친 정책효과

이 조사에서는 지난 6개월간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갈 수 없었던 경험’, ‘경제적 어려움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없었던 경험’,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경험’과 같은 결핍 경험 여부를 묻고 있다. 청년수당을 받은 집단과 비교집단의 1차, 2차 조사 시점의 결핍 경험은 다음과 같다. 우선 1차 조사와 2차 조사 모두 청년수당 참여군이 대조군보다 결핍 경험 비율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조군의 경우 1차 대비 2차의 결핍 경험 비율이 증가한 반면, 참여군의 경우 감소하여 2차 조사에서는 참여군과 대조군의 차이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그림 4-5] 참여군과 대조군의 결핍경험의 변화

[표 4-11] 참여군과 대조군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결핍경험의 변화

(단위: %)

구분	참여군 (n=11,831)		대조군 (n=955)	
	사전	사후	사전	사후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31.7	26.5	25.2	26.3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없었던 경험이 있다	37.9	32.9	26.9	28.4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가 없어서 식사량을 줄이거나 거른 적이 있다	38.4	35.5	29.1	33.3

참여자와 대조군 간의 결핍 경험 격차의 감소가 청년수당의 정책효과인지 검증하기 위해 참여군과 대조군의 1차, 2차 결핍 여부의 이중차분분석을 실시하였다. 결핍 경험은 이분변수로 구성되어 분석결과는 승산을 나타내는 오즈비로 해석한다. 통제변수를 모두 추가하여 분석한 3개의 모형 모두 정책효과와 오즈비가 1보다 크게 나타나 청년수당을 받은 집단이 받지 않은 집단보다 결핍 경험이 '있다'고 응답할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²²⁾ 즉, 청년수당은 참여군의 결핍 응답 가능성을 줄이는 긍정적인 정책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²²⁾ 오즈비 0.72는 정책집단에 포함된 사람이 포함되지 않은 사람보다 '결핍'에 대해 '있다'고 응답할 확률이 (1-0.72) 즉, 28% 낮다는 의미를 뜻함.

[표 4-12] 이중차분분석결과: 청년수당이 수급자의 결핍에 미친 정책효과

구분	결핍1 odds ratio/se	결핍2 odds ratio/se	결핍3 odds ratio/se
기간효과	1.059 (0.114)	1.132 (0.118)	1.269** (0.128)
기저값 (개입전, 실험군-대조군)	1.619*** (0.128)	1.869*** (0.144)	1.682*** (0.127)
정책효과 (2차시기×실험군 더미)	0.721*** (0.080)	0.701*** (0.075)	0.692*** (0.072)
성별 (1=남, 2=여)	1.345*** (0.040)	1.058** (0.029)	0.887*** (0.024)
만 나이	1.032*** (0.005)	1.027*** (0.004)	1.010** (0.004)
고등교육 이수여부 (1= 4년제졸 이상)	0.615*** (0.018)	0.802*** (0.023)	0.792*** (0.022)
상수	0.097*** (0.016)	0.158*** (0.024)	0.382*** (0.058)

note: *** p<0.01, ** p<0.05, * p<0.1

FGI를 통해 파악된 ‘수당으로 인한 삶의 변화’ 중, 구직활동 이외에 가장 많이 언급된 것 중 하나는, 일상의 소비지출과 관련된 사항이었다. 듣고 싶은 강의를 듣거나 책을 사는 등 구직과 관련된 지출 이외에도, 월세 부담을 덜거나 먹고 싶은 음식을 먹었거나,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서울생활의 필수지출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식사의 질’과 ‘병원 치료’와 관련된 응답이 두드러져,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의 결핍 해소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부터 당장 수입이 없으니까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었고요 돈 쓰는 게 무서워서 사 먹고 싶은 거도 못 사먹고 타고 가야 할 것도 걸어가고 그랬는데 ... 집에서 독서실까지 걸어서 20분 거리였어요 근데 식비가 아까우니까 처음에는 이제 밥도 점심끓고 집에 가서 먹긴 먹는데 거의 먹다 말다시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화불량도 걸릴 거 같고 그랬었거든요. 급하게 먹다 보니까. 근데 이 돈을 받으면서부터 식비에 있어서 조금 자유로워지니까 근처 식당가서 밥도 먹을 수 있고 커피먹고 싶으면 커피도 사 먹을 수 있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런 점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참여자 N, 남, 29세, 공무원시험 준비 중)

처음 받았을 당시에 치과를 되게 가야 했었는데. 아 이제 그런 치과를 가거나 생활비 같은 거를 좀 당장은 쓸 수 있는 돈이 생겼다. 되게 다행이다?. ... 제가 만약에 갖고 있는 퇴직금으로 치과를 가야 한다면 솔직히 조금 미웠을 것 같거든요. 제가 집안에 의자가 고장 났는데 퇴직금으로 살아야만 했다면 의자 사는 것도 미웠을 테고. (참여자 H, 여, 26세)

근데 병원 가기가 되게 죄송하고 눈치 보였는데. 제가 그 일을 할 때 부모님이 환영하시지 않아서 이렇게. 거기 가서 아프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못 가고 있었는데 이걸 받으면서 받으니까 다 치료를 해서 휴식을 좀 취했었어요. (참여자 L, 여, 30세, 구직 중)

3_수당 외 프로그램의 정책효과성 평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년수당 참여자 11,831명 중 30.6%에 달하는 3,625명이 적어도 1가지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연구는 이 중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프로그램 제공목적의 명확성을 고려하여 일대일 심층상담과 취업준비 프로그램(자기이해 ‘지금, 나, 방향찾기’, 자기이해 ‘지금, 나, 취업준비’)의 참여경험이 우울 수준과 구직준비도에 미친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청년수당 수급자 가운데 일대일 심층상담에 참여한 528명과 취업준비프로그램에 참여한 1,587명이다.

수당 외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2020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참여자(n=11,831) 중,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경험이 있는 집단과 미참여 집단을 구분하여 수당과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한 집단과 수당만 받은 집단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둘째, 참여자 중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경험이 있는 집단과 2020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미참여 대조군(n=955)을 비교하여, 수당과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한 집단과 수당과 프로그램을 모두 받지 않은 집단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1) 일대일 심층상담 사업이 우울에 미친 정책효과

최근 수년간 청년층의 우울증 진단은 지속해서 늘었다. 거기에 2020년 코로나로 인한 관계망 단절, 활동 감소,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우울증 진료 건수가 2019년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동안 20대 우울증 진료 건수는 9만 3,455건으로 2019년 상반기(7만 2,829건)에 비해 28.3% 늘었으며, 30대 우울증 진료 건수도 2019년 6만 7,394건에서 2020년 7만7,316건(14.7%)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20년 12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코로나 19와 청년 정신건강’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 거주 19~34세 청년 2011명에게 ‘2020

년 2월 이후 한번이라도 자살을 생각한적 있는지'를 물었더니 그중 약 27%가 '그렇다'고 답했다. 여성일수록,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일수록 동의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가 시행하고 있는 일대일 심층상담 사업은 '오아시스' 같은 사업이다. 청년들이 경험하기에 상당히 높은 가격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로 및 취업문제, 대인관계 문제, 심리-정서적 불안, 실존적 행동습관 및 신체 건강 등에 대한 무료 1:1 심층 상담을 기본 7회기의 일정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심리·정서 문제를 겪는 2030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청년들의 현실을 반영해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기획, 건의한 정책으로, 2020년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에서 총 2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시행되었다.

이번 정책효과 분석에는 이 연구에 투입된 우울 척도는 한국복지패널의 우울관련 11문항이다. 한국복지패널에서는 우울감 척도로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역학연구용 우울척도)를 사용하고 있다²³⁾. 다만, CES-D는 우울증을 쉽게 구별할 수는 있지만, 진단기준에 입각한 우울증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래서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PHQ9)와 같이 주요 우울장애의 진단을 위해 9가지 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우울증의 심각도 측정에서는 더 신뢰도가 높은 도구라고 지적되기도 하였다(안제용 외, 2013). PHQ9의 경우, 더 간단하게 우울증을 선별하고 우울증의 심각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구이기에 CES-D보다 심각한 우울을 선별해내는 데 더 강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조사에서는 이 척도를 함께 조사에 포함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우울척도는 우울감정, 긍정적 감정, 신체행동둔화, 대인관계 등 4개 하위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기에 어떤 우울 영역에 일대일 상담이 가장 효과적이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하위 4개 영역별로 척도값을 투입하여 정책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박현용(2018)은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하여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우울 증상의 하위유형을 우울증상 무경험집단, 신체화증상을 경험하는 집단, 슬픈 정서와 신체화 증상을 동반 경험하는 집단, 대인관계 관련 증상을 제외한 우울증상을 경험하는 집단, 모든 우울증상을 경험하는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우울한 감정이나 흥미 상실

23) 원 척도는 0~3점으로 구성된 20문항이며 우울증 판별을 위한 분할 점수(cutoff point)는 16점임. 그런데 한국복지패널에서는 각 문항이 1~4점 척도로 구성되어 총 11문항으로 투입되기에, 1~4로 코딩된 조사값을 0~3점으로 재코딩하고, '비교적 잘 지냈다'와 '불만 없이 생활했다'는 문항을 역코딩한 후, 합산 총점에 20/11을 곱하여 총점(33점)을 20문항일 때의 총점(60점)으로 환산함(전진아·이난희, 2015).

과 같은 우울증의 핵심증상 없이 최소 2개 이상의 우울 증상을 가지고 있지만, 임상적 우울증으로 진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아증후군적 우울증(subsyndromal depression)이나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의 우울증인 경도우울장애(minor depressive disorder)를 가진 경우도 있기에(박준혁·김기웅, 2011; 박현용, 2018에서 재인용) 다양한 형태의 우울증상을 구분하고 개입의 효과성을 판단해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허만세 외(2015)의 CESD-4 요인 모형을 참고하여 우울의 하위문항을 구분하였다. 분석에 투입된 문항과 영역은 다음과 같다.

[표 4-13] 우울의 하위 문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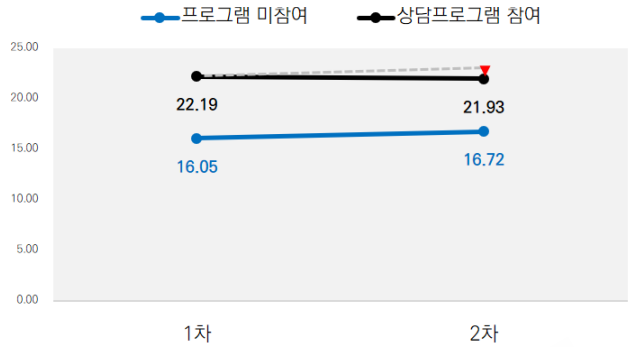
문항	하위그룹	구분
상당히 우울했다	우울감정	우울1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마음이 슬펐다		
비교적 잘 지냈다	긍정적 감정	우울2
큰 불만없이 생활했다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신체 행동 둔화	우울3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잠을 설쳤다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대인관계	우울4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주. 우울의 하위문항 구분은 허만세 외(2015)의 CES-D 4요인 모형을 참고함

(1) 일대일 심층상담의 정책효과: 청년수당 수급자 중 상담참여자와 미참여자 비교

2020년 1차 청년수당 수급자 중 일대일 심층상담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년은 총 528명이다. 우선, 청년수당을 수급한 청년들 가운데 일대일 심층상담에 참여한 경우와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보자. 전자(실험군)는 청년수당을 받으면서 일대일 마음건강 사업에 참여한 경우이고, 후자(대조군)은 청년수당을 받으면서 일대일 마음건강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이다. 기초통계 분석결과 2020년 청년활동지원사업참여자의 우울점수는 16점대로, 전체의 44~47%가 ‘우울있음’으로 나타났다. 1차 조사 기준 일대일 심층상담에 참여한 집단의 우울 평균점수는 약 22점으로 상담 프로그램 미참여집단(대조군)에 비해 우울평균이 높았고, 이러한 경향은 2차 웨이브

에서도 지속되었다. 한편, 일대일 심층상담 미참여자의 우울점수는 1차조사에 비해 2차조사에서 미미하게 상승하였으나, 일대일 심층상담 참여자의 우울점수는 1차조사에 비해 2차조사에서 다소 낮아졌다.



[그림 4-6] 일대일 심층상담참여자와 미참여자의 우울 점수

[표 4-14] 일대일 심층상담참여자와 미참여자의 우울 수준

(단위: %)

구분		참여군 (n=11,831)		일대일 심층상담참여자 (n=528)		일대일 심층상담 미참여자 (n=11,303)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우울 점수		16.12	16.80	22.19	21.93	16.05	16.72
우울 없음	빈도	6,489	6,214	169	184	6,320	6,030
	%	55.6	53.0	32.0	34.9	55.9	53.4
우울 있음 (16점 이상)	빈도	5,342	5,617	359	344	4,983	5,273
	%	44.4	47.0	68.0	65.2	44.1	46.7
고위험 우울 없음	빈도	9,186	8,933	333	316	8,853	8,617
	%	78.1	75.9	63.1	59.9	78.3	76.2
고위험 우울 (25점 이상)	빈도	2,645	2,898	195	212	2,450	2,686
	%	21.9	24.1	36.9	40.2	21.7	23.8

[표 4-15]는 일대일 심층상담의 정책효과성 분석 결과이다. 분석모형은 총 6개이다. 모델 1의 종속변수는 ‘60점 환산 우울총점’이며, 모델 2부터 모델 5는 우울척도의 하부 구성항목인 우울감정, 긍정감정, 신체둔화, 대인관계를 종속변수로 한 분석결과이다. 단, 모델 6은 우울총점을 종속변수로 하되, 분석대상을 우울척도 25점 이상인 ‘우울 고위험군’으로 한정한 분석결과이다.

청년수당 수급자 중 일대일 상담참여자와 미참여자의 우울척도값을 분석한 결과, 모델 6을 제외한 모든 모형에서 기간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효과를 보였는데, 이는 2020년 5월 이후 비교대상인 집단들 모두에서 우울 측정값이 증가하는 추세였음을 의미한다. 동일집단을 대상으로 우울척도를 종단적으로 측정한 선행연구들은 대상층의 성숙 효과에 의해서 우울 증상이 감소한다고 보고한 연구들도 있었지만(권태연, 2012; 성준모, 2010), 이번 데이터에서는 우울 증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20년 지속된 코로나-19로 영향 때문으로 추정된다. 즉, ‘코로나 블루’는 실재하는 현상이다.

분석모형의 가장 핵심변수인 정책효과의 경우, 종속변수에 따라서 효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청년수당 참가자 중 상담참여자와 미참여자의 우울총점을 비교한 모델 1의 경우, 상담참여에 따른 우울척도 개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상담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우울척도 25점(60점 만점) 이상인 우울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일대일 심층상담참여자 212명과 미참여자 2,686명을 비교한 결과, 상담서비스를 받은 집단에서 명백한 우울척도 측정값의 감소(개선효과)가 나타났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우울척도의 하부 항목별 분석결과(모델 2~모델 5)를 살펴보면, 상담서비스의 제공이 효과를 나타낸 영역은 ‘신체둔화’ 항목이었다. 보통 ‘신체화 현상’의 개선은 우울 개선의 첫 징표로 간주된다. 우울의 개선이 일어날 때 감정이나 대인관계보다, ‘식욕’이나 ‘수면장애’, ‘의욕상실’ 등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먼저 변화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즉, 평균 7회기의 상담을 통하여 우울의 신체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었다. 지면상 생략하였지만,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표 하부항목을 분석하였을 때는 ‘신체둔화’와 ‘대인관계’에서의 지표개선이 정책효과로써 나타났다.

이 분석모형은 공통적으로 성별과 만 나이, 학력(대졸 여부)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였으며, 그 결과는 모든 모형에서 일관된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청년 세대 내에서 우울은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보고되고 있는 ‘여성 청년의 높은 우울 및 자살’ 경향과도 일치한다. 만 나이의 경우, 청년세대 내에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우울척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4년제 대졸 미만의 학력을 가진 집단이 대졸 이상인 집단보다 우울 척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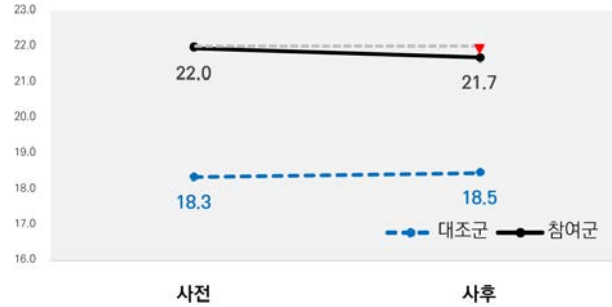
[표 4-15] 일대일 심층상담의 효과성: 청년수당 수급자 중 상담자와 미상담자 비교

구분	모델1: 우울총점 coef/se	우울 하부 항목				모델6: 고위험군 (25점 이상)
		모델2: 우울감정 coef/se	모델3: 긍정감정 coef/se	모델4: 신체둔화 coef/se	모델5: 대인관계 coef/se	
기간효과	0.669*** (0.158)	0.100*** (0.031)	0.094*** (0.020)	0.092*** (0.034)	0.082*** (0.017)	0.237 (0.214)
기저값 (개입전, 실험군-대조군)	5.900*** (0.595)	1.175*** (0.115)	0.459*** (0.074)	1.101*** (0.127)	0.509*** (0.070)	2.949*** (0.618)
정책효과 (2차시기×실험군 더미)	-0.927 (0.832)	-0.121 (0.162)	0.029 (0.103)	-0.397** (0.179)	-0.021 (0.097)	-2.231** (0.882)
성별 (1=남, 2=여)	4.095*** (0.160)	0.801*** (0.031)	0.286*** (0.021)	1.039*** (0.035)	0.127*** (0.017)	0.966*** (0.232)
만 나이	0.203*** (0.026)	0.029*** (0.005)	0.031*** (0.003)	0.033*** (0.006)	0.018*** (0.003)	0.087** (0.035)
고등교육 이수여부 (1=4년제졸 이상)	-2.684*** (0.172)	-0.333*** (0.034)	-0.348*** (0.022)	-0.554*** (0.038)	-0.242*** (0.019)	-1.230*** (0.224)
상수	5.143*** (0.805)	0.482*** (0.158)	0.824*** (0.103)	1.365*** (0.174)	0.158* (0.089)	30.770*** (1.100)

note: *** p<0.01, ** p<0.05, * p<0.1

(2) 일대일 심층상담의 정책효과: 청년수당 수급자 중 상담참여자와 대조군의 비교

나아가 청년수당을 받으면서 일대일 심층상담에 참여한 집단(이하, 실험군)과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군과 유사한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미참여한 집단(이하, 대조군)의 우울척도 점수를 비교·분석해 보았다. 분석대상은 청년수당 참여자 가운데 일대일 심층상담을 받은 집단 528명, 청년활동지원사업 미참여 대조군 955명이다. 기초통계 분석 결과, 대조군에 비해 청년수당 수급자 중 일대일 심층상담에 참여하고 있는 집단의 우울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수당을 수급받으면서 일대일 심층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은 1차보다 2차조사에서 우울점수가 약간 낮아졌으나, 수당도 받지 않고 프로그램 참여경험도 없는 대조군은 2차조사에서 우울점수가 조금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4-7] 청년수당 수급자 중 상담참여자자와 대조군의 우울점수

[표 4-16] 청년수당 수급자 중 상담참여자자와 대조군의 우울 수준

(단위: %)

구분		참여군(n=528)		대조군(n=955)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우울 점수		21.96	21.69	18.34	18.46
우울 없음	빈도	169	184	458	462
	%	32.89	35.4	48.06	49.27
우울 있음(16점 이상)	빈도	359	344	497	493
	%	67.11	64.5	51.94	50.73
우울 없음	빈도	333	316	691	667
	%	63.52	60.41	71.82	70.63
고위험 우울(25점 이상)	빈도	195	212	264	288
	%	36.48	39.59	28.18	29.37

주. 참여군과 대조군의 비교분석은 앞선 3장 2절, 3절과 동일하게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음.
 사례수는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실제 조사된 표본 수를 작성하였으며, 응답비율은 모집단의 비율을 반영하여 가중치를 적용한 값으로 작성함.

[표 4-17]은 정책효과 분석 결과이다. 분석모형은 총 6개로, 모델1의 종속변수는 '60점 환산 우울총점'이며, 모델2는 우울총점을 종속변수로 하되, 분석대상을 우울척도 25점 이상인 '우울 고위험군'으로 한정된 분석결과이다. 모델3부터 모델6은 우울척도의 하부 구성항목인 우울감정, 긍정감정, 신체둔화, 대인관계를 종속변수로 한 분석결과이다.

청년수당 수급자 중 일대일 상담참여자자와 대조군의 우울척도값을 분석한 결과,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기간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1차 측정 시 두 집단의 유의미한 차이수준을 의미하는 기저값은, '긍정감정'을 제외한 모든 모형에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좀 더 우울척도 값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모형의 가장 핵심변수인 정책효과의 경우, 분석대상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청년수당 참가자 중 상담참여자와 대조군의 우울충점을 비교한 모델1의 경우, 상담참여에 따른 우울척도 개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상담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우울척도 25점(60점 만점) 이상인 우울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수당과 서비스를 모두 받은 212명과 대조군의 고위험군 288명을 비교한 결과, 실험군에서 명백한 우울척도 측정값의 감소(개선효과)가 나타났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우울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우울척도의 하부 항목별 분석결과(모델3~모델6)를 살펴보면, 상담서비스의 제공이 효과를 나타낸 영역은 이번에도 ‘신체 둔화’ 항목이었다. 보통 ‘신체화 현상’의 개선은 우울 개선의 첫 징표로 간주된다. 우울의 개선이 일어날 때 감정이나 대인관계보다, ‘식욕’이나 ‘수면장애’, ‘의욕상실’ 등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먼저 변화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즉, 평균 7회기의 상담을 통하여 우울의 신체화 현상을 완화할 수 있었다. 지면상 생략하였지만,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표 하부항목을 분석하였을 때는 ‘신체둔화’와 ‘대인관계’에서의 지표개선이 정책 효과로써 나타났다.

이 분석모형은 공통적으로 성별과 만 나이, 학력(대졸 여부)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였으며, 그 결과는 모든 모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나타났다. 단, 모델2와 모델4에서는 성별에 따른 효과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미 우울 고위험군 내 여성의 비율이 70%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집단 구성 측면에서 청년세대 내에서 우울은 남성보다는 여성 쪽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최근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 만 나이의 경우, 우울 고위험군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우울척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4년제 대졸 미만의 학력을 가진 집단이 대졸 이상인 집단보다 우울척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17] 일대일 마음건강사업의 효과성: 청년수당 수급자 중 상담자와 대조군의 비교

구분	모델1: 우울 총점 coef/se	모델2: 고위험군 (25점 이상)	우울 고위험군 (25이상) 우울 하부 항목			
			모델3: 우울감정 coef/se	모델4: 긍정감정 coef/se	모델5: 신체둔화 coef/se	모델6: 대인관계 coef/se
기간효과	0.308 (0.576)	-0.101 (0.673)	-0.133 (0.161)	-0.036 (0.108)	0.005 (0.167)	0.109 (0.136)
기저값 (개입전, 실험군-대조군)	4.328*** (0.713)	2.542*** (0.771)	0.629*** (0.175)	0.101 (0.119)	0.377** (0.192)	0.292* (0.156)
정책효과 (2차시기×실험군 더미)	-0.567 (1.001)	-1.910* (1.090)	-0.107 (0.240)	-0.017 (0.166)	-0.600** (0.270)	-0.327 (0.215)
성별 (1=남, 2=여)	3.625*** (0.540)	0.750 (0.679)	0.288* (0.152)	0.052 (0.102)	0.425*** (0.164)	-0.352*** (0.127)
만 나이	-0.037 (0.077)	0.207** (0.084)	0.047** (0.018)	0.012 (0.013)	0.057*** (0.021)	-0.002 (0.016)
고등교육 이수여부 (1=4년제졸 이상)	-2.989*** (0.532)	-1.651*** (0.590)	-0.141 (0.131)	-0.020 (0.090)	-0.351** (0.142)	-0.396*** (0.115)
상수	14.644*** (2.387)	28.374*** (2.655)	3.945*** (0.606)	3.236*** (0.418)	5.169*** (0.657)	3.255*** (0.507)

note: *** p<0.01, ** p<0.05, * p<0.1

수당 외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일부 FGI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FGI 참여자 16명 중 6명을 제외한 10명은 한 개 이상의 수당 외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참여 프로그램의 이름이 길거나, 어려워서 본인이 참여한 세부 프로그램명을 정확하기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참여 크게 ‘마음건강’, ‘취업준비’ ‘사회참여’ 프로그램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취업준비(8명)’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마음건강(6명)’, ‘사회참여(1명)’ 프로그램 수준으로 참여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인터뷰에 참여한 마음 건강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상담에서 ‘나의 이야기를 상대방이 들어준 경험’, ‘위로와 공감을 받은 경험’이 불안감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응답자 중에서도 ‘심리상담’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지만, ‘민간에서 상담을 받으면 1회기 비용이 너무 비싸서’, ‘수당 외 프로그램의 경우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수당 외 프로그램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등의 사유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마음건강 프로그램 참여해서 7회기 정도 되는 심리상담 같은 걸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7회기가 사실 짧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이제 내 마음을 내가 잘 알게 된 건가 싶으면 끝나서 약간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서 너무 많은 도움이 됐고, 저는 사실 그게 엄청나게 심각한 그런 상태는 아니었지만, 저 나름대로의 꾸준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참여자 K, 여, 28세, 개인사업)

사실 그걸 상담을 하면서도 ‘저는 근데 사실 마음이 엄청 힘들진 않아요’라고 그런 상태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듣고 나서 조금 저에 대해서 계속 위로해주시고 약간 좀 뭐라 그러지 ... 좀 그냥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많이 위로가 됐었던 것 같아요. 또 불안한 시기에. (참여자 M, 여, 31세, 수당 참여 중 취업)

마음 건강 프로그램은 좀 불안하기도 하고, 심리상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해서 했는데, 그거는 좀 계속 저는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받았던 거 같아요. 구직활동을 하는 그것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힘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들어주시고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을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참여자 M, 여, 31세, 수당 참여 중 취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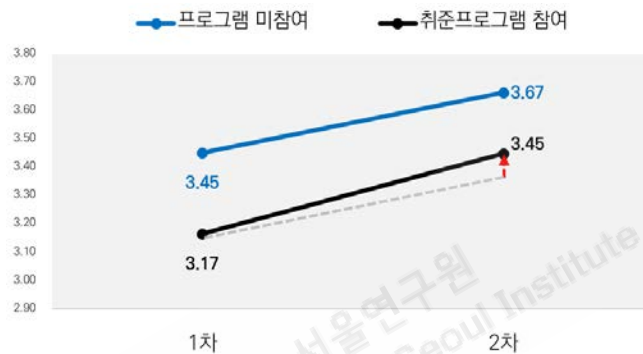
2) 취업준비프로그램이 구직준비도에 미친 정책효과

마지막으로 취업준비프로그램이 수급자의 구직준비도에 미친 정책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 분석에 포함된 취업준비프로그램은 총 3가지로 ① 자기이해, ‘지금, 나, 방향 찾기’ ② 자기이해, ‘지금, 나, 취업준비’ ③ 취준설명서이다. 각 프로그램 간에는 교차 참여가 가능하며, 이 분석에는 세 가지 프로그램 중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를 ‘참여(=1)’로 코딩하였다. 청년수당 수급자 가운데 취업준비프로그램 참여자는 1,585명이었고, 미참여자는 10,246명이었다.

종속변수는 ‘구직준비도’로 현재 본인이 속한 진로 단계를 스스로 응답하는 문항으로 응답자는 ① 진로에 대해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다 ② 진로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여러 방향으로 모색 중이다 ③ 어느 정도 진로를 결정하고 관련 분야를 탐색하는 중이다 ④ 진로와 관련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⑤ 진로가 확정되어 취업, 창업, 창작 활동의 시작을 앞두고 있다는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5개 항목을 ①은 1점, ⑤는 5점의 총 5점 만점의 구직준비도 점수로 계산하여 분석하였다.

(1) 취준 프로그램의 정책효과: 청년수당 수급자 중 프로그램참여자와 미참여자 비교

2020년 1차 청년수당 수급자 중 취업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년은 1,685명이다. 분석에 앞서 우선, 청년수당을 수급한 청년들 가운데 취업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와 청년수당을 받으면서 취업준비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였다. 기초통계 분석결과 취준프로그램 미참여자는 참여자보다 구직준비도 수준이 더 높았고, 참여자와 대조군 모두 1차조사에 비해 2차조사에서 구직준비도가 높아졌다. 한편 취준프로그램 참여자는 미참여자에 비해, 1차조사에 비해 2차조사에서 구직준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하였으나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그림 4-8] 취준프로그램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구직준비도

[표 4-18] 취준프로그램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구직준비도

(단위: %)

구분		참여군 (n=11,831)			취준프로그램 참여자 (n=1,585)			취준프로그램 미참여자 (n=10,246)		
		사전	사후	t	사전	사후	t	사전	사후	t
구직준비도 (5점 만점)	평균	3.41	3.63	-16.72***	3.17	3.45	-7.67***	3.45	3.67	-15.01***
	표준편차	1.00	1.05		1.02	1.07		0.99	1.04	

주: *p<0.1, ** p<0.05, ***p<0.01

[표 4-18]에서 청년수당 수급자 중 일대일 상담참여자와 미참여자의 구직준비도를 분석한 결과, 모든 모형에서 기간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효과를 보였다. 이는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닌 일종의 '성숙' 효과로 해석될 수 있다. 분석모형의 가장 핵심변수인 정책효과의 경우, 참여군이 대조군에 비해 약간의 추가적인 개선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실 이러한 개선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구직준비도 개선에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 1차 웨이브에서 존재했던 두 집단 간 기저차이를 정책참여를 통해서 충분히 개선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구직준비도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오히려 공변량으로 투입된 통제변수들의 효과이다. 모형 2~4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성별과 만 나이, 학력(대졸 여부)를 통제변수로 투입한 결과, 각 통제변수의 유의도에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모형3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구직준비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고등교육 여부'를 통제하면 연령 요인의 통계적 유의도는 사라지고, 오히려 성별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모형4를 기준으로 볼 때, 구직준비도에 가장 큰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고등교육 이수여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청년층의 '구직준비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졸 미만의 학력을 가진 청년들의 구직준비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취업준비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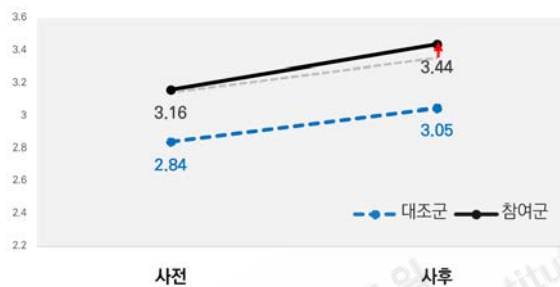
[표 4-19] 취업준비프로그램이 구직준비도에 미친 영향: 청년수당 수급자 중 취업프로그램 참여자와 미참여자 비교

구분	모형1 coef/se	모형2 coef/se	모형3 coef/se	모형4 coef/se
기간효과	0.214*** (0.014)	0.214*** (0.014)	0.214*** (0.014)	0.214*** (0.014)
기저값 (개입전, 실험군-대조군)	-0.286*** (0.027)	-0.285*** (0.027)	-0.289*** (0.027)	-0.292*** (0.027)
정책효과 (2차시기×실험군 더미)	0.070* (0.040)	0.070* (0.040)	0.070* (0.040)	0.070* (0.039)
성별 (1=남, 2=여)		-0.009 (0.014)	0.006 (0.014)	-0.043*** (0.014)
만 나이			0.018*** (0.002)	-0.002 (0.002)
고등교육 이수여부 (1= 4년제졸 이상)				0.362*** (0.015)
상수	3.451*** (0.010)	3.466*** (0.024)	2.918*** (0.068)	3.366*** (0.069)

note: *** p<0.01, ** p<0.05, * p<0.1

(2) 취업준비프로그램의 정책효과: 청년수당 수급자 중 프로그램 참여자와 대조군의 비교

마지막으로 청년수당을 받으면서 취업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이하, 실험군)과 청년활동지원사업 미참여한 집단(이하, 대조군)의 구직준비도 점수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청년수당 참여자 가운데 취업준비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 1,585명, 청년활동지원사업 미참여 대조군 955명이다. 기초통계 분석결과 청년수당 수급자 중 프로그램 참여자의 구직준비도 수준이 대조군보다 더 높은 수준이며, 두 집단 간 변화의 추세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림 4-9] 청년수당 수급자 중 취업준비프로그램 참여자와 대조군의 구직준비도

[표 4-20] 청년수당 수급자 중 취업준비프로그램 참여자와 대조군의 구직준비도

(단위: %)

구분	참여군(n=1,585)			대조군(n=955)		
	사전	사후	t	사전	사후	t
평균	3.16	3.44	-7.54***	2.84	3.05	-3.58***
표준편차	1.02	1.07		1.23	1.30	

[표 4-20]에서 청년수당 수급자 중 취업준비프로그램 참여자와 청년활동지원사업 미참여 대조군의 구직준비도를 분석한 결과, 1차 웨이브에 존재했던 두 집단 간 차이를 의미하는 기저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이는 1차 웨이브에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조금 더 구직준비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기간효과의 경우,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효과를 보였다. 이는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남 구직준비수준에 대한 일종의 ‘성숙’ 효과로 해석될 수 있다.

분석모형의 가장 핵심변수인 정책효과의 경우, 참여군이 대조군에 비해 추가적인 구

직준비수준 향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⁴⁾

통제변수들의 경우, 성별에 의한 차이는 모형 2~3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고등교육 이수여부를 통제한 모형 4에서는 여성의 구직준비도가 남성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모형 4에서 부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와 앞 절의 결과(청년수당 수급집단 내 비교) 즉, 구직준비도의 경우 결국 ‘고등교육 이수여부’가 핵심적인 영향요인이라는 결과와 조응하게 된다. 모형 4를 기준으로 볼 때, 구직준비도에 가장 큰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고등교육 이수여부’이고, 취업준비프로그램 역시 상당한 정책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론은 청년층의 ‘구직준비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졸 미만의 학력을 가진 청년들의 구직준비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취업준비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4-21] 취업준비프로그램참여가 구직준비도에 미친 영향: 청년수당 수급자 중 취준프로그램 참여자와 대조군 비교

구분	모형1 coef/se	모형2 coef/se	모형3 coef/se	모형4 coef/se
기간효과	0.169*** (0.058)	0.169*** (0.058)	0.169*** (0.058)	0.169*** (0.056)
기저값 (개입전, 실험군-대조군)	0.335*** (0.047)	0.334*** (0.047)	0.334*** (0.047)	0.304*** (0.046)
정책효과 (2차시기×실험군 더미)	0.115* (0.068)	0.115* (0.068)	0.115* (0.068)	0.115* (0.067)
성별 (1=남, 2=여)		-0.008 (0.036)	-0.008 (0.036)	-0.065* (0.036)
만 나이			0.000 (0.005)	-0.021*** (0.005)
고등교육 이수 여부 (1= 4년제졸 이상)				0.459*** (0.033)
상수	2.831*** (0.040)	2.845*** (0.075)	2.836*** (0.167)	3.296*** (0.167)

note: *** p<0.01, ** p<0.05, * p<0.1

FGI에서도 일부 취준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FGI 참여자들은 26세 이상 청년의 비율이 높았고 따라서 대부분 과거 근로 경험이 있거나, 현재 구직 중으

²⁴⁾ 이것이 취업준비 프로그램 참여의 효과인지, 아니면 청년수당 수급의 효과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로 본인의 취업 목표를 어느 정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근로 동기를 고취하거나 취업에 대한 방향성을 찾아가는 프로그램보다는 자소서 첨삭, 면접 관련 강의, 구직활동과 관련된 질의응답 등 실무와 관련된 구체적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거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웬만한 거 다 들었어요. ... 좀 곤란한 상황에 대한 질문도 봐주셨거든요. 질문받을게요. 먼저 경험하시면서 궁금하신 거 다 하세요(라고). ... 저도 질문하고 그래서 근데 그 강사분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는 분이셔서 저도 언론계를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을 받았어요. ... 그후에도 강사분 이메일 같은 거 알려주시면서 여기에 질문 또 해도 된다 그 후로도 물어보고 도움을 받았거든요. 자료 같은 거 많이 주셔서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의 덕을 많이 봤어요. ... 수당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텐데 그 프로그램 덕분에 조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어요. 이게 슬럼프가 오고 이러면서 감각이 무뎠다가 다시 처음에 그 제가 전에 하던 일을 마치고 나왔을 때의 패기 그런 게 다시 살아나는 느낌 용기도 얻고 아 나는 이런 도움 받아서 다시 할 수 있어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프로그램의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참여자 L, 여, 30세, 구직 중)



05

결론



1_연구결과 요약

2_연구의 한계와 시사점

05. 결론

1_연구결과 요약

이 연구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분석을 위해 2020년 1차 청년수당 대상자 21,917명을 조사하여 청년수당과 수당 외 프로그램 지원에 따른 정책효과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청년수당 참여자와 유사한 조건을 가졌으나 2020년 1차 청년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대조군을 선정하여 사전-사후 통제집단 설계(pretest-protest control group design)에 따라 활동실태, 건강과 기본생활, 인식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그 정책효과를 검증하였다. 본격적인 정책효과 검증에 앞서 기술통계 수준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참여자 (n=11,831)와 대조군(n=955)의 특성을 살펴보고 사전 조사와 사후조사 사이의 6개월간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후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변화가 포착되었던 결과변수를 중심으로, 이중차분모형을 활용하여 정책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장 먼저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참여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대조군이 참여군보다 ‘고졸’, ‘기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본인과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양호했으며 이에 따라 가구 대출·지출수준도 높았다. 소득활동 참여, 근로소득 등의 노동시장 참여 역시 대조군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부모로부터 경제적·물리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는 청년의 비율은 두 집단이 유사했고, 과거 노동시장 참여경험, 실업 후 미취업기간, 가구 재산, 청년수당 이외의 공적 지원 경험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선행연구 분석과 전문가 간담회를 통한 조사설계를 통해 이 연구에서는 청년수당의 주요 성과를 ① 활동실태, ② 건강과 기본생활, ③ 인식으로 구분하였고, 세 가지 성과를 중심으로 참여자와 대조군의 사전·사후 변화를 기술통계 수준에서 분석하여 정책효과를 일차적으로 검증하였다.

첫째 ‘활동실태’와 관련해서는 노동시장 성과와 관련된 ‘구직준비도’, ‘구직활동 경험’, ‘소득활동’, ‘근로시간 및 근로소득’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포착되었다. 특히 ‘구직준비도’는 참여군과 대조군 모두 사전에 비해 사후조사에서 진로와 관련되어 진전된 상태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고, 참여자는 사후조사에서 진로를 확정한 비율이 대폭 증가한 성과를 보였다. ‘4주 이내 주된 활동내용’에서는 참여자의 취·창업준비, 아르바이트·소득활동 증가가 두드러지고 ‘그냥 쉬’의 응답비율이 감소하였고, 이는 실제 근로시간과 근로소득의 증가로 나타났다. 참여자는 현재 일자리의 소득이 사전 79만원에서 사후 125만 원으로 약 47만 원가량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주당 근로시간도 22시간에서 28시간으로 약 6시간가량 증가하여 노동시장 성과가 현저히 향상되었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나아가 대조군은 사전·사후 조사에서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였으나, 참여자는 감소하여 청년수당 참여자의 독립과 이행을 일부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건강과 기본생활’과 관련해서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결핍상태를 분석하였다. 서울 청년이 인식하는 건강상태와 우울감, 결핍경험이 타 조사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울 수준은 참여군이 평균 16점대, 대조군이 평균 18점대로 두 집단 모두 매우 높았고, 사전조사보다 사후 조사에서 더 악화되었다. 조사에 활용한 원칙도가 포함된 한국복지패널의 2019년 전체 응답자 우울 점수 평균이 4.73점임을 고려할 때, 청년층의 우울 점수는 약 4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서울 청년의 정신건강 위험도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²⁵⁾. 청년들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감이 다른 조사결과에 비해서 매우 심각하게 나타난 이유는 이 연구의 대상자들이 졸업 후 2년이 경과한 미취업 청년이라는 특성과 연관이 있어 생각해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실업과 불안정 고용은 근로자의 신체건강이나 정신건강(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공수연·양성은, 2012; 이주희·김명희, 2015; 변금선·이혜원, 2018). 또한, 조사기간이 코로나 19 악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조치가 본격화되는 시점이었으므로, ‘코로나 블루’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우울’은 단기적 접근으로는 개선을 이루기 어려움으로 앞으로 마음건강지원사업의 고도화를 통해 우울 수준이 높은 고위

25) 유사한 기간에 이루어진 ‘코로나19가 청년의 이행경로에 미치는 영향(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연구용역, 미발간)’에서 이 연구와 동일한 CES-D척도를 활용해 우울점수를 산출한 결과, 청년의 평균 우울점수는 20.5점으로 이 연구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수치의 출처는 최민지, “청년들, ‘코로나 블루’ 심각... ‘극단적 선택’ 충동, 10배 늘었다” 『경향신문』, 2020.12.7.)

험군에 대해서는 임상 상담에 더하여 의료 지원과 치료를 지원하고 이들을 꾸준히 사례관리할 수 있는 외부자원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결핍은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모두 참여군이 더 높았고 특히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가 없었던 경험'은 대조군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사전·사후 조사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참여군은 사후조사에서 각 항목에 대해서 경험한 비율이 모두 감소했지만, 대조군의 경우 경험한 비율이 모두 증가하여 청년수당 지급이 적어도 참여군의 결핍 경험 악화를 막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식과 관련하여 사회실패, 사회적지지와 자아실패, 긍정성 인식을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인식 관련 지표에서 참여군이 대조군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사전·사후 변화 분석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인식에 긍정적 변화가 두드러진 것에 비해 이 조사에서는 부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이 역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이로 인한 불안정성의 확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청년수당과 함께 청년의 활력증진과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다양한 비금전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군과 미참여 대조군의 사전·사후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청년활동지원사업 전반의 효과를 살펴본 것에 이어, 청년활동지원사업 중 '청년수당만 받은 집단(n=8,206)'과 '수당+프로그램 참여자(n=3,625)'의 특성을 구분하여 살펴보고, 두 집단의 사전·사후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앞서, 2020년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13개 수당 외 서비스 사업을 프로그램의 목적성에 따라 ① 진로탐색·역량강화 지원사업, ② 마음건강 지원사업, ③ 사회참여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였고, 각각의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른 활동실태, 건강과 기본생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2020년 1차 청년수당 참여자 중 약 31%(3,625명)가 1개 이상의 프로그램 참여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평균적으로 프로그램 참여집단에서 여성과 4년제 대학 이상 고학력자의 비율이 높은 데 비해, '사회참여 지원사업' 참여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남성', '2~3년제 전문대 이하' 학력의 참여자 비율이 높아 이질적인 특성을 보였다. 전반적 프로그램 수요에서는 '주거, 노동, 금융 등 청년 생활 상담지원'이 47.0%, '마음건강 자가진단과 상담 지원' 35.4% 순으로 높게 나타나 향후 프로그램 기획·설계 시 프로그램별 참여자 특성과 더불어 청년층의 정책수요를 반영한 보완이 필요하다.

수당 외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과 청년수당만 받은 집단을 구분하여 활동실태, 우울, 인식 등 주요 성과지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수당 외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자체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자의 필요성과 정책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전조사의 기초값 대비 사후조사의 변화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수당 외 프로그램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사전·사후 분석결과 진로탐색·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프로그램 참여자의 구직준비도를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마음건강 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우울의 차이, '사회참여 지원사업' 참여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자아신뢰의 변화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살펴본 분석들이 기술통계 수준에서 청년활동지원사업참여자와 미참여 대조군, 수당 외 서비스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특성과 변화를 살펴보았다면, 이 연구의 마지막 분석 파트인 4장에서는 이중차분모형으로 시차와 환경변화 등 정책개입 이외의 외부 요인과 대조군과 참여군이 가진 고유한 속성으로 인한 영향을 통제된 상태에서 청년수당과 수당 외 프로그램의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첫째, 청년수당의 효과성 평가 분석에서는 청년수당 수급이 노동시장 참여(근로소득, 근로시간, 노동시장 참여 여부)와 인식변화(신뢰, 결핍인식)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청년수당은 수급자의 근로소득과 노동시간에 정적인 정책효과를 미치며, 청년수당을 받은 집단이 받지 않은 집단보다 노동시장에 참여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청년수당은 참여군의 노동시장 성과에 긍정적인 정책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 분석에서는 청년수당은 참여군의 결핍 응답 가능성을 줄이는 긍정적인 정책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한편 청년수당이 정부신뢰와 사회신뢰에 미친 정책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둘째, 수당 외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분석에서는 '일대일 마음건강 사업'이 '우울'에 미친 영향과 '취업준비 프로그램'이 '구직준비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일대일 마음건강사업 참여가 우울에 미친 영향의 분석결과 마음건강 사업 참여가 우울척도 개선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고위험 우울군의 우울 감소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음건강 사업이 청년의 우울에 미친 영향은 뚜렷하지 않았으나 일부 FGI 결과로 상담프로그램 참여자의 긍정적 경험을 파악할 수 있었다.

취업준비프로그램 참여가 구직준비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취업준비프로그램 참여군에서 추가적인 구직준비도의 수준의 향상은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변화가 취업준비프로그램 참여의 효과인지 청년수당의 수급효과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면접조사

등 추가적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직준비도와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부분은 공변량으로 투입된 통제변수들의 효과인데, 구직준비도에 가장 큰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고등교육 이수여부’로 나타나 앞으로 대졸 미만의 학력을 가진 청년들의 구직준비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취업준비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2_연구의 한계와 시사점

이 연구는 그동안의 청년활동지원사업 효과성 평가 연구의 연장선에서, 정책효과성을 보다 엄밀하게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청년활동지원사업 효과성 연구는 사업이 시행된 2017년 첫 해부터 지속되어 왔으며, 매년 내용적·방법론적으로 발전을 거듭해왔다. 이 연구가 가지는 기존연구와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설문문항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사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이전 연도 조사와 비교가 가능하되, 2020년 참여자들의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청년활동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문항으로 재구조화하였다. 특히, 구조화된 척도로 설문문항을 대체하고 척도의 구성을 통일하여 타 조사와 비교분석이 가능하고 응답자의 응답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

둘째, 2020년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사업의 정책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정책대상집단(실험군)과 최대한 유사한 속성을 지닌 대조군을 설정하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정책이전 시점(T0)과 정책 집행 이후 시점(T1)을 비교하는 일종의 준자연실험하에 정책효과를 추정하는 기법을 활용하였다. 2019년 청년수당 효과성 평가연구에서도 참여자군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대조군 집단을 표집하여 참여자-대조군을 대상으로 한 사전-사후 조사·분석 모형을 구축하였지만, 참여자와 대조군의 변화를 단순 비교분석하는데 그쳤다. 이 연구에서는 준실험적 방식으로 정책개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 두 집단에 대하여 1차적으로 실험군의 정책개입 전·후 성과를 차분하고, 2차적으로는 정책시행 전·후 대조군의 변화를 차분한 후, 1차 차분값에서 2차 차분값을 다시 빼 주는 이중차분의 방식으로 정책효과를 추정하였다. 이런 방식을 통해 정책개입 전·후의 두 시점 차이를 활용하기에 정책의 영향을 받는 집단(실험군)과 받지 않는 대조군을 비교할 때 발생하게 되는 편의(bias)를 제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코로나19 위기와 같이 외부 환경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추세(trends)의 영향 역

시 통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인 진전이 있었다.

청년활동지원사업 효과성 검증을 위한 방법론적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사설계나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계, 또한 코로나 19라는 이례적인 특수한 상황으로 기존 조사와는 차이가 큰 조사결과 해석 등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 연구의 한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설계와 관련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확보의 문제이다. 이 연구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정책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청년활동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참여자 동일 조건의 비참여자를 대상으로 청년수당 지급 이전의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이 연구는 대조군 유효표본 1,000명을 목표로 대조군 확보를 위해 참여군에 비해 조사 시점을 연장하여 대조군 조사를 시행하였고, 조사과정에서 대조군의 성별 대표성을 일부 상실하더라도 당초 목표로 했던 유효표본 1천명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 결과 사전조사 응답자 1,416명, 사전·사후 모두 응답자 1,084명의 응답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1차 조사 당시 모집단의 성별, 연령, 학력 쿼터에 맞추어 표집하였으나 대조군 남성 표본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최종 분석에 포함된 집단에서는 여성의 응답 비율이 74.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대조군 여성의 과대표집을 보정하고자 기본 설계 변수(성별, 연령대별)에 대한 설계 가중치를 적용하였고, 이중차분 분석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이 지니고 있을 수 있는 이질성을 통제하기 위해 성별, 나이, 고등교육 이수여부 등의 통제변수를 추가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하지만, 대조군의 경우 ‘청년수당의 요건을 충족하는 미신청자’라는 조건 자체에서 정책에 대한 관심도와 사회참여의 적극성, 정보 수집능력 등 양적 지표로 드러나지 않는 정성적 측면에서 사업참여자들과 체계적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 이러한 특성이 이후 사업참여 여부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결과를 해석하는 데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조사시점의 문제이다. 정책개입(청년수당 지급) 이전과 이후의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전조사는 참여자에게 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지기 전인 2020년 5월 25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했으나, 충분한 표본확보를 위해 1차 지급 이후까지 설문을 연장하여 실시하였다. 이에 사전조사 시점에서 일부 집단에 정책 기대효과와 더불어 실제 금전 지원에 대한 정책효과가 이미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사전조사 시작 시점에서 참여자들이 지원사업으로부터 이미 금전적 혜택을 받거나 받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과 체계적인 응답의 차이를 보일

수 있어 연구결과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다.

참여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확보와 조사시점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청년활동 지원사업 시행과 조사 시행이 함께 설계되고, 진행되어야 한다. 즉, 참여군과 대조군은 무작위추출(random sampling)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의 '선정'이 이루어지기 전인 '신청' 단계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을 표집해야 한다. 하지만, 이 연구는 사업 신청자가 선정된 이후 선정자 정보를 받아 조사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한계를 지니게 되었다.

셋째, 수당 외 프로그램 효과검증을 위한 설계의 문제이다. 이 연구는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수당 외 프로그램) 전체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정부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과는 달리, 청년수당 수급자에게 각종 프로그램을 동시에 지원하는 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 효과 분석을 시도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군 중 프로그램참여자와 미참여자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프로그램 참여 시점을 기준으로 사전·사후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조사의 한계로 별도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 프로그램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비교분석결과, 근로소득과 근로시간으로 측정되는 지난 6개월간 노동시장 성과의 경우 프로그램 미참여자가 참여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청년들이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않았기 때문에 프로그램 미참여자의 노동성고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즉, 프로그램 미참여가 소득활동에 영향을 미쳤다가보다 소득활동을 더 많이 하는 청년들이 프로그램에 미참여했다는 '닭과 달걀 논쟁'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는 프로그램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별도의 연구설계를 통해 보완되어야 과제이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청년수당이라는 현금성 지원의 효과에 집중되어 수당과 함께 지원되는 프로그램의 성과에 주목하지 못했다. 특히, 기존에는 대상자가 5천 명 수준으로 청년활동지원사업참여자 대부분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지만, 2020년에는 대상자가 급격히 확대되어 적극적인 프로그램 참여 지원이 부족하여 참여자 중 약 31%만 1개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청년활동지원사업참여자 중 프로그램 참여자와 미참여자(수당만 지급)를 구분하여 주요 성과를 비교함으로써 프로그램의 개입효과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넷째, 주요 성과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와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고, 이에 대한 해석에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먼저, 선행연구에서 사회실패 등 긍정적 인식변

화의 성과가 두드러진 데 비해 이 연구에서 인식에서 긍정적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2019년 조사에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참여자가 대조군에 비해 사회신뢰, 사회적 지지, 삶의 안정, 삶의 만족도 등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1차 조사가 청년수당 수급 선정 통보가 이루어진 이후 시행되어 청년수당의 선정된 것 자체로 초기값의 사회신뢰 수준이 높게 나왔던 것으로 보인다. 추후 연구에서는 참여자 집단의 '선정'에서 오는 편의를 통제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정 후 조사가 아닌 청년수당 '신청' 단계에서 1차 조사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연구는 분석을 통해 참여자의 취·창업 준비, 아르바이트·소득활동 증가와 근로시간과 근로소득의 증가를 참여자의 주요 성과로 파악하였으나, 2019년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아르바이트 시간이 감소하여 돈을 벌기 위해 써야 하는 시간이 줄어든 것 이 성과로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차이는 단순히 조사결과와 문항의 차이가 아니라 청년활동지원사업의 목적을 무엇으로 설정하고,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고용상황이 열악해진 상황에서 이전보다 참여자 집단의 노동 성과가 더 두드러졌던 이유는 추가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현 시점에서 청년수당의 노동시장 성과는 현금지원의 효과라기보다는, 일종의 '선별' 효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청년수당이 참여자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친 경로와 그 해석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지만, 적어도 현금지원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이탈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 연구의 의미 있는 발견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현금지원정책의 특징으로 보인다. 앞으로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정책목표를 더 명확하게 하여 소득기준은 완화하되 대상집단 타겟팅은 강화하는 효율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 구인화·임세희·문혜진, 20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 소득, 빈곤에 미친 영향: 이중차이 방법을 이용한 추정”, 『한국사회학』, 44(1).
- 김문길·정은희·원종욱·임완섭·김기현·박형준, 2018,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성과측정 및 효과분석”,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연구보고서 02』, 서울시·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 고재성·김강호·정연순·남기곤·이영민·정진철·서복경·현우영·이혜나·양인준·조성은, 2019,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연구」,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 공수연·양성은, 2012, “청년구직자의 취업준비 과정에 대한 탐색적 분석”, 『가정과삶의질연구』, 30(2): 47~64.
- 권태연, 2012, “청소년의 자살생각 수준 변화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 및 생태학적 요인들과의 관련성 검증”,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0(1): 89~118.
- 박준혁·김기웅, 2011, “한국의 우울증 역학에 대한 고찰”, 『대한의사협회지』, 54(4): 362~369.
- 박현용, 2018, “노인 우울 증상의 잠재적 하위유형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6(3): 64~91.
- 변금선·이혜원, 2018, “고용불안정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고용상태 변화 유형과 우울의 인과관계 추정”, 『보건사회연구』, 38(3): 129~160.
-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9,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참여자 분석 연구”,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연구보고서 04』, 서울시·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 성준모, 2010, “소득수준별 가구 경제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학』, 62(1): 109~132.
- 안제용·서은란·임경희·신재현·김정범, 2013, “한국어판 우울증 선별도구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 의 표준화 연구”, 『생물치료정신의학』, 19(1): 47~56.
- 여유진·오미애·이병재·최준영·이주미·김근혜·김선·한겨레·신재동·박나영·송지은·정다운·이봉주·강상경·박정민·안상훈·정원오·백승호·김화선·신유미·김정욱, 2019, 「2019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석진, 2018, 「정책분석을 위한 STATA」, 지필미디어.

유영성·정원호·이관형·마주영·김교성·서정희·이지은·이석원, 2019,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 사전 및 사후조사 비교」, 경기연구원.

유태정·김석선, 2015,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4(2): 127~135.

은석, 2019, “복지제도의 확대와 세대갈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주희·김명희, 2015, “일자리에서의 불평등 인식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21(3): 147~180.

이지호·서복경, 2019, “2017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참여자에 대한 2018년 추적조사”,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연구보고서 04」, 서울시·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이현우·이지호·서복경, 2016,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참여자 분석 연구」.

이현우·이지호·서복경, 2018,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참여자 분석 연구”,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연구보고서 02」, 서울시·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이현우·이지호·서복경, 2020, “2019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참여자 분석 연구 및 2018년 참여자 추적조사 연구”,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연구보고서 06」, 서울시·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전진아·이난희, 2015, 「한국복지패널자료로 살펴본 우울과 만성질환의 동반양상과 의료서비스 이용실태 분석」, 보건복지포럼, 2015(1).

조맹제·배재남·서국희·함봉진·김장규·이동우·강민희, 1999, “DSM-III-R 주요우울증에 대한 한국어판 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 의 진단적 타당성 연구”,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38(1).

경향신문, 2020. 12. 7., “청년들, ‘코로나 블루’ 심각…‘극단적 선택’ 충동, 10배 늘었다”, 최민지 기자.

허만세, 2014, “CES-D 로 측정된 우울증상 변화궤적의 잠재계층 탐색: GMM 을 활용한 한국복지패널 데이터의 재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6(1), 307~331.

Gould, E. D., Lavy, V., and Paserman, M. D., 2004, “Immigrating to opportunity: Estimating the effect of school quality using a natural experiment on Ethiopians in Israel”,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9(2): 489~526.

Drago, F., Galbiati, R., and Vertova, P., 2009, “The deterrent effects of prison: Evidence from a natural experi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7(2): 257~280.

Evaluation on Effectiveness of Youth Activity Support Program

Seung-Yun Kim · Duna Hong · Suk Eun · Hyerim Lee

‘The Seoul Youth Activity Support’ which is launched 2016 is a very unique cash transfer program supporting youth transition to employment. It is consist of both a monetary support of KRW 500,000 monthly up to six months(Youth Allowance) and non-monetary service programs such as job support, training, consultation and community building.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causal policy impact of Youth Activity Support Program 2020 on Youth well-being. Using difference-in-difference estimation, we analyzed panel survey data from a treatment group consisting of 11,831 Youth Allowance participants and control group consisting of 995 non-beneficiaries. This study identifies the significant treatment effects of the Youth Allowance on earned income and average hourly pay. Overall, the program participants have more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labor market than the control group and it turned out that the financial support help to reduce deficiency among Youth. 31% of the treatment group was participated at least one of the non-monetary service programs. Among them, psychological consultation program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impacts on reducing depression score among high-risk individual.

Contents

01 Introduction

- 1_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 2_Main Contents and Research Methods

02 Introducing Youth Activity Support Program in Seoul and its policy impact

- 1_What is Seoul Youth Activity Support Program?
- 2_Literature Review about Cash Transfer Program for Youth

03 Analysis I : Basic Descriptive Analysis on Pretest-posttest Measurement

- 1_Introduction
- 2_Characteristics of the Program Participants
- 3_Pretest-Posttest Comparison
- 4_Comparison between Non-monetary Program Participants and others

04 Analysis II : Difference-in-difference Estimation

- 1_Method
- 2_Evaluation on Monetary Program Effects
- 3_Evaluation on Non-monetary Program Effects

05 Conclusion

- 1_Summary
- 2_Policy Suggestions

2020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효과성 진단

서울연 2020-CR-10

발행인 박형수

발행일 2022년 12월 16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ISBN 979-11-5700-708-0 93330 비매품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이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